KEI
사업보고서
2025-15-02

2025 국민환경의식조사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2025 Survey

염정윤 | 강선아



KEI 한국환경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저자

염정윤, 강선아

연구진

참여연구원 염정윤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강선아 한국환경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자문위원(가나다순)

강용환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무관
김무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
김태형 한국환경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정호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업보고서 2025-15-02|

2025 국민환경의식조사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2025 Survey

ⓒ 2025 한국환경연구원

발행인 김 홍 균
발행처 한국환경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과학·인프라동)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www.kei.re.kr
인 쇄 2025년 12월 26일
발 행 2025년 12월 31일
등 록 제 2015-000009호 (1998년 1월 30일)
ISBN 979-11-5980-756-5 93530
인쇄처 ㈜범신사 02-720-9786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십시오.
염정윤, 강선아(2025), 「2025 국민환경의식조사」, 한국환경연구원.

값 7,000원

CONTENTS

2025 국민환경의식조사

제1장 **2025 국민환경의식조사 개요** 1

제2장 **2025 국민환경의식조사 주요 결과**

1. 환경 인식 5
2. 환경 태도/실천 23
3. 환경 정보 이용 32
4. 환경 수요/정책 45
5. 기후변화 55
6. 결론 71

제3장 **2025 국민환경의식조사 설문지**

1. 국민환경의식조사 설문지 73

참고문헌 97

표차례

표 1-1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 3
표 1-2 응답자 특성 비교(2024년 대 2025년) ····· 3

표 2-1 응답자 특성에 따른 환경문제 관심(점) ····· 6
표 2-2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한 느낌 ····· 21
표 2-3 환경태도(환경친화적 행동 대 편리함) ····· 24
표 2-4 2023~2025년 친환경 행동 실천 응답 비교 ····· 28

그림차례

그림 2-1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 5
그림 2-2 환경문제 원인 인지 정도 ····· 7
그림 2-3 환경문제 해결방법 인지 정도 ····· 8
그림 2-4 연령별 환경문제 해결방법 인지 정도 ····· 8
그림 2-5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 ····· 9
그림 2-6 2023~2025년 주요 환경문제 응답 추이 ····· 10
그림 2-7 환경용어에 대한 주관적 지식 ····· 11
그림 2-8 환경용어에 대한 객관적 지식 ····· 12
그림 2-9 우리나라의 환경상태에 대한 만족도 ····· 13
그림 2-10 기후변화에 대해 연상되는 것 ····· 14
그림 2-11 기후변화의 사회적 및 개인적 심각성 ····· 15
그림 2-12 성별·연령별 기후변화의 사회적 및 개인적 심각성 ····· 16
그림 2-13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 정도 ····· 17
그림 2-14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는 시기 ····· 18
그림 2-15 기후변화 피해 대상 ····· 19
그림 2-16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 ····· 20
그림 2-17 성별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 ····· 21
그림 2-18 연령별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 ····· 22
그림 2-19 환경 태도(환경친화적 행동 대 편리함) ····· 23
그림 2-20 친환경적 태도 및 생활 습관 실천의 어려움 ····· 25
그림 2-21 연령별 친환경적 태도 및 생활 습관 실천의 어려움 ····· 26
그림 2-22 환경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하는 행동 ····· 27
그림 2-23 친환경 행동 동기 ····· 29
그림 2-24 환경문제 관련 사회 인식 ····· 30
그림 2-25 환경문제 관련 개인 인식 ····· 31
그림 2-26 환경 정보 충분성 인식 ····· 32
그림 2-27 필요한 환경 정보 ····· 33
그림 2-28 환경 정보에 대한 의견 ····· 34
그림 2-29 환경 정보 관련 행동 ····· 35
그림 2-30 환경 관련 정보를 접하는 경로 ····· 36
그림 2-31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환경 정보의 정확성 인식 ····· 37
그림 2-32 환경교육 필요성 ····· 38

그림 2-33 환경교육 경험 유무 ····· 39
그림 2-34 연령별 환경교육 경험 ····· 39
그림 2-35 경험한 환경교육 방식 ····· 40
그림 2-36 환경교육 참여 의향 ····· 41
그림 2-37 참여하고 싶은 환경교육 프로그램 ····· 42
그림 2-38 교육이 시급한 환경 분야 ····· 43
그림 2-39 환경교육 참여의 방해요인 ····· 44
그림 2-40 2023~2025년 우리나라의 발전평가 기준 응답 추이 ····· 45
그림 2-41 2023~2025년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우선순위 응답 추이 ····· 46
그림 2-42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 ····· 47
그림 2-43 환경보전 책임 주체 및 각 주체의 노력에 대한 평가 ····· 48
그림 2-44 환경보전 책임 주체(연령별) ····· 49
그림 2-45 2018~2025년 환경보전 주요 주체의 노력에 대한 부정 평가 추이 ····· 50
그림 2-46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 51
그림 2-47 환경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 ····· 52
그림 2-48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 ····· 53
그림 2-49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성별, 정치 성향별) ····· 54
그림 2-50 기후변화 체감 정도 ····· 55
그림 2-51 작년 대비 기후변화 걱정 수준 ····· 56
그림 2-52 기후변화 원인 ····· 57
그림 2-53 기후변화로 인한 체감 가계 지출 ····· 58
그림 2-54 가장 심각한 이상기후 현상 ····· 59
그림 2-55 국가 차원의 이상기후 위험 노출 ····· 60
그림 2-56 개인(가정) 차원의 이상기후 위험 노출 ····· 61
그림 2-57 국가 차원의 이상기후 대비 정도 ····· 62
그림 2-58 개인(가정) 차원의 이상기후 대비 정도 ····· 63
그림 2-5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64
그림 2-60 기후테크 인지도 ····· 65
그림 2-61 성별·연령별 기후테크 인지도 ····· 66
그림 2-62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의 기후테크 ····· 67
그림 2-63 기후테크 우선적 육성 분야 ····· 67
그림 2-64 기후테크 산업 성장의 장벽 ····· 68

그림 2-65 기후테크 관련 금융상품 투자 의향 ····· 69
그림 2-66 기후테크 관련 금융상품 투자 의향 조건 ····· 70

제 1 장

2025 국민환경의식조사 개요[1)]

한국환경연구원(KEI)은 환경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의식 및 인식, 부문별 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환경정책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국민환경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조사 부문은 환경 인식, 환경 실천 및 태도, 환경 수요 및 정책 등이다. 주요 문항에 대해 국민의 시기별 응답 변화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민환경의식조사는 장기간 변화하는 국민의 환경 인식 추이를 살펴보는 목적을 지닌 연구로 기존 데이터와 향후 축적되는 종단 자료와의 연계 비교를 위해 설문 문항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해당 연도의 사회적 관심이나 환경 이슈를 고려한 주제를 특별 부문으로 추가하여 시의성을 확보했다. 특별 부문은 2012년 녹색성장정책, 원자력, 2013년 기후변화 및 화학물질, 2014년 기후변화, 2015년 기후변화와 생태계서비스, 2016년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2017년 기후변화와 에너지(원자력), 2018년 미세먼지, 2019년 물환경과 생태계서비스, 2020년과 2022년 코로나19, 2023년 환경교육, 2024년 실내 공기질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기후변화와 기후테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국민환경의식조사는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조사 문항 및 방법을 일부 변경하였다. 조사 항목 측면에서는 2012년부터 유지되어 온 문항의 연속성은 유지하되 중복되는 질문 및 현실과 맞지 않는 항목은 제외하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였다. 또한 주요 부문도 기존의 다섯 개 부문에서 환경 인식, 환경 태도/실천, 환경 수요/정책의 세 부문으로 통합하였고, 2021년부터는 환경정보 이용 부문을 추가하여 총 네 부문을 운영

1) 본 보고서는 2012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된 조사 사업의 결과 보고서로서 사업 소개 및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등을 기술함에 있어 부분적으로 기존 사업보고서와 중복된 내용이 포함됨.

중이다. 설문조사 방법의 경우 2017년까지는 방문면접조사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2018년 조사부터는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웹 조사를 진행하였다.

방문면접조사의 장점은 조사자가 면접조사에 대한 교육이 잘 된 상태라면 설문 응답자의 설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설문 환경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응답률이 높아 표본 편향(sampling bias)을 줄일 수 있다. 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응답자의 답변에 편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면접자의 훈련 상태에 따라 설문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웹 조사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며, 조사의 설계에 따라 균등한 수준의 조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해외에서 실시된 연구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활용 폭이 넓어지고 있다. 또한 온라인 패널을 이용하면 추적조사를 통한 패널 데이터 구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다만 설문조사 업체에서 구축한 온라인 패널의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 패널에는 근본적으로 이메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자만 포함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령층이나 저학력 계층의 표본이 과소하게 포함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조사자가 직접 설명하는 방식이 아닌 응답자가 웹 화면을 보고 설문을 이해해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다만 최근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차이를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방식의 차이가 유의미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문헌이 다수다.[2] 이에 본 조사에서는 수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웹 조사 방식을 채택하였다.

2025년 국민환경의식조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웹 조사로 진행하였다. 조사업체가 보유한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 URL을 발송하면 응답자는 휴대전화나 PC를 통해 응답할 수 있다. 2018년부터 총 5개년 간 유지했던 1차 패널 조사를 2022년에 종료하고, 2023년부터 패널 데이터를 새롭게 수집하였다. 전년도 조사에 응답한 패널을 대상으로 먼저 설문 응답을 받고, 부족한 표본 수를 새로운 패널에서 채우는 방식으로 시계열 패널을 유지한다. 이를 통해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패널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2025년 조사에서 답변을 완료한 총 표본 수는 3,008명이었으며,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응답한 표본은 1,479명(표본 유지율 49.2%)이었다.

2) Lindhjem and Navrud(2011), pp.1628-1637; Carrozzino-Lyon, McMullin, and Parkhurst(2013), pp.219-233; Boyle et al.(2016), pp.401-419.

표 1-1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구 분	내 용
모집단	전국의 만 19~69세 성인남녀
표본 틀	한국리서치 MS 패널(2025년 8월 말 기준 약 97만 명)
표본추출 방법	지역별·성별·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 크기	총 3,008명
표본오차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1.8%
조사 방법	웹 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로 URL 발송)
응답률	설문 발송 59,409명, 조사 참여 4,942명, 조사 완료 3,008명 (요청 대비 5.1%, 참여 대비 60.9%)
조사일시	2025년 9월 24일~10월 15일

자료: 저자 작성.

표 1-2 응답자 특성 비교(2024년 대 2025년)

구 분		2024년		2025년	
		표본 수	%	표본 수	%
전 체		3,040	100.0	3,008	100.0
성별	남자	1,545	50.8	1,531	50.9
	여자	1,495	49.2	1,477	49.1
연령	20대	534	17.6	506	16.8
	30대	533	17.5	537	17.9
	40대	634	20.9	627	20.8
	50대	707	23.3	700	23.3
	60대	632	20.8	638	21.2
권역별	서울/경기/인천	1,580	52.0	1,567	52.1
	부산/울산/경남	445	14.6	436	14.5
	대구/경북/강원/제주	408	13.4	403	13.4
	광주/전라	282	9.3	274	9.1
	대전/세종/충청	325	10.7	328	10.9
직업	농/임/어업	36	1.2	32	1.1
	자영업	195	6.4	186	6.2
	판매/서비스	263	8.6	226	7.5
	생산/기능/노무	335	11.0	313	10.4
	사무/관리/전문	1,146	37.7	1,164	38.7
	전업주부	470	15.4	452	15.0
	학생	209	6.9	192	6.4
	무직/기타	388	12.7	443	14.7

표 1-2의 계속

구 분		2024년		2025년	
		표본 수	%	표본 수	%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339	11.1	316	10.5
	200~300만 원	456	15.0	435	14.5
	300~400만 원	566	18.6	533	17.7
	400~500만 원	458	15.1	442	14.7
	500~600만 원	355	11.7	393	13.1
	600만 원 이상	866	28.5	889	29.6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36	1.2	31	1.0
	고등학교 졸업	1,201	39.5	1,022	34.0
	대학교 졸업	1,601	52.7	1,695	56.3
	대학원 재학 이상	201	6.6	260	8.6

자료: 저자 작성.

제2장

2025 국민환경의식조사 주요 결과

1. 환경 인식
2. 환경 태도/실천
3. 환경 정보 이용
4. 환경 수요/정책
5. 기후변화
6.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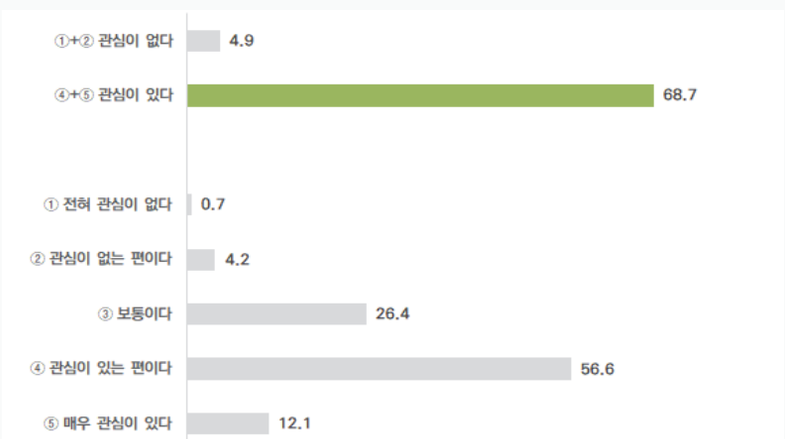
1. 환경 인식

환경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에 관한 질문에 '관심이 있다(매우 관심 있다+관심이 있는 편)'라는 응답이 68.7%로, 지난해 68.4%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2022년 74.2%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는 추세이고 '관심이 없다(전혀 관심 없다+관심이 없는 편)'라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다': 68.7%

문) 귀하는 평소 환경(환경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1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응답자 특성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응답에 1점, '매우 관심이 있다'는 응답에 5점을 부여하여 성별, 연령, 소득, 학력, 혼인 여부, 정치 성향에 따른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개인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했다. 연령과 소득, 학력이 증가할수록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환경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치 성향의 경우 진보 성향의 응답자가 환경에 관심이 많았다.

표 2-1 응답자 특성에 따른 환경문제 관심(점)

구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검증
		사례 수	평균	F
전 체		3,008	3.75	-
성별	남성	1,531	3.71	12.47***
	여성	1,477	3.80	
연령	20대	506	3.62	25.42***
	30대	537	3.58	
	40대	627	3.74	
	50대	700	3.80	
	60대	638	3.96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316	3.56	10.76***
	200~300만 원	435	3.67	
	300~400만 원	533	3.71	
	400~500만 원	442	3.80	
	500~600만 원	393	3.74	
	600만 원 이상	889	3.87	
학력	고졸 이하	1,053	3.74	7.56***
	대학교 졸	1,695	3.78	
	대학원 재학 이상	260	3.88	
혼인 여부	미혼	1,069	3.62	27.94***
	기혼	1,701	3.83	
	기타	238	3.78	
정치 성향	진보	823	3.87	21.44***
	중도	1,453	3.67	
	보수	732	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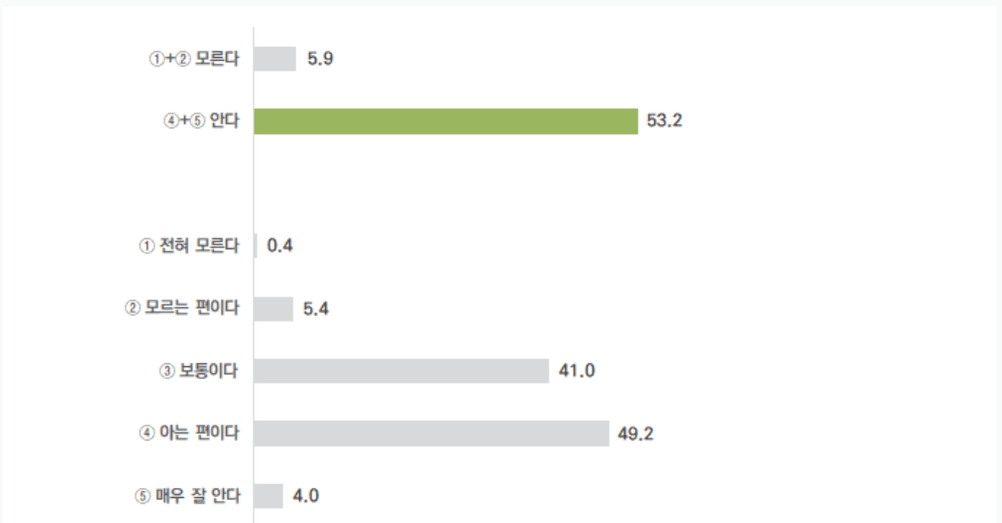
주: ***p 〈 .001.
자료: 저자 작성.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원인에 대해서는 53.2%가 '안다(매우 잘 안다+아는 편이다)'라고, 5.9%가 '모른다(전혀 모른다+모르는 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안다(매우 잘 안다+아는 편이다)'는 응답이 2024년 49.6%에 비해 3.6%P 상승하였다.

환경문제의 원인에 대해 '안다': 53.2%

문) 귀하는 여러 환경문제의 원인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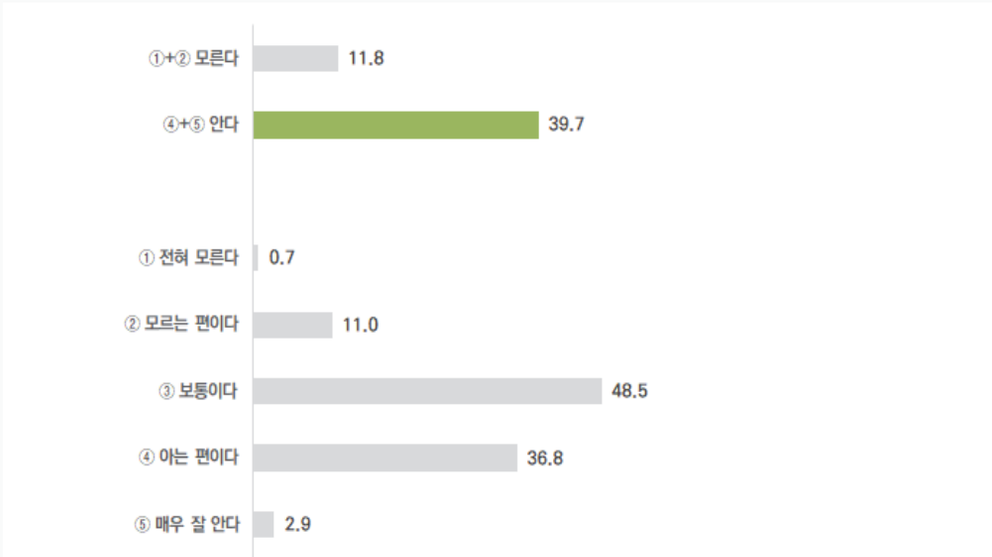
그림 2-2 환경문제 원인 인지 정도

해결 방법의 경우 '안다'라는 응답이 39.7%이고, '모른다'라는 응답이 11.8%였다. 원인에 대한 인식과 달리 해결 방법을 알고 있다는 인식은 2022년 43.8%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응답 차이를 확인한 결과 20대에서 '안다'(49.2%)라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왔으며 60대 이상(40.3%)이 그 뒤를 이었다. 연령에 따라 환경정보 접근성이나 환경교육 경험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젊은 층과 노년층에서 인지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U자형의 결과를 보였다.

환경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해 '안다': 39.7%

문) 귀하는 여러 환경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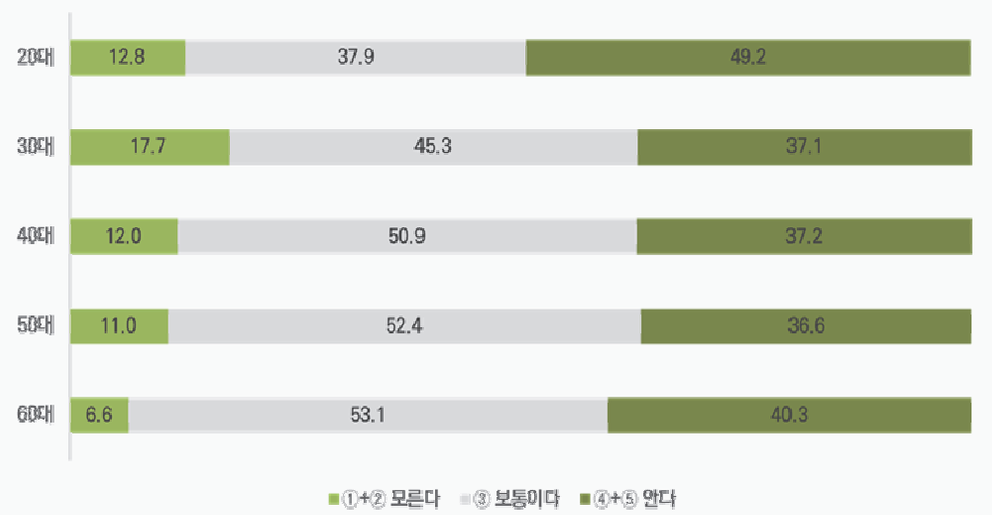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3 환경문제 해결방법 인지 정도

환경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해 '안다': 20대 49.2%

문) 귀하는 여러 환경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4 연령별 환경문제 해결방법 인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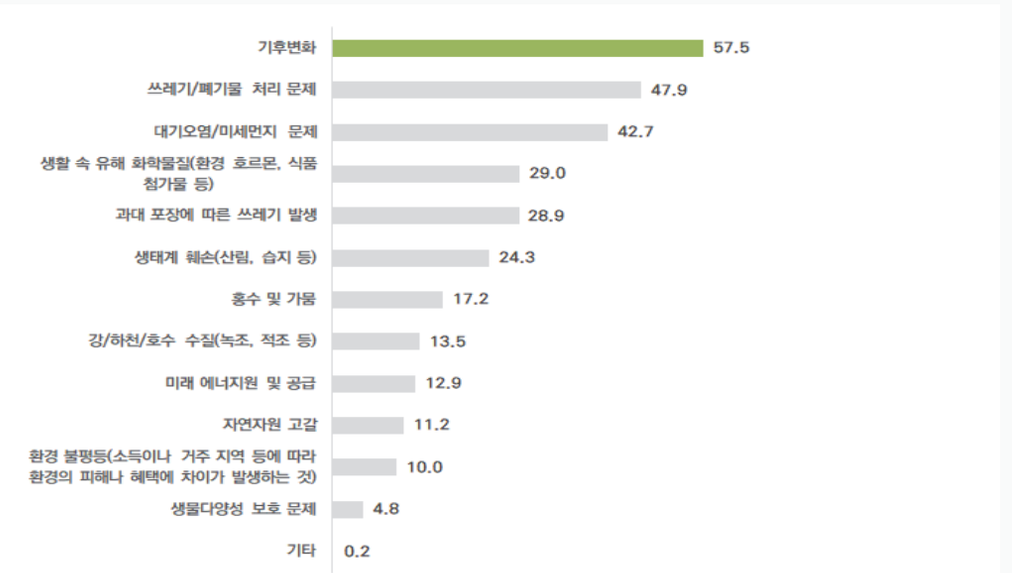
우리나라가 직면한 중요한 환경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57.5%가 '기후변화'를 선택하였으며, '쓰레기/폐기물 처리 문제'(47.9%), '대기오염/미세먼지 문제'(42.7%)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기후변화' 문제가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꼽히긴 했지만 2024년(68.2%) 대비 10.7%P 하락하였다. '쓰레기/폐기물 처리 문제'(56.7% → 47.9%), '대기오염/미세먼지 문제'(47.4% → 42.7%)도 2024년과 비교하여 하락하였다.

반면, '생활 속 유해 화학물질'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0%로 2024년(20.0%)과 비교했을 때 9.0%P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홍수 및 가뭄'(17.2%), '환경 불평등'(10.0%)이라는 응답도 지난해 대비 증가하였다. 예년과 달리 60% 이상의 응답이 집중되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환경문제 인식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 '기후변화' 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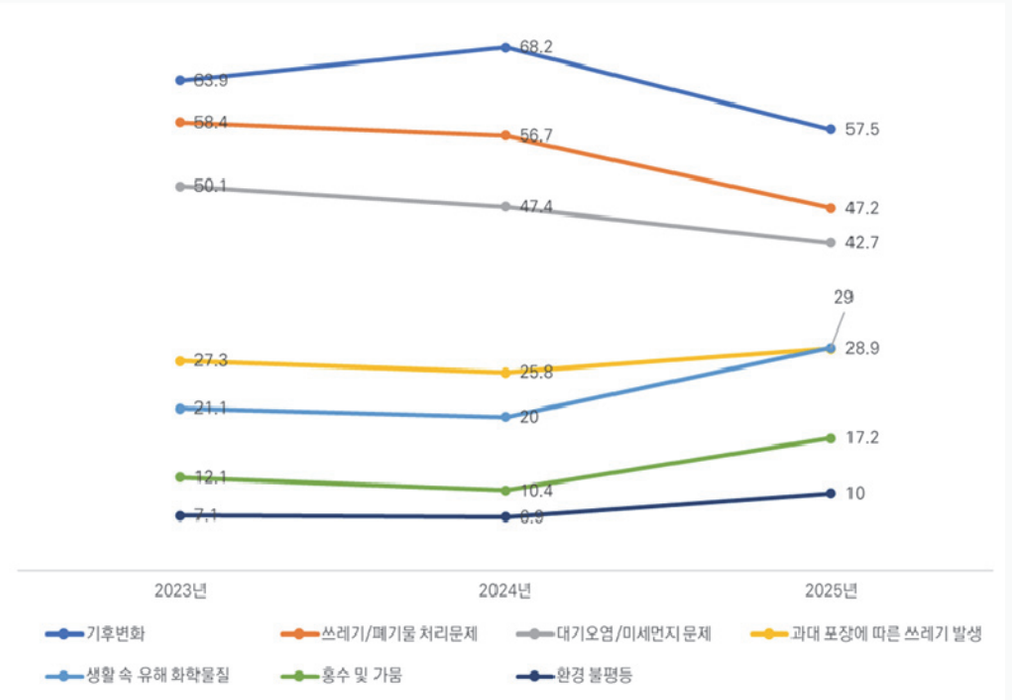
문) 귀하는 다음 중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5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6 2023~2025년 주요 환경문제 응답 추이

다음으로 우리 국민의 환경 지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환경 용어에 대한 인지도를 확인하였다. 지식은 자신이 해당 용어를 알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주관적 지식과 정답과 오답이 존재하는 퀴즈를 제시한 후 정답 여부를 확인하는 객관적 지식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주관적 지식은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이해나 관심 정도를 파악할 수 있지만 자기 보고식(self-reporting) 응답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정말로 그 용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반면, 객관적 지식은 해당 용어를 실제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2020년 조사까지는 주관적 지식만을 조사하였지만 2021년 조사부터는 객관적인 지식을 추가하여 국민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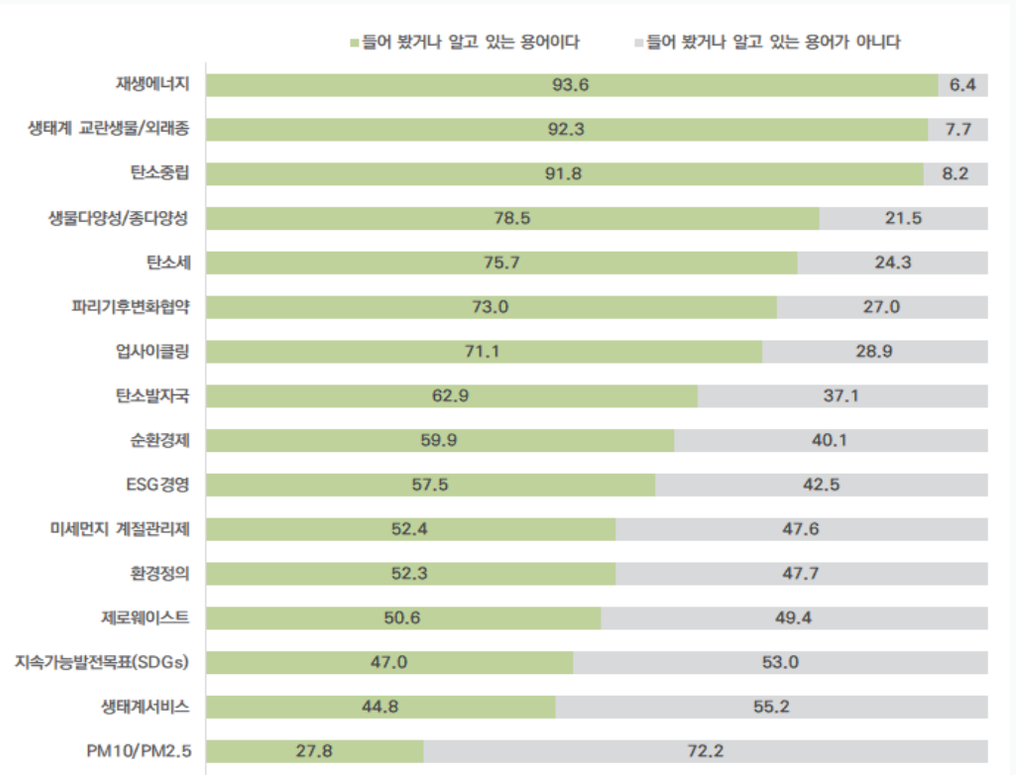
조사 결과 주관적 지식의 경우 '재생에너지'(93.6%), '생태계 교란생물/외래종'(92.3%), '탄소중립'(91.8%) 등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고, '지속가능발전목표'(47.0%), '생태계서비스'(44.8%), 'PM_{10}/$PM_{2.5}$'(27.8%)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다. 주관적 지식 문항 중 지속적으로 인지도가 증가하고 있는 용어는 작년과 유사하게 '순환경제', 'ESG경영'과 더불어 '업사이클링', '제로웨이스트'였다. '순환경제'를 들어봤거나 알고 있는 용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21년 53.1%에서 2025년 59.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업사이클링'(59.0% → 71.1%), '제로웨이스트'(39.4% → 50.6%) 등의 용어를 알고 있다는 응답도 지속해서 늘어나 순환경제

관련 용어에 대한 인지도가 동반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로웨이스트'의 인지도는 성별(여성: 60.9%, 남성: 40.6%) 및 연령(20대: 68.0%, 60대: 34.2%) 간의 격차가 큰 특징을 보이기도 하였다.

환경 관련 용어 중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음: 93.6%

문) 다음 제시하는 용어 각각에 대해 들어 봤거나 알고 있던 용어인지 아닌지 응답해 주십시오.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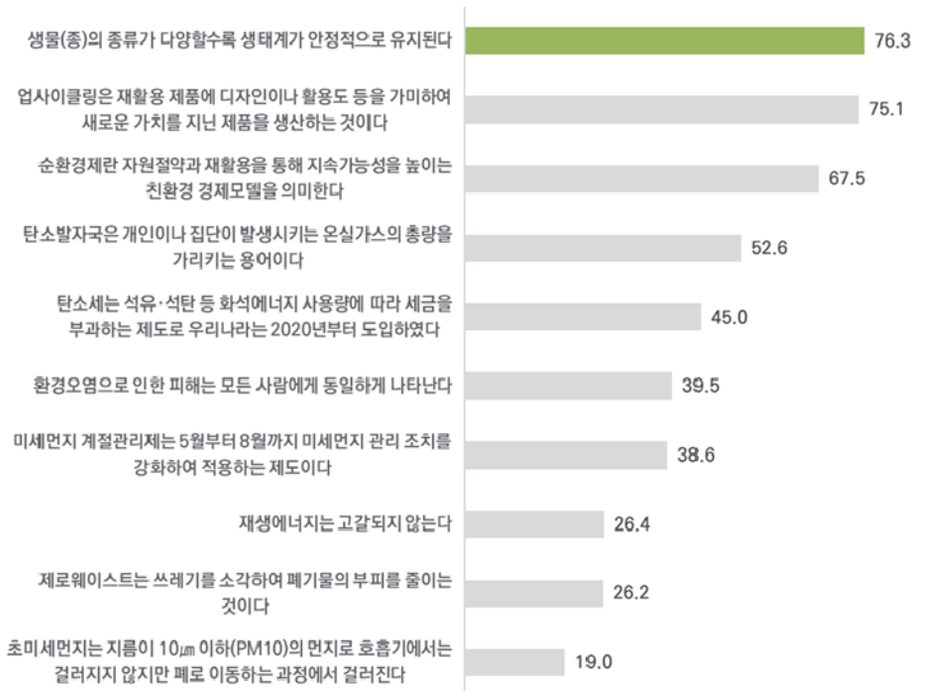
그림 2-7 환경용어에 대한 주관적 지식

객관적 지식은 전반적으로 주관적 지식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작년과 유사하게 '생물다양성/종다양성'(정답률 76.3%), '업사이클링'(정답률 75.1%), '순환경제'(정답률 67.5%) 등의 용어의 정답률이 높았고, '재생에너지'(정답률 26.4%), '제로웨이스트'(정답률 26.2%), '초미세먼지'(정답률 19.0%) 등의 용어의 정답률은 낮았다. '재생에너지', '업사이클링', '순환경제' 등은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의 차이가 큰 용어였다. '재생에너지'는 해당 용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93.6%로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26.4% 정도였다. 반면, '업사이클링'(주관적 지식: 71.1%, 객관적 지식: 75.1%)이나 '순환경제'(주관적 지식: 59.9%, 객관적 지식: 67.5%) 등은 본인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정확히 해당 용어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다.

환경 관련 용어 중 '생물다양성/종다양성'에 대해 가장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 76.3%

문) 다음의 설명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O,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X, 잘 모르시겠으면 모름에 표시해 주십시오.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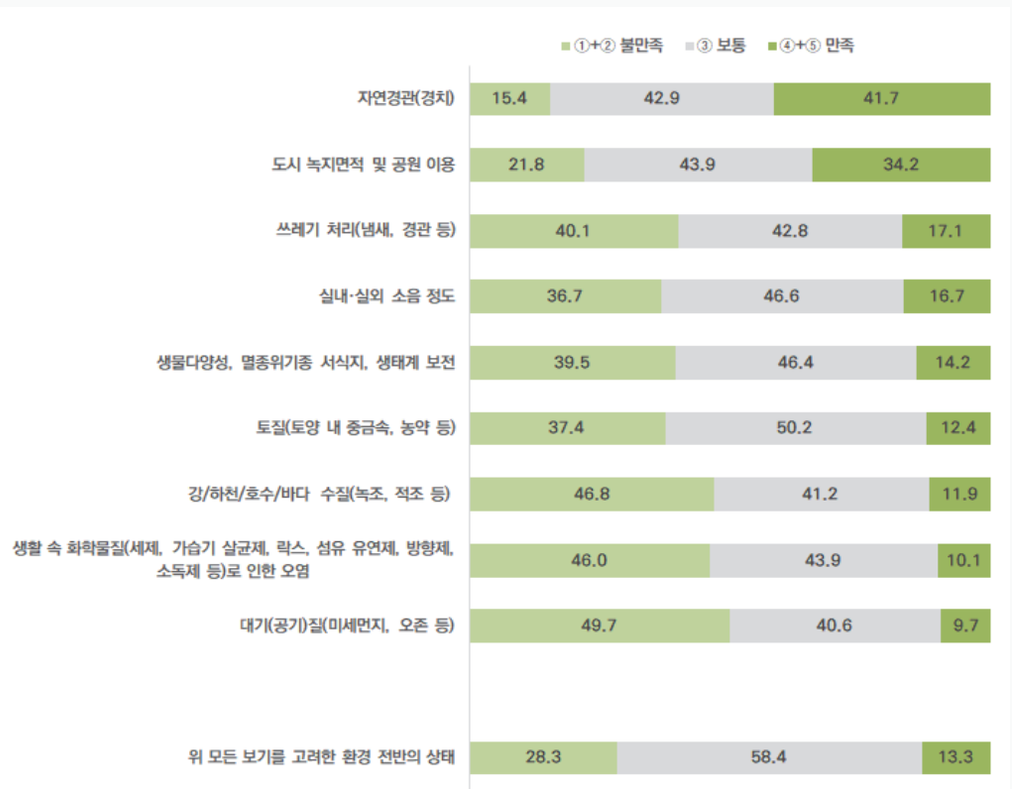
그림 2-8 환경용어에 대한 객관적 지식

환경 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자연경관(경치)'(만족: 41.7%, 불만족: 15.4%)과 '도시 녹지면적 및 공원 이용'(만족: 34.2%, 불만족: 21.8%)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만족 비율보다 불만족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환경 전반의 상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전히 불만족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나긴 하지만 차이(불만족: 2024년 38.4% → 2025년 28.3%, 만족: 2024년 9.6% → 2024년 13.3%)를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다. 또한 모든 문항을 2024년과 비교한 결과, 불만족 응답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다. 불만족 응답이 가장 많이 감소한 부문은 '강/하천/호수/바다 수질'로 2024년(56.2%)에 비해 2025년(46.8%)에 9.4%P 줄었다.

'대기오염'에 대한 불만족도가 가장 높음: 49.7%

문) 귀하는 다음 각각의 우리나라 부문별 환경상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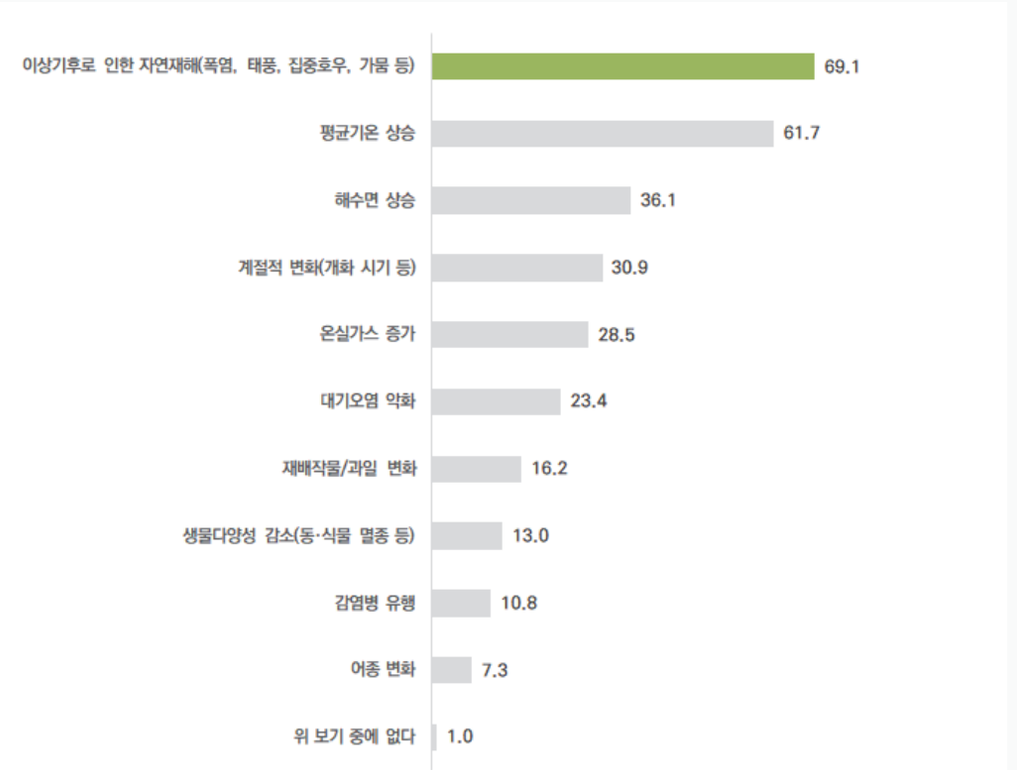
그림 2-9 우리나라의 환경상태에 대한 만족도

기후변화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3가지 복수 응답)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폭염, 태풍, 집중호우, 가뭄 등)'(69.1%)를 가장 많이 꼽았고, '평균기온 상승'(61.7%), '해수면 상승'(36.1%), '계절적 변화(개화 시기 등)'(30.9%)가 뒤를 이었다. '온실가스 증가'(28.5%)라는 응답이 2024년(41.1%) 대비 매우 큰 폭으로 떨어진 데 반해 '계절적 변화'(30.9%), '대기오염 악화'(23.4%), '재배작물/과일 변화'(16.2%) 등의 응답이 지난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기후변화=온난화'라는 인식은 약해지고 보다 다양한 현상들을 기후변화와 연결 짓는 양상이 발견되었다.

기후변화 하면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가장 먼저 연상됨

문) 기후변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3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10 기후변화에 대해 연상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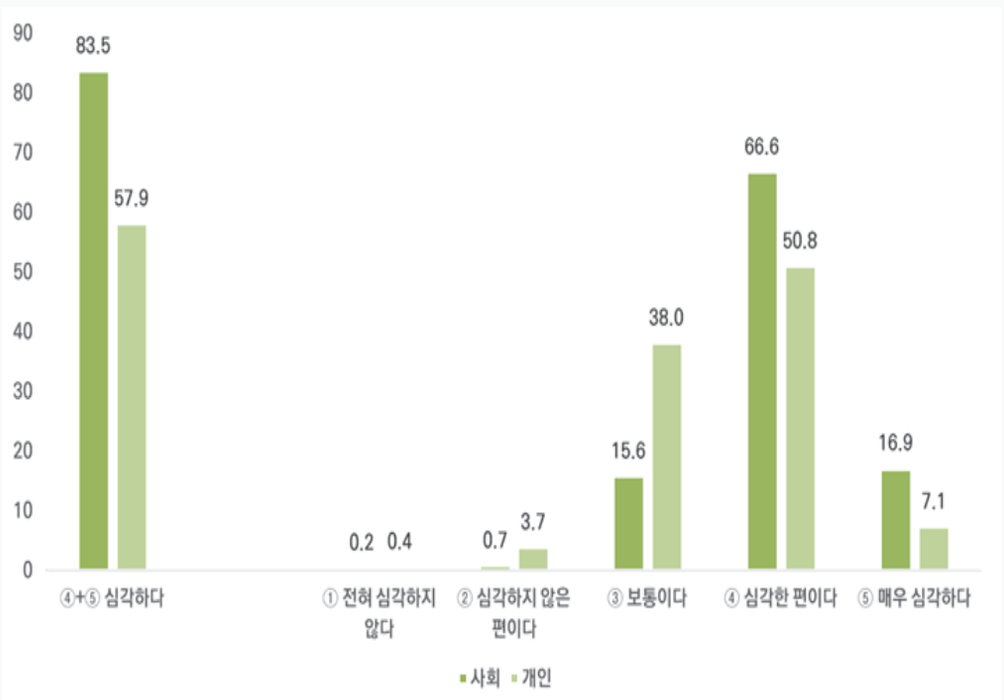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기후변화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83.5%였으나 본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57.9%였다. 기후변화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지만 자신한테 미치는 영향은 그에 비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기후변화 심각성 인식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띤다. 사회적 심각성 인식은 2022년 89.5%, 2023년 88.4%, 2024년 88.6%, 2025년 83.5%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2025년 감소하였으며, 개인적 심각성 인식 역시 2022년 56.7%, 2023년 58.0%, 2024년 66.5%로 증가하다가 2025년 57.9%로 감소하였다. 심각성 인식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고[사회적 심각성: 여성(88.4%), 남성(78.9%), 개인적 심각성: 여성(63.8%), 남성(52.3%)], 고령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사회적 심각성: 60대(87.6%), 개인적 심각성: 50대(61.3%)].

현재의 시점에 기후변화의 심각성: 83.5%, 개인 관점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 57.9%

문) 현재 시점에서 기후변화가 사회 전반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현재 시점에서 기후변화가 귀하 본인에게는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11 기후변화의 사회적 및 개인적 심각성

여성, 고령층의 심각성 인식 높아

문) 현재 시점에서 기후변화가 사회 전반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현재 시점에서 기후변화가 귀하 본인에게는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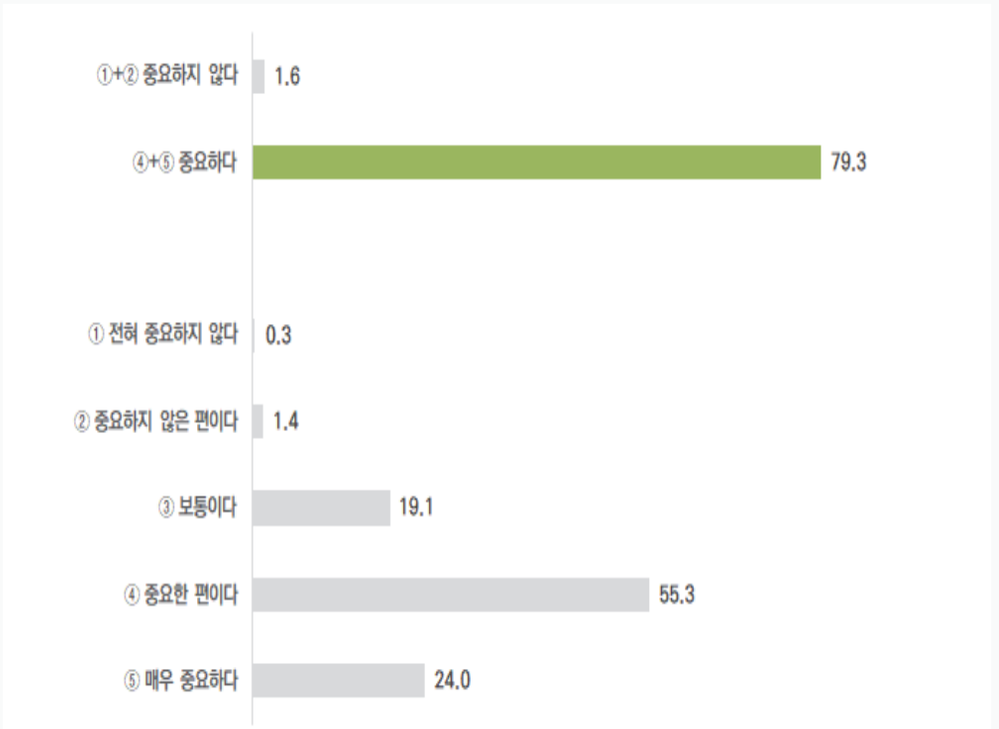
그림 2-12 성별·연령별 기후변화의 사회적 및 개인적 심각성

한편, 기후변화의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는 79.3%가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 + 중요한 편이다)'고 답하였다. 이는 2024년 83.7%에 비해 4.4%P 감소한 수치다. 심각성 인식과 중요도 인식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 국민의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다소 약화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내게 중요한 문제이다 : 79.3%

문) 귀하께 기후변화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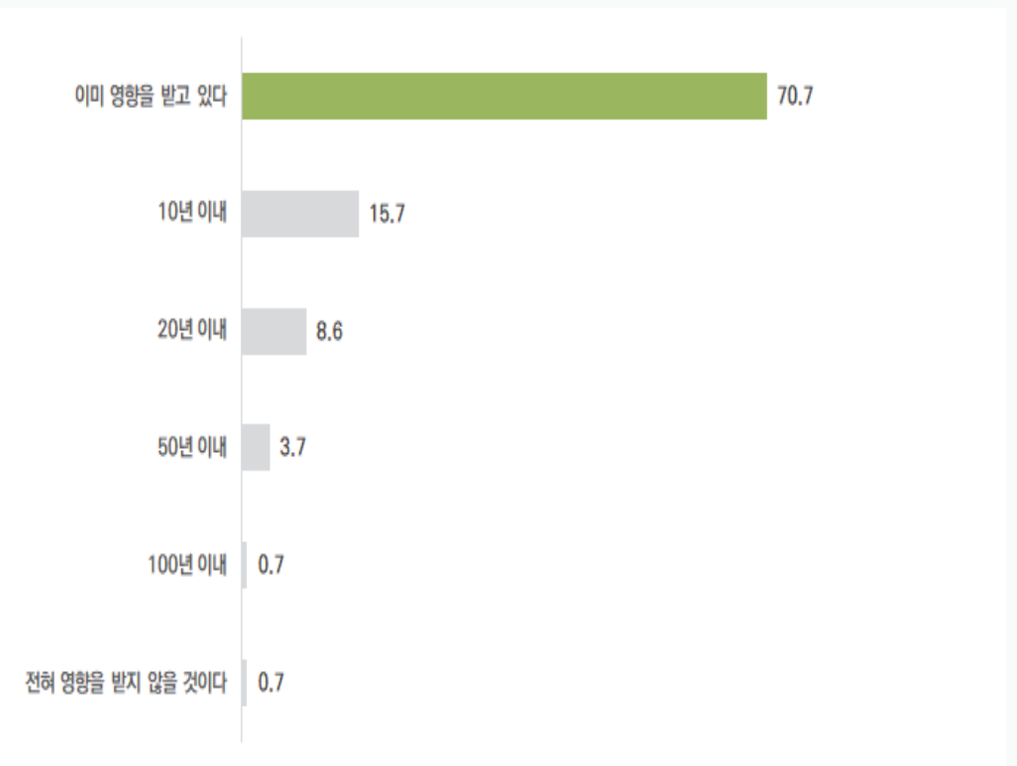
그림 2-13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 정도

기후변화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를 물은 결과 70.7%가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답하였다. 이 응답은 2018년 65.8%에서 2021년 57.1%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2024년(65.5%) 대비 2025년에 5.2%P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미국에서 진행한 유사한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이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해당 조사에서 미국 국민의 48%만이 현재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3)]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음: 70.7%

문) 귀하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14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는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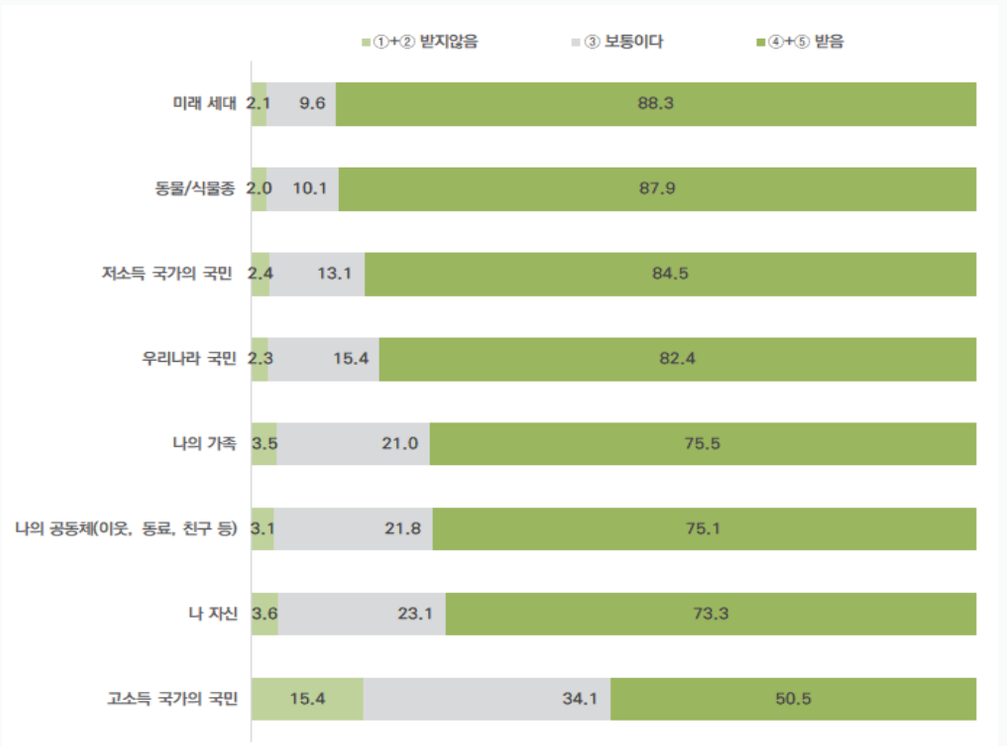
3) Leiserowitz et al.(2025), p.3.

기후변화의 피해 대상에 대한 질문에는 '미래 세대'가 '피해받을 것'(매우 받음+약간 받음)이라는 응답이 88.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동물/식물종'(87.9%), '저소득 국가의 국민'(84.5%), '우리나라 국민'(82.4%)의 순이었다. 2024년 대비 2025년에 모든 대상 항목에서 '피해받을 것'이라는 응답률이 일제히 하락하였다. 하락 폭이 큰 부문은 '나'와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나 자신'(78.6%→73.3%, -5.3%P), '나의 공동체'(80.1%→75.1%, -5.0%P), '나의 가족'(80.1%→75.5%, -4.6%P) 등이었다. 반면, 추상적 혹은 '나'와 심리적 거리가 먼 '미래 세대'(90.7%→88.3%, -2.4%P), '동물/식물종'(90.5%→87.9%, -2.6%P)의 하락 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의 피해가 여전히 나보다는 나와 거리가 먼 대상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기후변화의 피해를 많이 받는 대상: '미래 세대' 88.3%

문) 귀하는 다음의 대상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얼마나 받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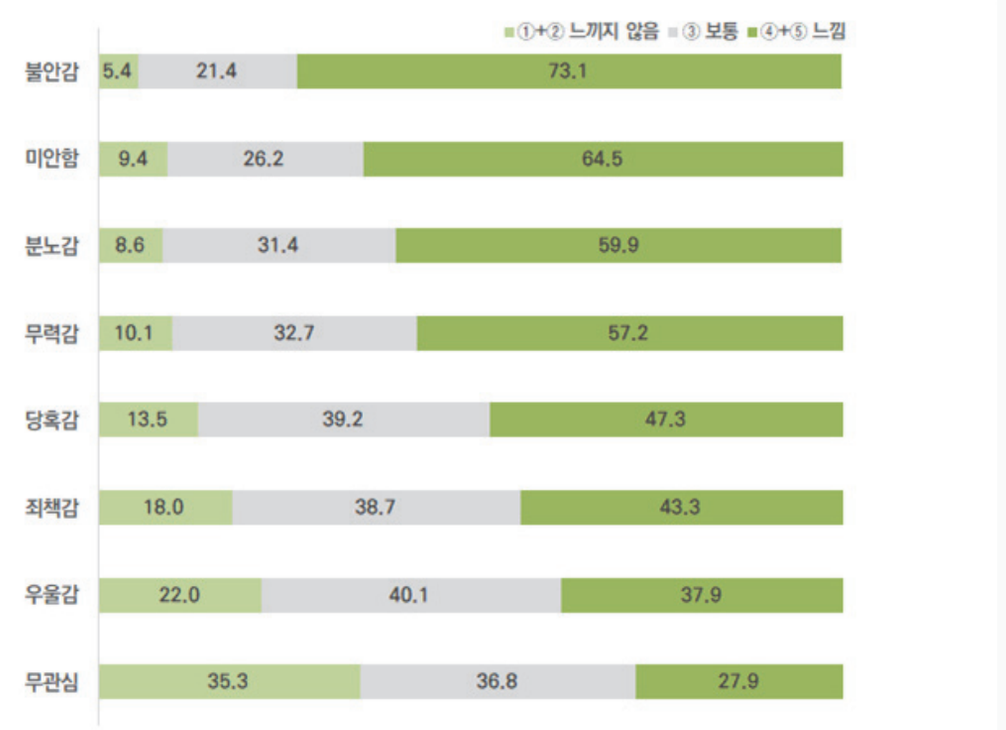
그림 2-15 기후변화 피해 대상

기후 위기나 환경 재난 등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7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미안함'(64.5%), '분노감'(59.9%) 등의 순이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무관심을 제외한 모든 감정을 더 높게 느끼고 있어 여성들이 기후 위기를 더 심각하고 감정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미안함'은 여성(71.2%)과 남성(58.0%)의 응답 차이가 13.2%P나 되었다. 반면 '무관심'하다는 응답은 남성(31.5%)이 여성(24.1%)보다 7.4%P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를 보면 '미안함'과 '분노감'은 저연령층에 비해 고연령층이 많이 느끼고 있었고, '무관심'은 20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 '불안감' 73.1%

문) 귀하는 기후위기나 환경재난 등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다음의 감정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16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

표 2-2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한 느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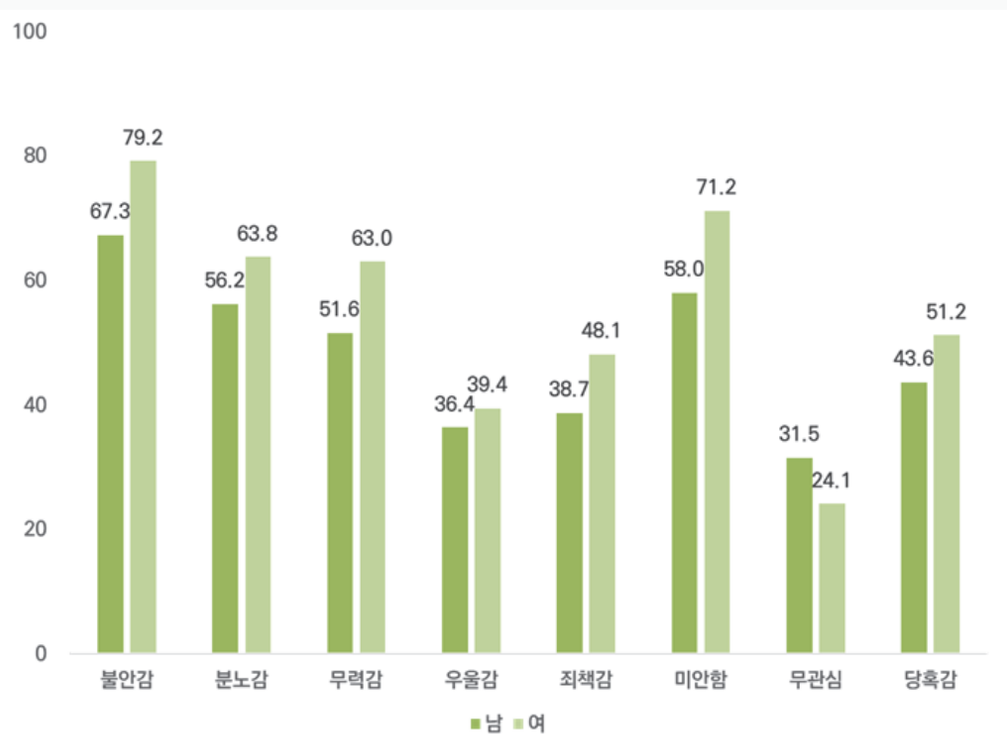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④+⑤ 느낌(약간 느낌+매우 많이 느낌)							
			불안함	분노감	무력감	우울감	죄책감	미안함	무관심	당혹감
전 체		(3,008)	73.1	59.9	57.2	37.9	43.3	64.5	27.9	47.3
성별	남자	(1,531)	67.3	56.2	51.6	36.4	38.7	58.0	31.5	43.6
	여자	(1,477)	79.2	63.8	63.0	39.4	48.1	71.2	24.1	51.2
연령	19~29세	(506)	63.2	45.1	51.8	26.5	30.2	43.7	20.8	34.6
	30~39세	(537)	63.7	44.9	52.3	28.3	38.0	53.6	25.7	39.9
	40~49세	(627)	75.3	61.9	57.6	39.7	46.6	67.8	27.0	48.8
	50~59세	(700)	77.3	67.7	60.1	46.4	51.4	73.7	31.9	54.1
	60~69세	(638)	82.3	74.0	61.9	43.9	46.1	76.6	31.8	54.7

자료: 저자 작성.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 대부분의 감정 여성 > 남성...'무관심'만 남성 > 여성

문) 귀하는 기후위기나 환경재난 등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다음의 감정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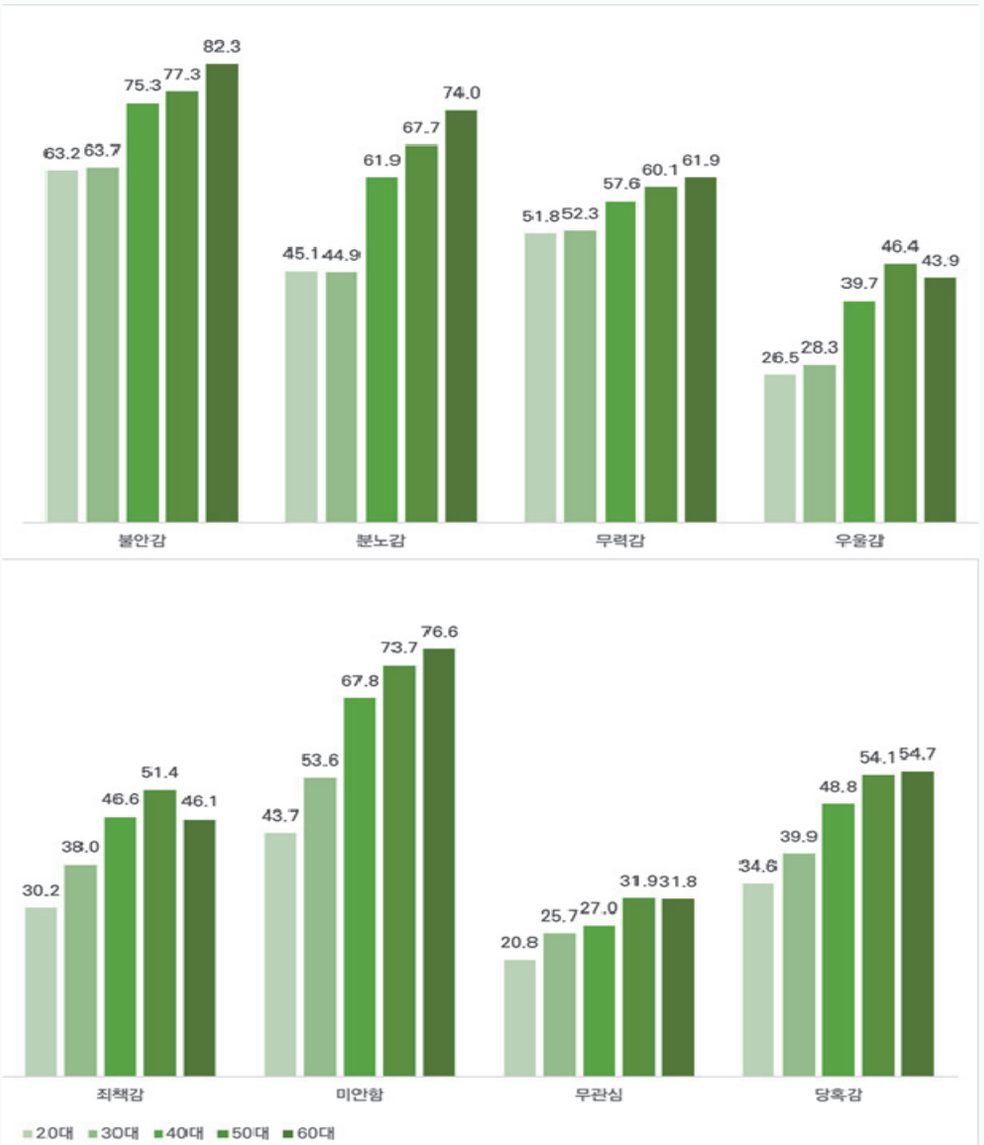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17 성별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 고연령층 > 저연령층

문) 귀하는 기후위기나 환경재난 등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다음의 감정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18 연령별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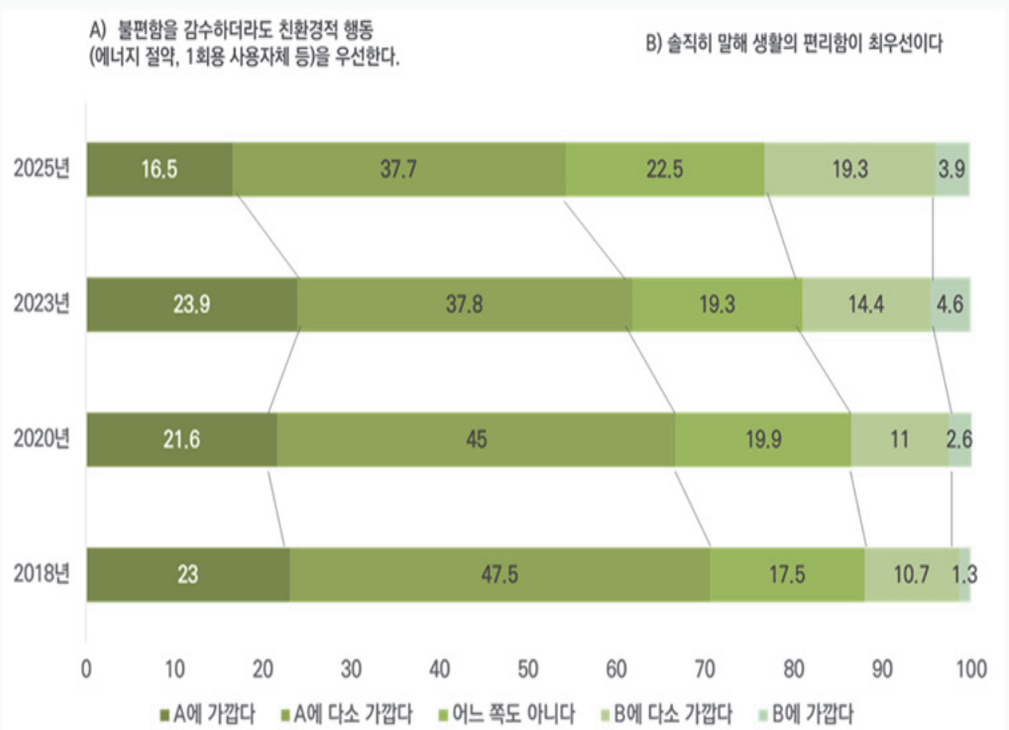
2. 환경 태도/실천

환경보전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는 54.2%가 '환경친화적 행동을 우선한다'라고 답하였고 23.2%가 '생활의 편리함을 우선한다'고 응답하였다. 2018년 이후 '환경친화적 행동 우선'이라는 응답이 16.3%P 이상 감소하였고, '생활의 편리함 우선'이라는 응답은 11.2%P 증가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이나 중요성 인식의 감소가 친환경 행동 실천 의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위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61.5%)이 남성(47.2%)보다 '환경친화적 행동'을 우선하였고, 60대(72.1%)와 20대(38.3%)에서 '환경친화적 행동을 우선한다'라는 응답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성향의 경우 진보적인 성향의 응답자(64.6%)가 중도(48.9%) 또는 보수적인(53.0%) 성향의 응답자보다 환경친화적 행동을 우선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환경친화적 행동을 우선한다': 54.2%

문) 현재 귀하의 생활에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4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19 환경 태도(환경친화적 행동 대 편리함)

표 2-3 환경태도(환경친화적 행동 대 편리함)

B1. 현재 귀하의 생활에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A:환경친화적 행동, B:편리함 추구)

(단위: %)

구 분		(사례수)	①+②			③	④+⑤			계	평균 (점)
			① A에 가깝다	② A에 다소 가깝다		어느 쪽도 아니다	④ B에 다소 가깝다	⑤ B에 가깝다			
전체		(3,008)	16.5	37.7	54.2	22.5	19.3	3.9	23.2	100.0	2.56
성별	남자	(1,531)	13.4	33.8	47.2	24.1	23.8	4.9	28.7	100.0	2.73
	여자	(1,477)	19.7	41.8	61.5	20.9	14.7	2.9	17.6	100.0	2.39
연령	19~29세	(506)	6.1	32.2	38.3	25.5	29.1	7.1	36.2	100.0	2.99
	30~39세	(537)	8.6	35.8	44.4	28.1	22.2	5.4	27.6	100.0	2.80
	40~49세	(627)	16.7	34.6	51.3	23.4	21.1	4.1	25.2	100.0	2.61
	50~59세	(700)	20.3	39.3	59.6	20.6	17.3	2.6	19.9	100.0	2.43
	60~69세	(638)	27.0	45.1	72.1	16.6	9.9	1.4	11.3	100.0	2.14
이념 성향	진보	(823)	20.3	44.3	64.6	17.4	15.4	2.6	18.0	100.0	2.36
	중도	(1,453)	13.7	35.2	48.9	28.4	18.9	3.8	22.7	100.0	2.64
	보수	(732)	17.8	35.2	53.0	16.7	24.6	5.7	30.3	100.0	2.65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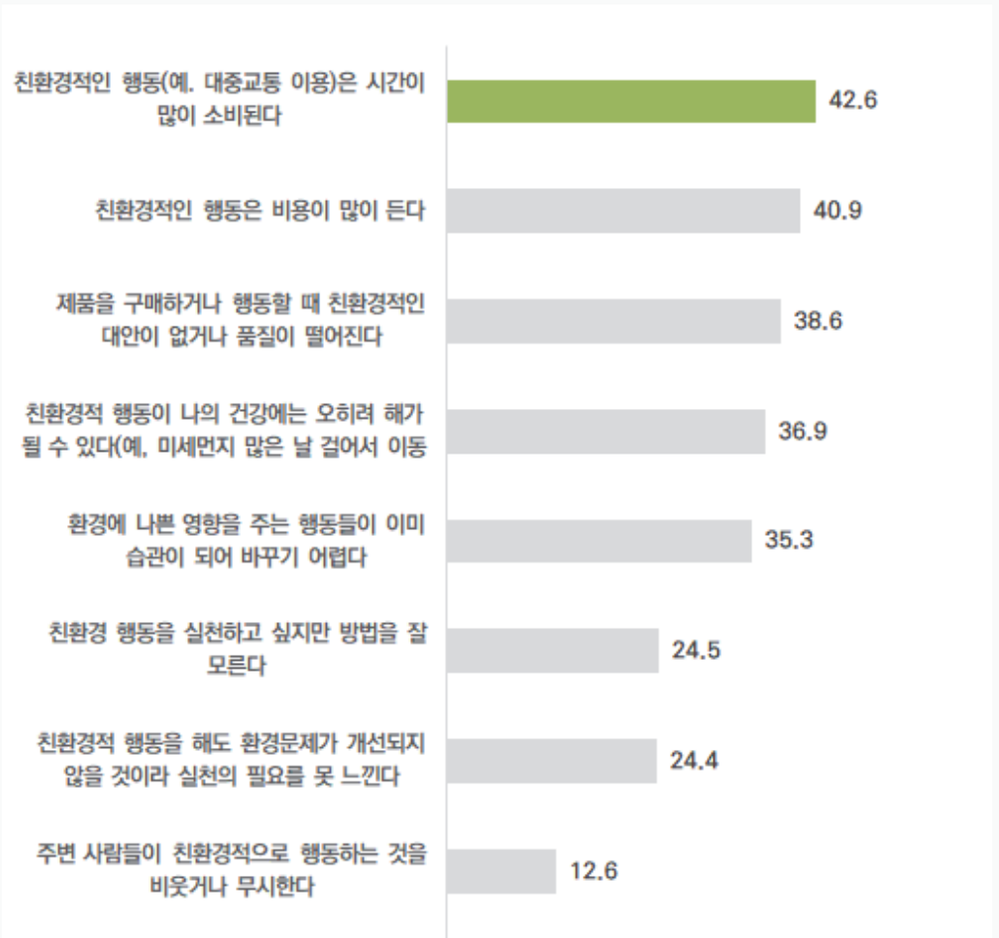
환경친화적 행동 의지가 감소하는 추세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친환경적 태도 및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를 확인해 보았다. 가장 많은 응답을 얻은 것은 '친환경적인 행동(예, 대중교통 이용)은 시간이 많이 소비된다'(42.6%)였고 '친환경적인 행동은 비용이 많이 든다'(40.9%), '제품을 구매하거나 행동할 때 친환경적인 대안이 없거나 품질이 떨어진다'(38.6%)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공동 1위를 차지했던 '친환경적 행동이 나의 건강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응답은 36.9%로 다소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 세대의 경우 금전적 손실을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꼽았고(20대 49.2%, 30대 50.7%), 동기부여의 문제('친환경적 행동을 해도 환경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실천의 필요를 못 느낀다')가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20대 34.6%, 30대 28.5%). 5060 세대는 시간적 손실을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50대 45.3%, 60대 47.5%).

‘친환경적인 행동은 시간이 많이 소비된다’: 42.6%

문) 귀하가 친환경적 태도 및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데 있어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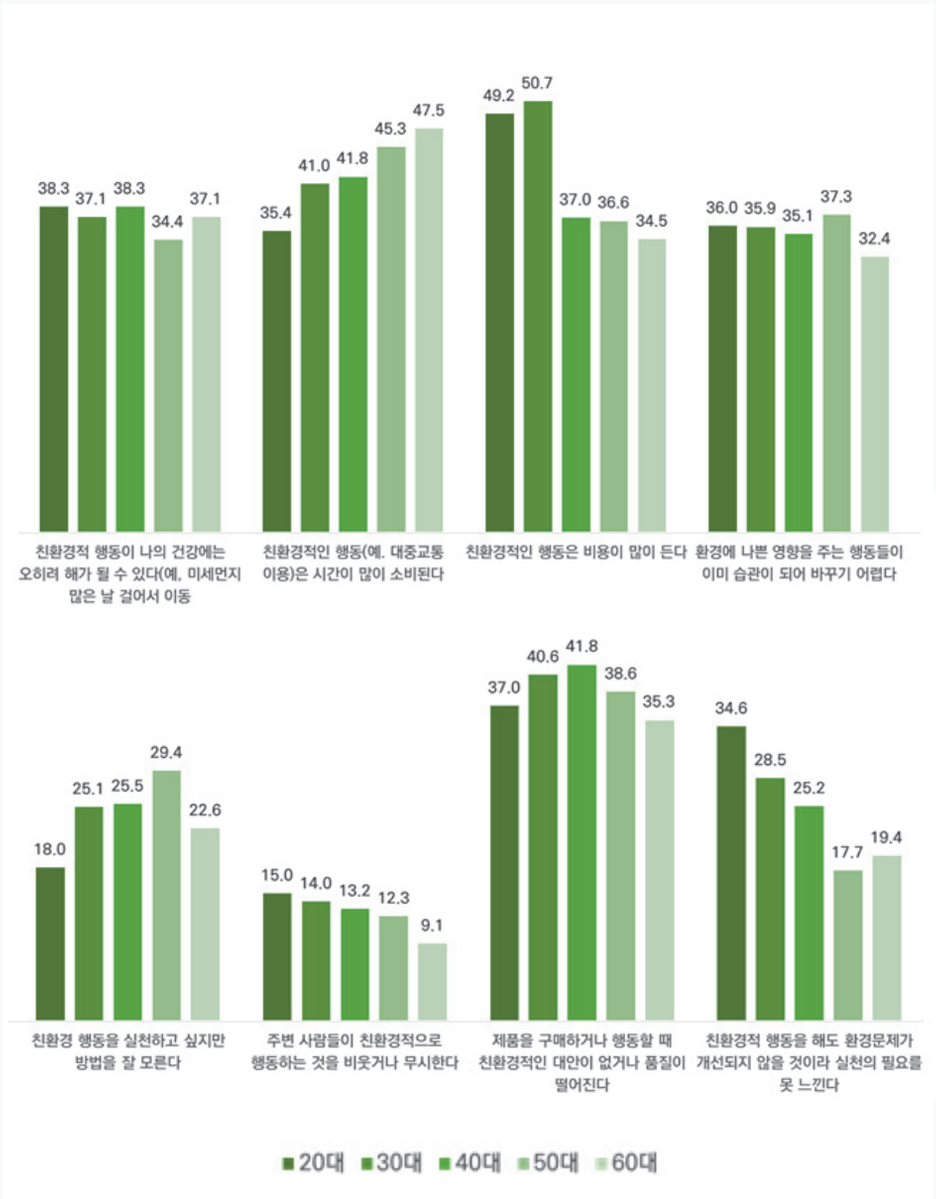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20 친환경적 태도 및 생활 습관 실천의 어려움

2030세대는 금전적 손실, 5060세대는 시간적 손실을 높게

문) 귀하가 친환경적 태도 및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데 있어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21 연령별 친환경적 태도 및 생활 습관 실천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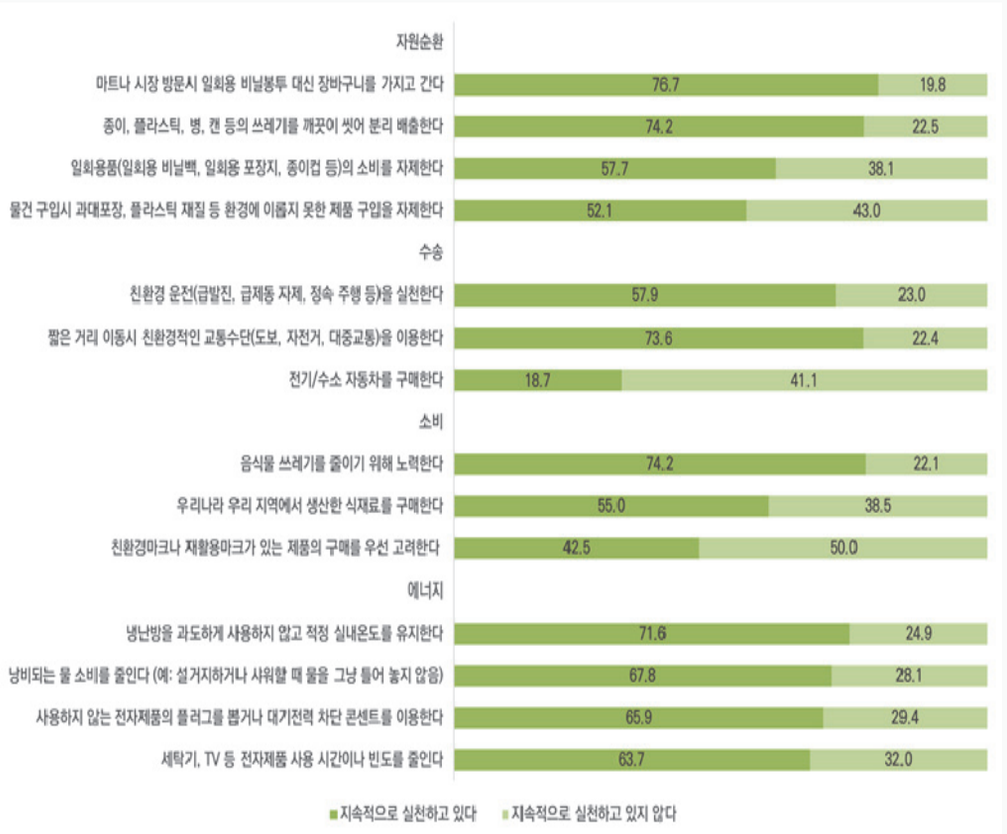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환경친화적인 행동은 에너지, 소비, 수송, 자원순환의 네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해당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와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지 않다' 중 선택해 응답하도록 하였고, 해당 행동과 관련 없는 경우(예를 들어, 비운전자의 경우 전기차 구매)에는 '해당 사항 없음'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분석은 '해당 사항 없음' 응답을 제외한 행동 실천 여부에 대한 응답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14가지의 행동 중 1인 평균 8.52가지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였다. '마트나 시장 방문 시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가지고 간다'가 76.7%로 가장 높았고 '종이, 플라스틱, 병, 캔 등의 쓰레기를 깨끗이 씻어 분리 배출한다'(74.2%),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74.2%), '짧은 거리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한다'(73.6%) 등의 행동이 꾸준히 높게 나왔다. 반면, '친환경마크나 재활용마크가 있는 제품의 구매를 우선 고려한다'(42.5%), '전기/수소 자동차를 구매한다'(18.7%) 등의 행동은 상대적으로 적게 실천하였다. 구매 금액이 높고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전기/수소차 구매는 차치하더라도 친환경 제품 구매를 우선 고려한다는 응답은 절반 이하로 떨어져 관련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행동 실천 응답 추이는 〈표 2-4〉와 같다. 행동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친환경 행동 실천 정도가 지난 2년간 유사하다.

'마트나 시장 방문시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가지고 간다': 76.7%

문) 다음 각 행동을 환경보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응답해 주세요.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22 환경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하는 행동

표 2-4 2023~2025년 친환경 행동 실천 응답 비교

(단위: %)

문항	2025년	2024년	2023년
마트나 시장 방문시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가지고 간다	76.7	76.6	79.1
종이, 플라스틱, 병, 캔 등의 쓰레기를 깨끗이 씻어 분리배출한다	74.2	76.8	78.4
일회용품(일회용 비닐백, 일회용 포장지, 종이컵 등)의 소비를 자제한다	57.7	60.6	63.0
물건 구입시 과대포장, 플라스틱 재질 등 환경에 이롭지 못한 제품 구입을 자제한다	52.1	53.0	54.3
친환경 운전(급발진, 급제동 자제, 정속 주행 등)을 실천한다	57.9	56.9	61.5
짧은 거리 이동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도보,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73.6	72.9	75.9
전기/수소 자동차를 구매한다	18.7	16.8	16.7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74.2	74.7	77.6
우리나라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식재료를 구매한다	55.0	54.6	60.6
친환경마크나 재활용마크가 있는 제품의 구매를 우선 고려한다	42.5	42.7	46.5
냉난방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한다	71.6	72.2	71.2
낭비되는 물 소비를 줄인다	67.8	68.4	68.7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플러그를 뽑거나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를 이용한다	65.9	65.3	64.9
세탁기, TV 등 전자제품 사용 시간이나 빈도를 줄인다	63.7	65.8	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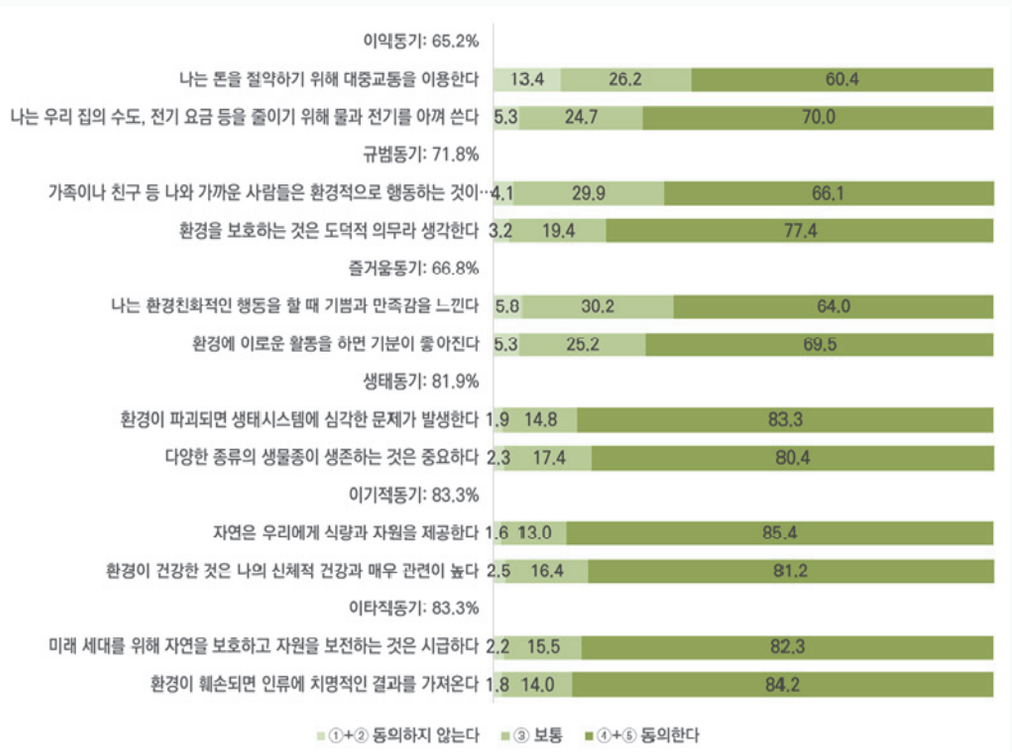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친환경 행동의 동기는[4] 이익 동기(gain motives),[5] 규범 동기(normative motives),[6] 즐거움 동기(hedonic motives),[7] 생태 동기(biospheric motives),[8] 이기적 동기(egoistic motives),[9] 이타적 동기(altruistic motives)[10] 여섯 가지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이타적 동기'(83.3%), '이기적 동기'(83.3%), '생태 동기'(81.9%) 등이 높게 나타났지만 '이익 동기'(65.2%)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타적 동기: 83.3%

문)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23 친환경 행동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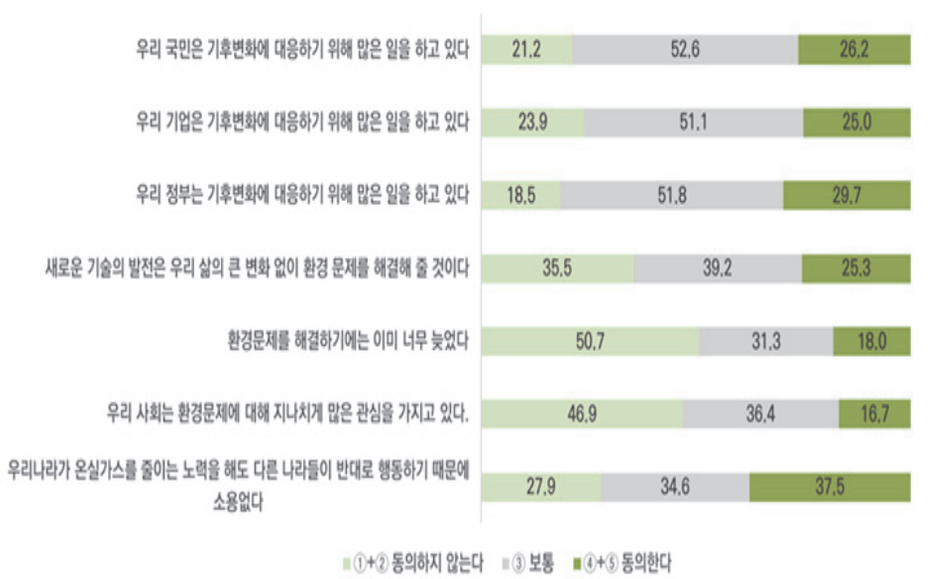
4) Gkargkavouzi, Halkos and Matsiori(2019), pp.1-17.
5) 친환경적 행동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친환경적 행동을 실천하는 동기.
6) 친환경적 행동이 도덕적 의무라 생각하여 친환경적 행동을 실천하는 동기.
7) 친환경적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친환경적 행동을 실천하는 동기.
8) 자연 그 자체의 보존을 위해 친환경적 행동을 실천하는 동기.
9) 자신이 자연으로부터 받는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친환경적 행동을 실천하는 동기.
10) 나의 공동체나 미래세대가 자연으로부터 받을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친환경적 행동을 실천하는 동기.

다음으로 환경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에 대해 확인하였다. 먼저, 정부/기업/국민 등 주요 주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이 지난해보다 모두 소폭 상승하였다(정부: 6.2%P, 기업: 1.6%P, 국민: 2.9%P). 동시에 '환경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50.7%)는 데 비동의한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나 우리 국민들이 환경문제 해결에 대해 긍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노력을 해도 다른 나라들이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소용없다'는 데 동의하는 응답(37.5%)도 여전히 높게 나타나 환경 행동에 대한 효능감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비동의 50.7%

문) 귀하는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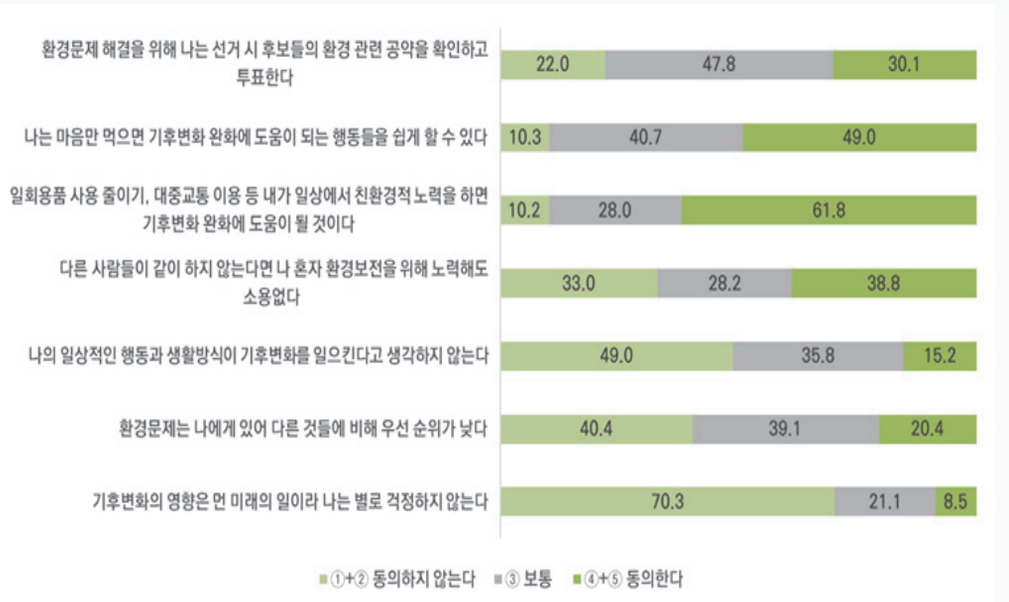
그림 2-24 환경문제 관련 사회 인식

개인에 대한 인식도 확인해 본 결과 '나는 마음만 먹으면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 행동들을 쉽게 할 수 있다'(49.0%), '내가 일상에서 친환경적 노력을 하면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61.8%) 등 행동의 결과에 대한 효능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효능감이 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선거 시 후보들의 환경 관련 공약을 확인하고 투표한다'는 응답도 30.1%로 나와 2026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환경 공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일상에서 친환경적 노력을 하면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61.8%

문) 귀하는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25 환경문제 관련 개인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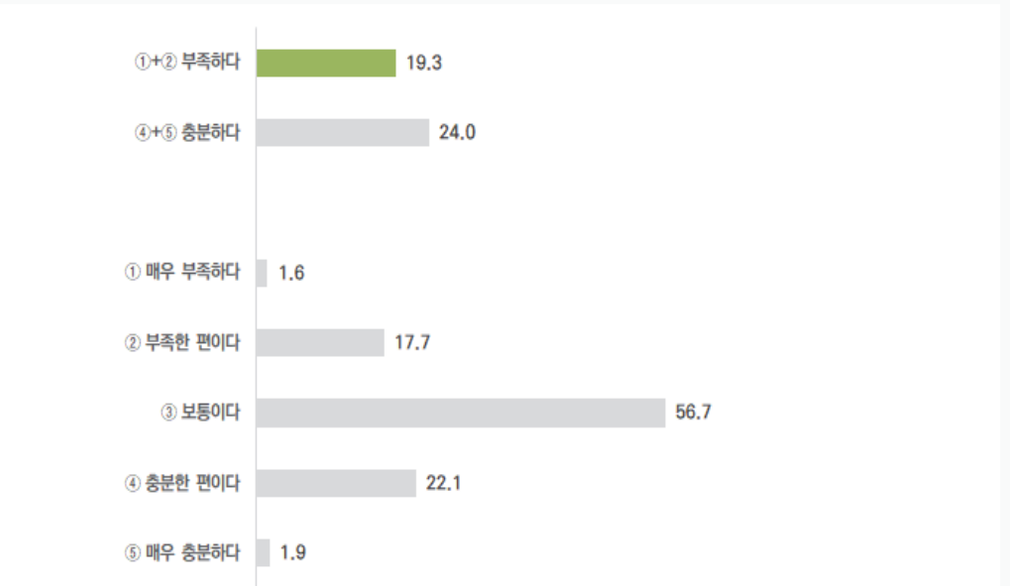
3. 환경 정보 이용

환경 정보 이용 부문에서는 환경 정보 수요와 정보 전달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먼저 환경 정보의 충분성 인식의 경우 충분하다는 응답(매우 충분하다+충분한 편이다)은 24.0%, 부족하다는 응답(매우 부족하다+부족한 편이다)은 19.3%로 나타났다. 환경 정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작년 12.6% 대비 11.4%P 급격히 상승하였다. 환경 정보와 관련한 다른 문항들에 대한 응답이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환경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환경 정보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남성(28.1%), 20대(37.9%),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34.6%), 보수층(29.9%)에서 높게 나타났다. 학력을 제외하면 대체로 환경 관심도가 낮은 집단의 특성과 일치한다. 환경에 대한 낮은 관심으로 인해 요구 정보의 문턱(threshold) 역시 낮아진 결과일 수 있다.

'환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 19.3%

문) 귀하는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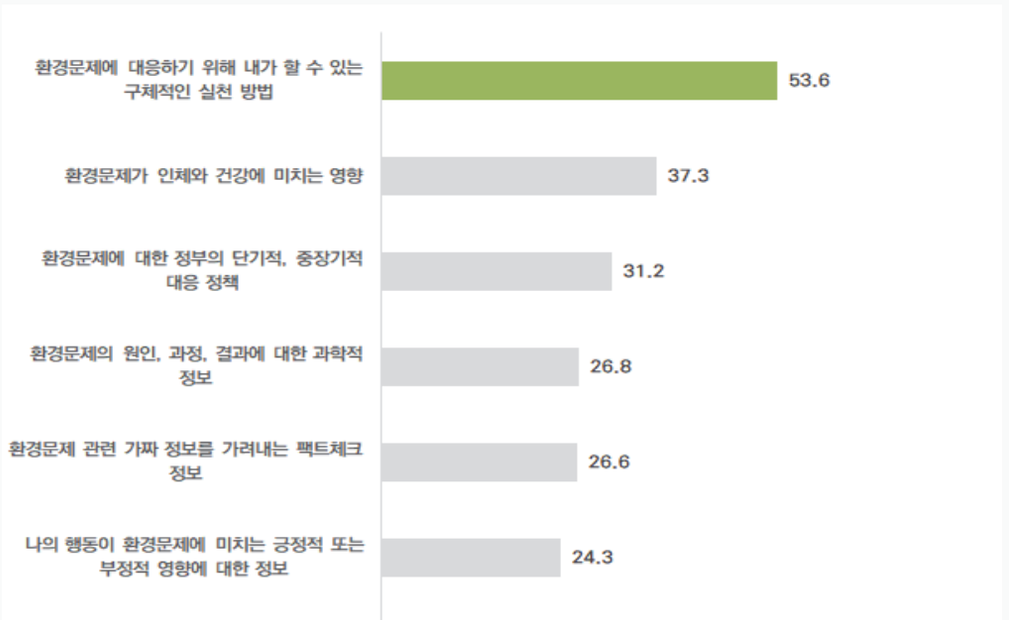
그림 2-26 환경 정보 충분성 인식

추가로 얻고 싶은 환경 정보에 대해서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라는 응답이 53.6%로 가장 높게 나왔다. 다음으로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37.3%), '정부의 대응 정책'(31.2%) 순으로 응답하였다.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53.6%

문) 환경 정보를 추가로 받는다면 다음 중 어떤 내용에 대한 정보를 더 받고 싶으십니까?
2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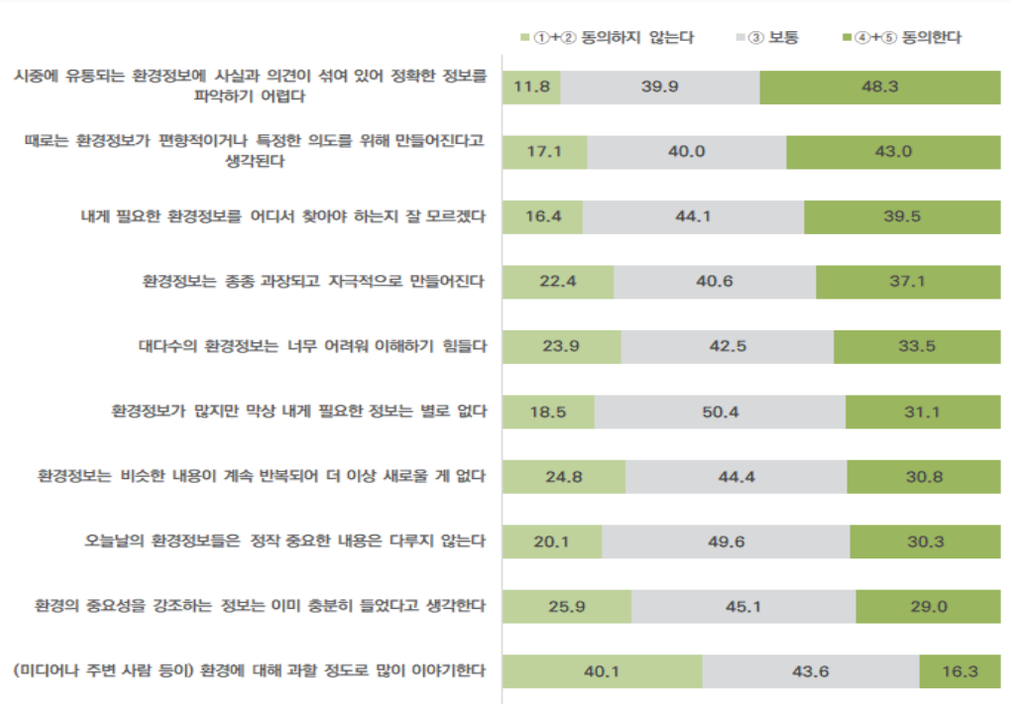
그림 2-27 필요한 환경 정보

환경 정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결과 '시중에 유통되는 환경 정보에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48.3%), '때로는 환경 정보가 편향적이거나 특정한 의도를 위해 만들어진다고 생각된다'(43.0%), '환경 정보는 종종 과장되고 자극적으로 만들어진다'(37.1%) 등 환경 정보에 대한 의구심이 꾸준히 높게 나타난다. 문제는 미디어 환경이 다변화됨에 따라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정보의 양적 질적 수준도 매우 다양해지며, 환경 음모론이나 기후변화 부정론 등 극단적인 환경 정보의 유통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 정보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반환경적인 메시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사실(fact)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경적인 메시지에 대한 주목도가 증가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내게 필요한 환경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39.5%), '대다수의 환경 정보는 너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다'(33.5%), '환경 정보가 많지만 내게 필요한 정보는 별로 없다'(31.1%) 등 환경 정보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환경 정보 전달 방식에 대한 점검과 정보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시중에 유통되는 환경 정보에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48.3%

문) 다음은 환경 관련 정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입니다. 귀하께서 평소 접하는 환경 정보를 생각하시며 각 의견에 동의하시는 정도에 표시해 주십시오.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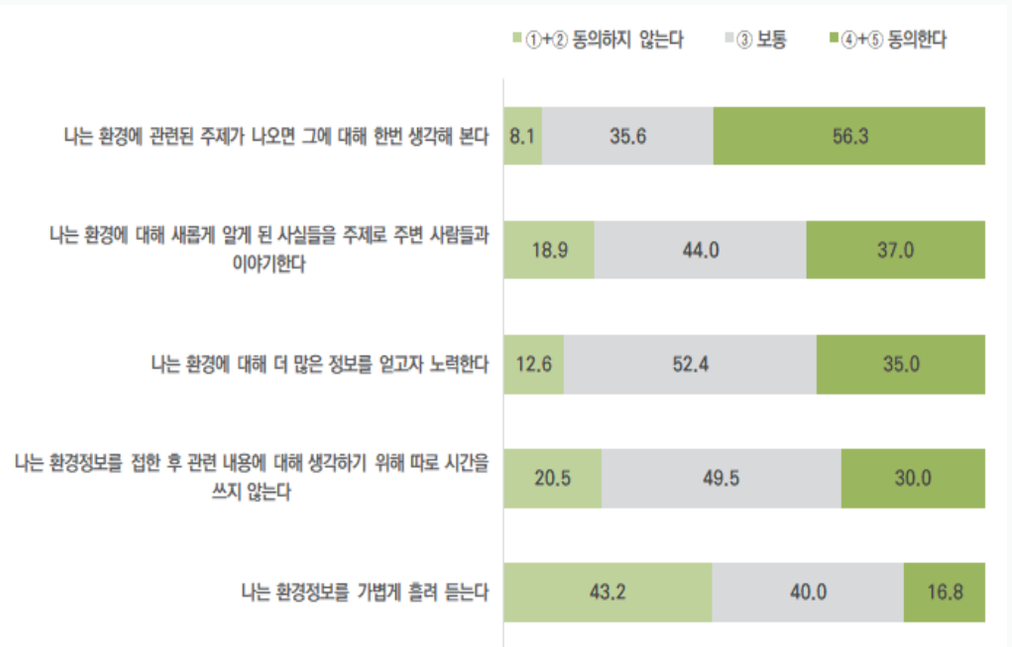
그림 2-28 환경 정보에 대한 의견

환경 정보 행동 관련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물어본 결과 '나는 환경에 관련된 주제가 나오면 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본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56.3%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나는 환경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을 주제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한다'(37.0%), '나는 환경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노력한다'(35.0%) 등 상당히 적극적인 정보 행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환경에 관련된 주제가 나오면 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본다': 56.3%

문) 귀하의 평소 행동을 생각하시며 각 서술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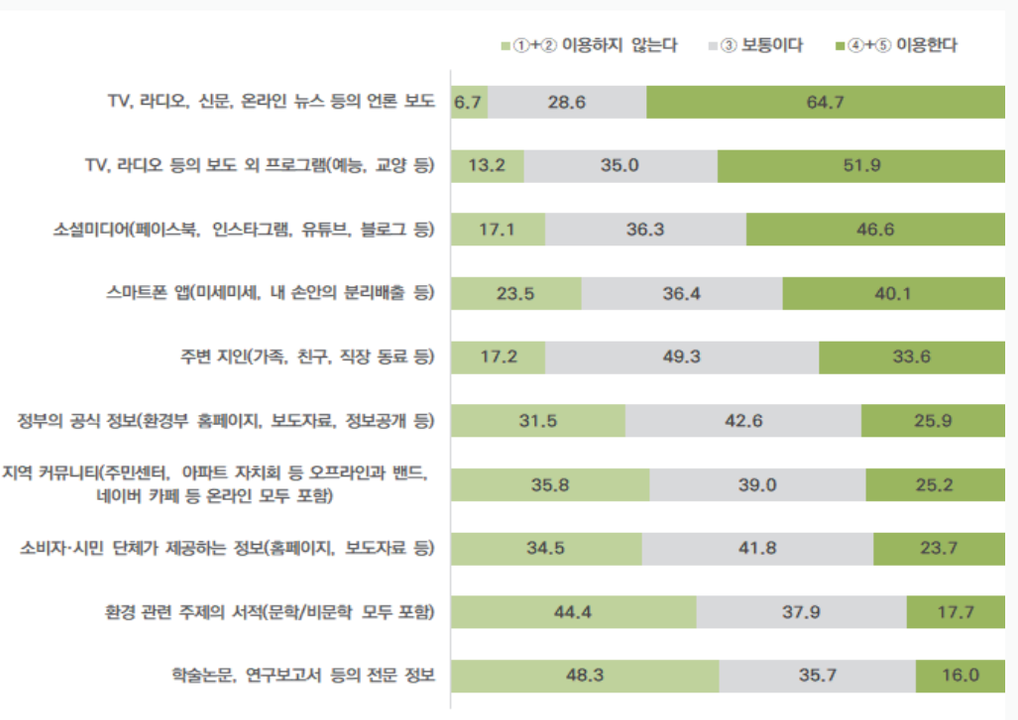
그림 2-29 환경 정보 관련 행동

환경 정보를 접하는 경로는 '언론 보도'를 이용한다(매우 자주 이용+가끔 이용)는 응답이 6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도 외 프로그램(예능, 교양 등)'(51.9%), '소셜미디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46.6%), '스마트폰 앱(미세미세, 내 손안의 분리배출 등)'(4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언론 보도가 큰 격차로 1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2021년 71.7%에서 올해 64.7%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다. 또한 소셜미디어 이용 역시 2021년 46.4%에서 올해 46.6%로 0.2%P만 증가하였고 스마트 앱 이용은 40.6%에서 40.1%로 오히려 0.5%P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정부의 공식 정보'(24.9% → 25.9%),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등의 전문 정보'(14.0% → 16.0%), '환경 관련 주제의 서적'(15.0% → 17.7%) 등은 낮은 비율이지만 증가하였다.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환경 정보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한 환경 관련 정보 획득이 가장 높음: 64.7%

문) 귀하는 평소 환경 관련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주로 접하십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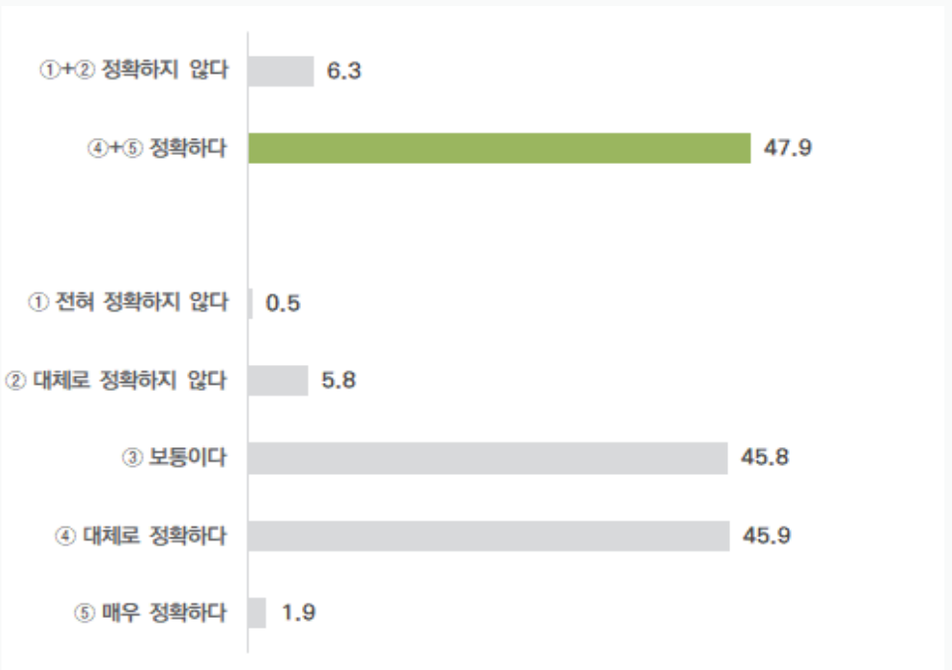
그림 2-30 환경 관련 정보를 접하는 경로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환경 정보 자체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질문에는 47.9%가 '정확하다(매우 정확하다+대체로 정확하다)'라고 응답하였다. 정확하다는 응답은 3년 연속 감소하다가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2022년 42.9% → 2023년 39.4% → 2024년 37.7% → 2025년 47.9%). 여성(47.1%)과 남성(48.7%)은 비슷한 수준으로 정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고연령층(60대: 54.7%)이 저연령층(30대: 39.9%)에 비해 환경 정보가 정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환경 정보는 '정확하다': 47.9%

문) 귀하께서는 전반적으로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환경이나 환경문제 관련 정보가 얼마나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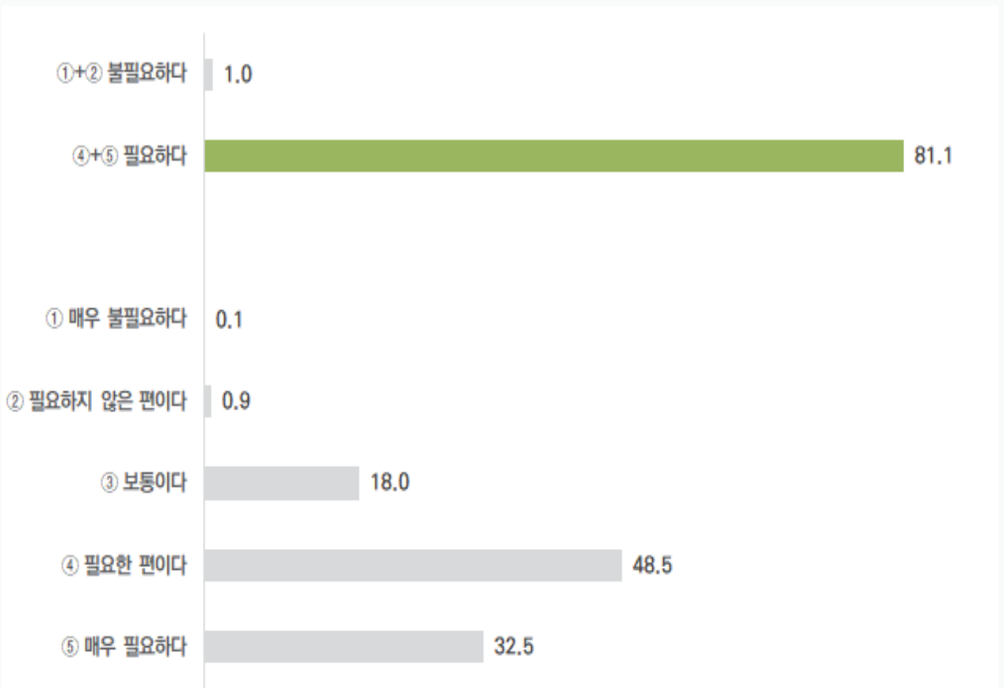
그림 2-31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환경 정보의 정확성 인식

우리 사회 전반에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1.1%는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필요한 편이다)'고 응답하였다. 환경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23년 86.7%에서 2024년 82.3%, 2025년 81.1%로 2년 사이 5.6%P 감소하였다.

환경교육 '필요하다': 81.1%

문)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 전반에 환경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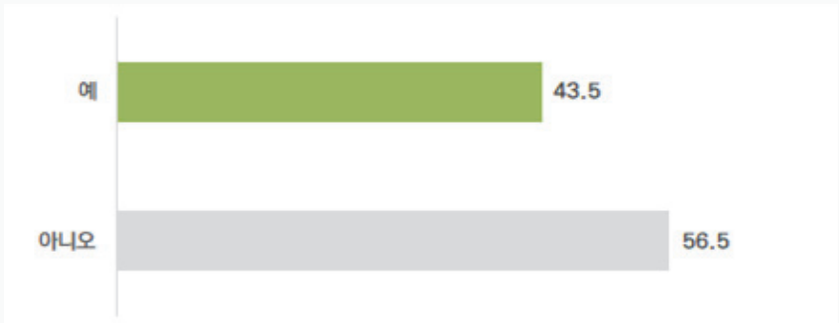
그림 2-32 환경교육 필요성

환경교육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3.5%로 2024년 응답(41.7%)에 비해 증가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의 69.8%가 환경교육 경험이 있었다. 이후 30대 46.2%, 40대 35.6%, 50대 33.7%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 경험은 감소하다가 60대에 38.7%로 다시 증가한다.

환경교육 경험 '있다': 43.5%

문) 귀하는 학교, 직장, 사회단체 등에서 환경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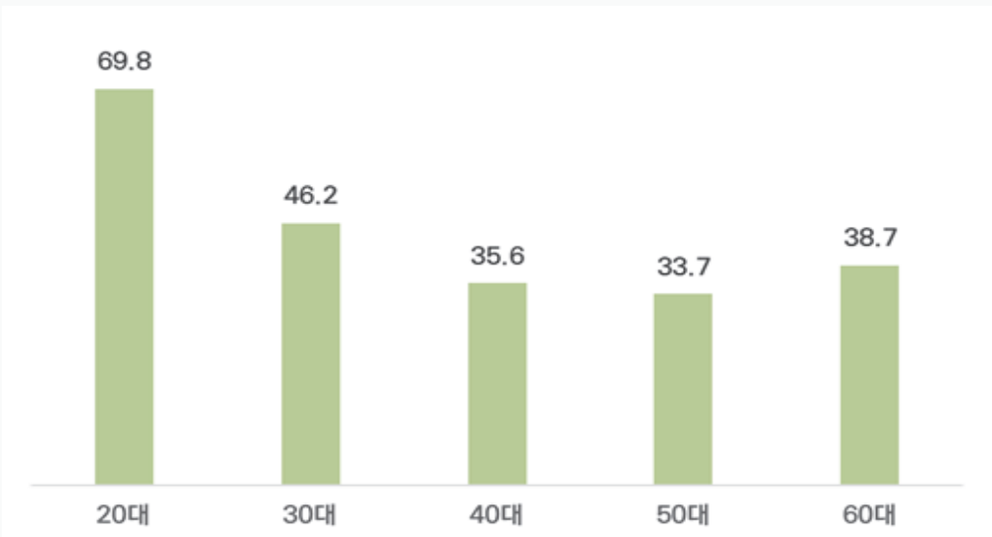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33 환경교육 경험 유무

환경교육 경험 '있다': 20대 69.8% vs. 50대 33.7%

문) 귀하는 학교, 직장, 사회단체 등에서 환경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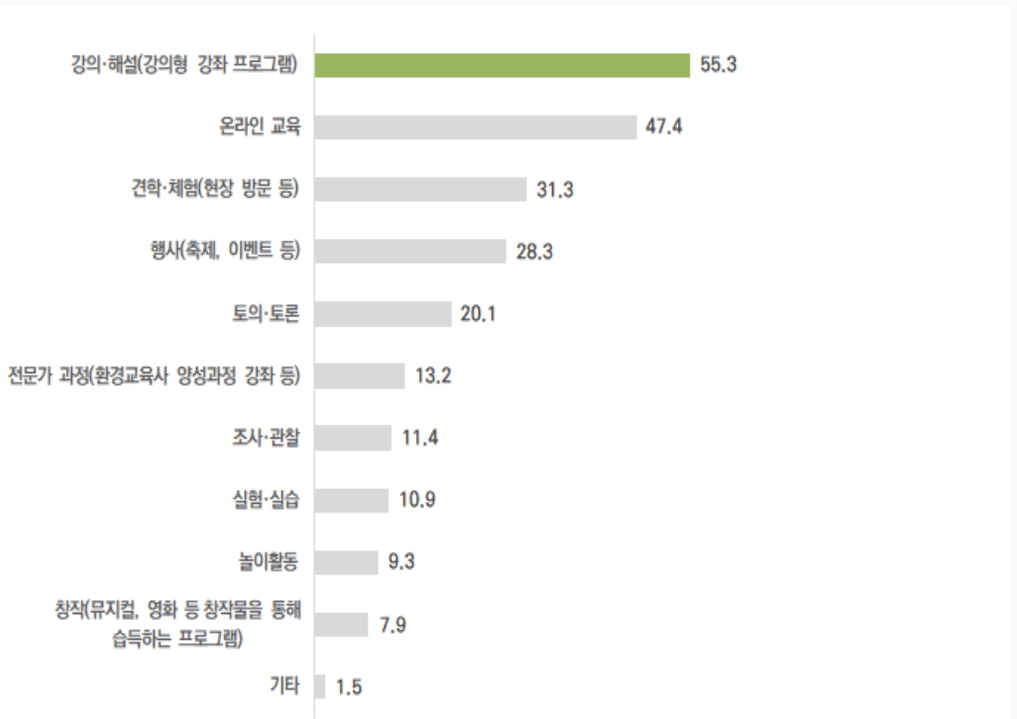
그림 2-34 연령별 환경교육 경험

환경교육을 경험한 응답자들에게만 한정해서 어떤 방식의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한 질문에서는 '강의·해설'이 5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강의·해설(강의형 강좌 프로그램)' 환경교육: 55.3%

문) 어떤 방식의 환경교육을 받아보셨습니까? 받으신 환경교육 방식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단위: %, base=환경교육 경험자, n=1,307)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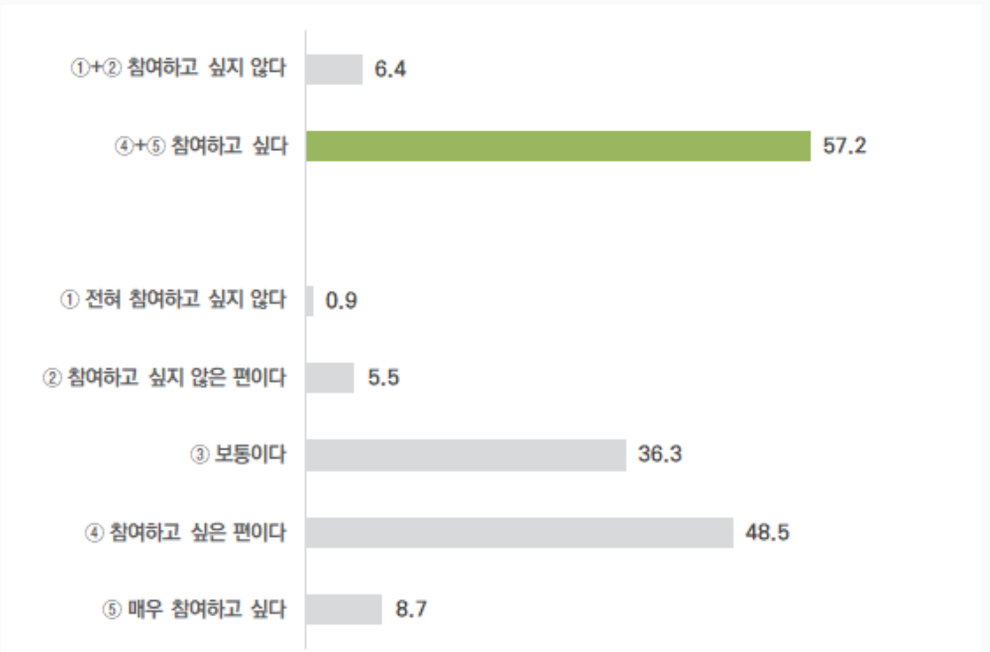
그림 2-35 경험한 환경교육 방식

향후 환경교육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하고 싶다(매우 참여하고 싶다+참여하고 싶은 편이다)'는 의견이 57.2%였다. 2024년(55.7%) 대비 1.5%P 소폭 증가한 수치나 2023년(65.5%)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참여하고 싶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견학·체험(현장 방문 등)'(41.4%), '행사(축제, 이벤트 등)'(34.0%) 등을 많이 선택하였다. 실제 경험하고 있는 환경교육 방식은 '강의·해설'(55.3%), '온라인 교육'(47.4%) 중심인 것과 차이가 존재한다.

환경교육 '참여하고 싶다': 57.2%

문) 귀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환경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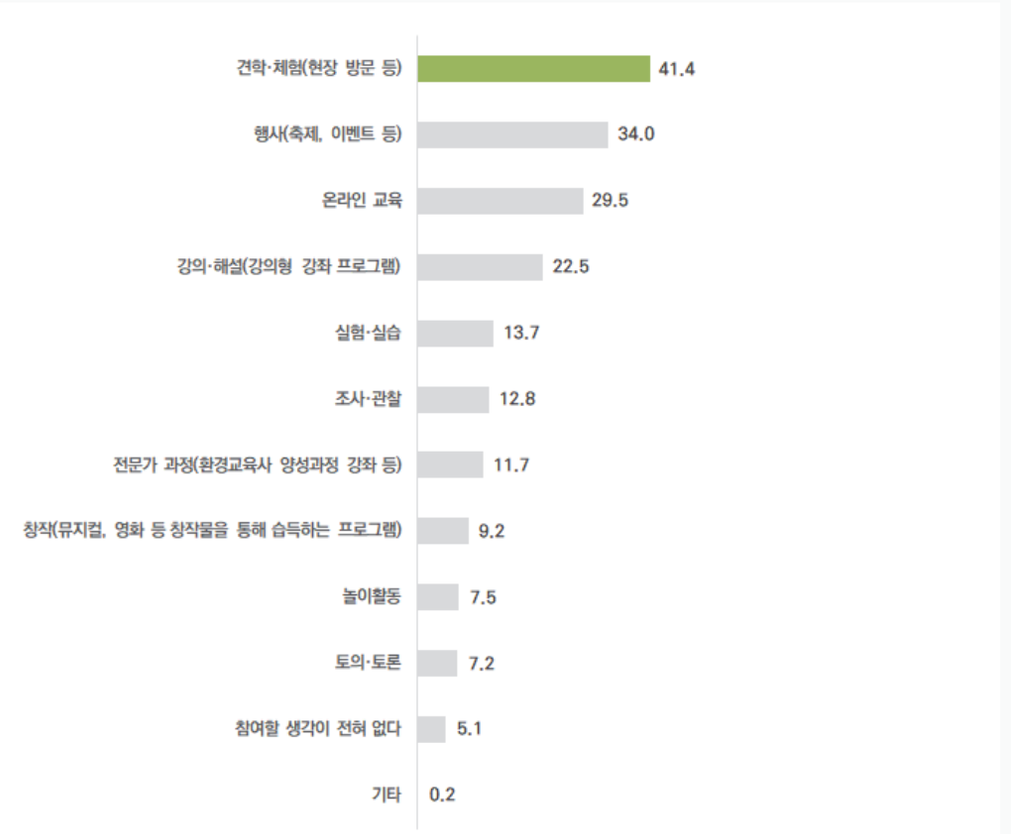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36 환경교육 참여 의향

참여하고 싶은 환경교육 프로그램: '견학·체험(현장 방문 등)' 41.4%

문) 귀하는 어떤 방식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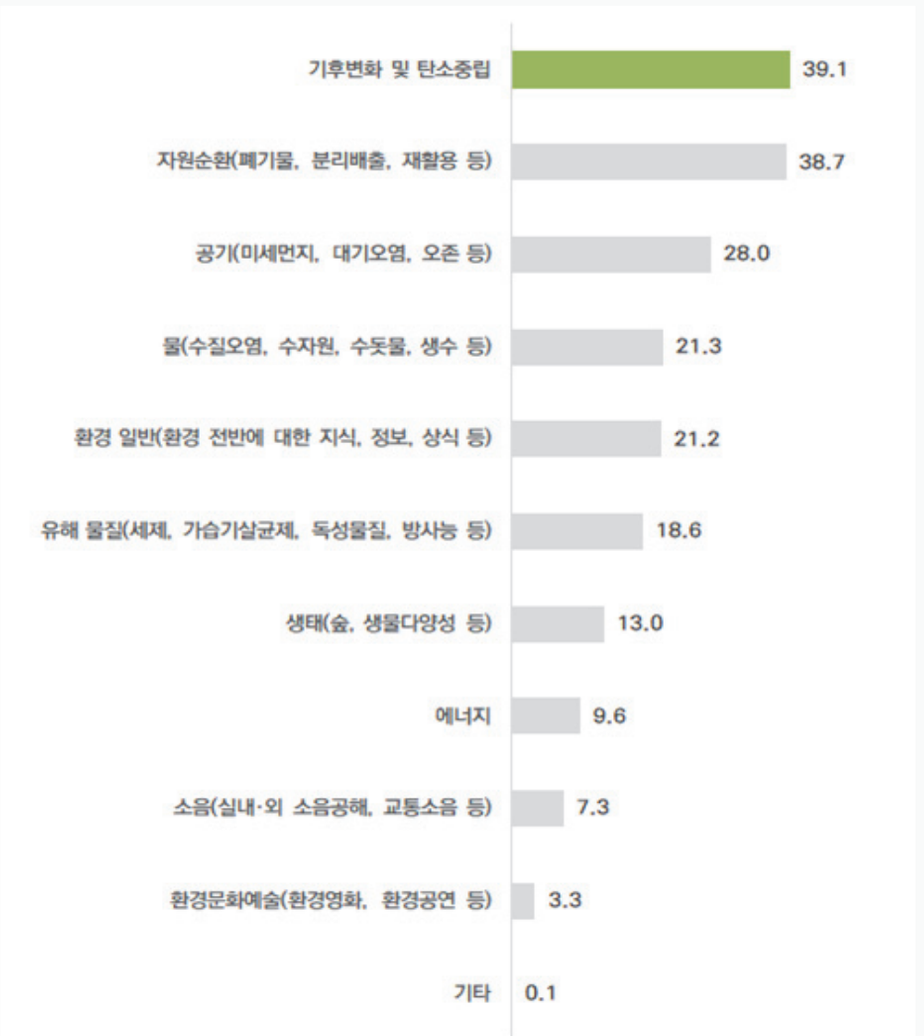
그림 2-37 참여하고 싶은 환경교육 프로그램

환경교육에서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할 환경 분야로는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39.1%), '자원순환(폐기물, 분리배출, 재활용 등)'(38.7%), '공기(미세먼지, 대기오염, 오존 등)'(28.0%) 등을 꼽았다.

환경교육에서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할 환경 분야: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39.1%

문) 환경교육에서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할 환경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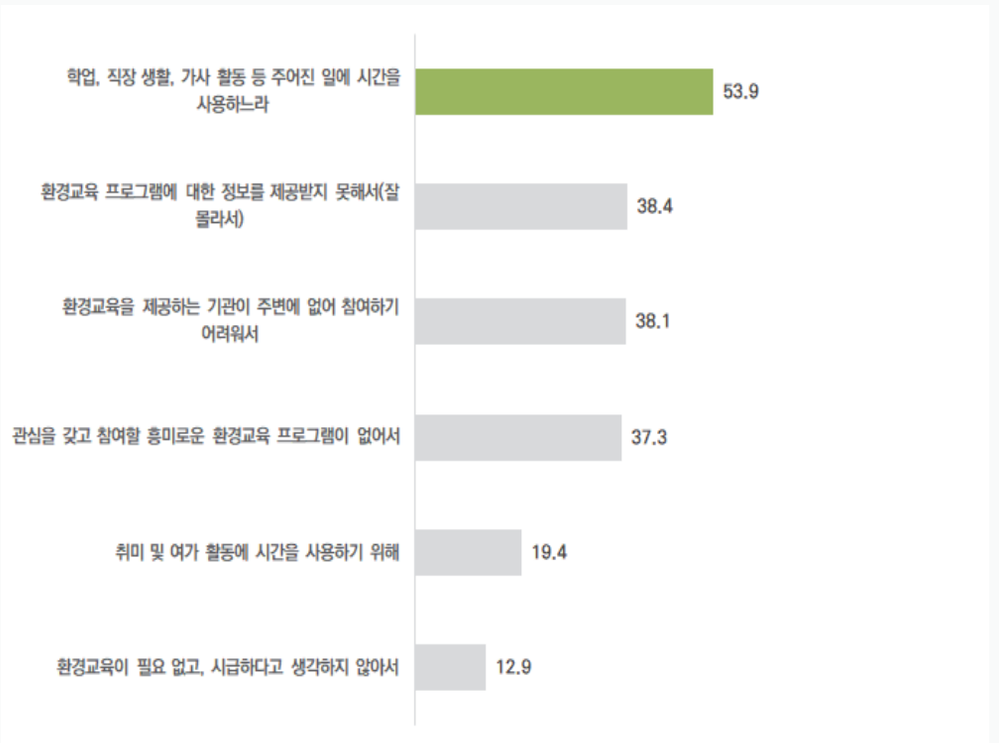
그림 2-38 교육이 시급한 환경 분야

환경교육에 참여하는 데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는 '학업, 직장 생활, 가사 활동 등 주어진 일에 시간을 사용하느라'(53.9%)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서(잘 몰라서)'(38.4%), '환경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주변에 없어 참여하기 어려워서'(38.1%) 등이었다. '환경교육이 필요 없고 시급하지 않다'(12.9%)라는 응답은 작년(9.6%)에 비해 증가하였다.

환경교육 참여의 방해요인: '학업, 직장 생활, 가사 활동 등 주어진 일에 시간을 사용하느라' 53.9%

문) 환경교육에 참여하고 학습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입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39 환경교육 참여의 방해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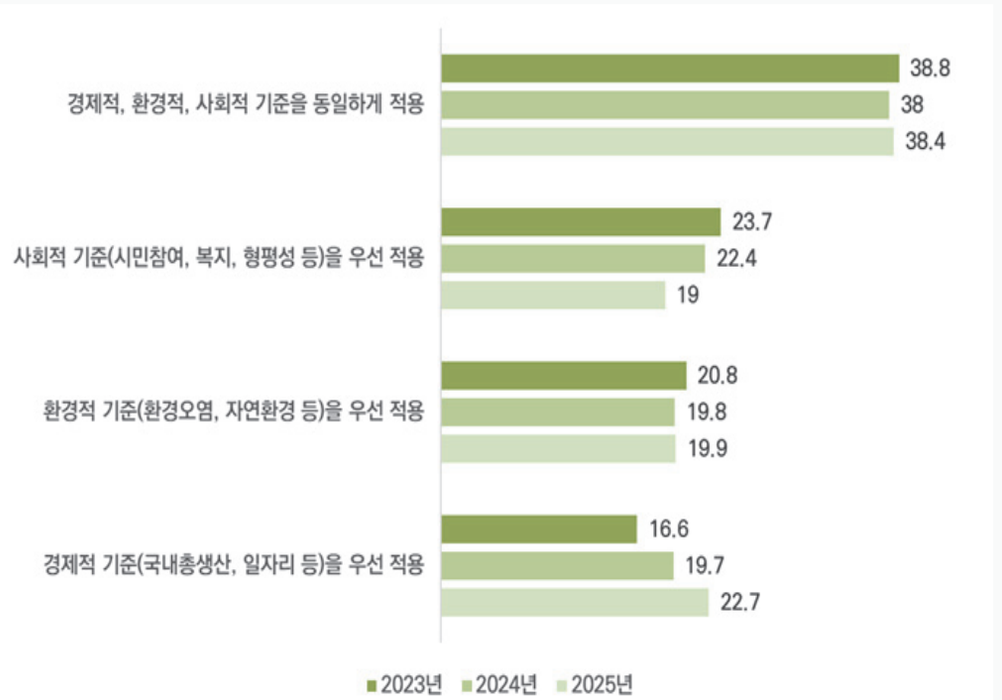
4. 환경 수요/정책

우리나라 발전을 평가할 때의 기준에 대해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나긴 했으나, 2020년(49.6%)과 비교하면 10%P 이상 떨어졌다. 반면 '경제적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22.7%)라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둔화, 물가 상승,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불안이 커지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환경·사회적 가치보다 당장의 생계와 경제 안정으로 이동한 데다 지속적인 환경 이슈 제기로 인한 피로감과 정책 효과에 대한 체감 부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정치·사회적으로 경제성장 중심의 담론이 강화되면서 경제를 먼저 안정시켜야 환경·사회적 목표도 가능하다는 현실주의적 인식이 확산한 점도 이러한 응답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적인 발전평가 기준: '경제·환경·사회적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38.4%

문)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나를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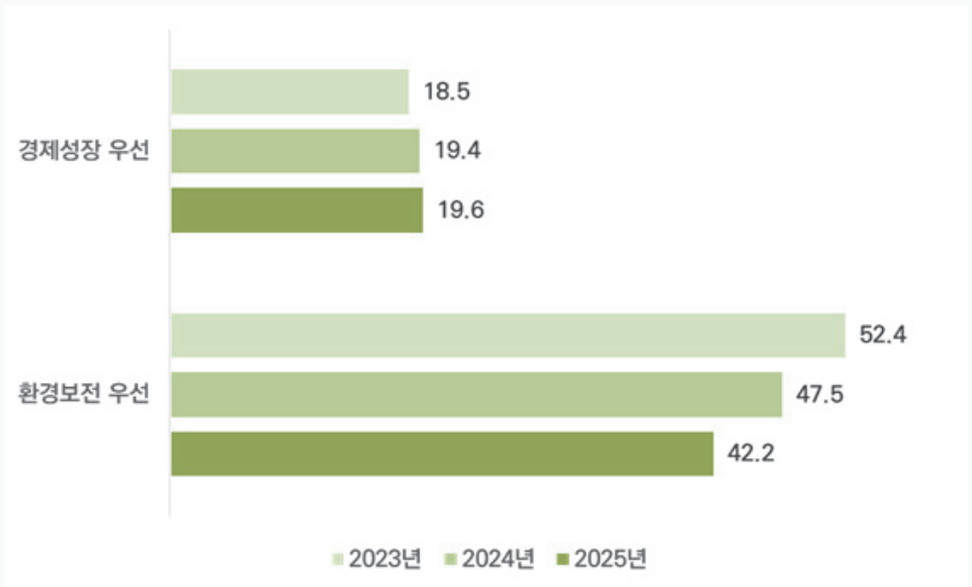
그림 2-40 2023~2025년 우리나라의 발전평가 기준 응답 추이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사이의 우선순위를 물었을 때도 '환경보전이 우선'(42.2%)이라는 응답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우선순위는 '환경보전 우선': 42.2%

문)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우선순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표시해 주십시오.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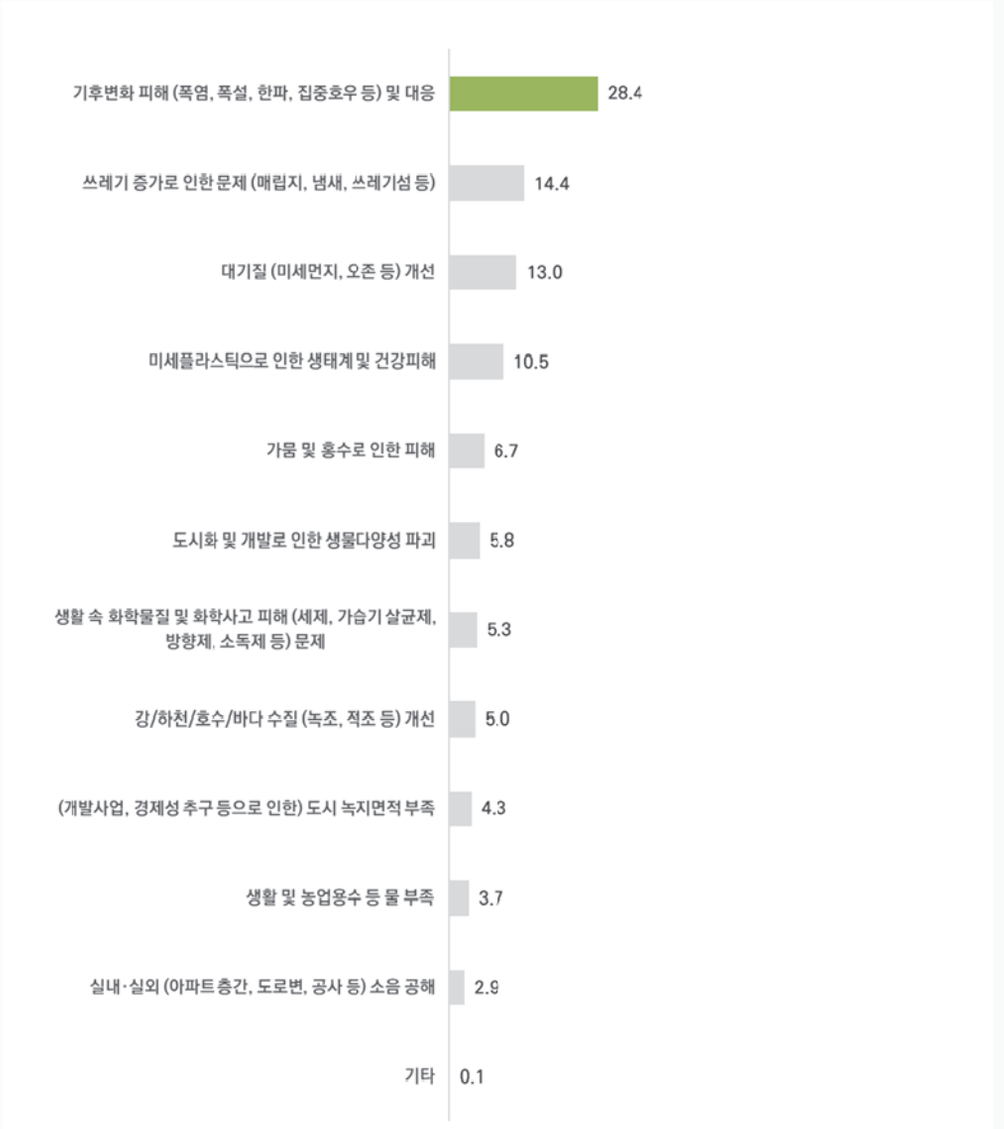
그림 2-41 2023~2025년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우선순위 응답 추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로는 1순위 기준으로 '기후변화 피해(폭염, 폭설, 한파, 집중호우 등) 및 대응'(28.4%)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쓰레기 증가로 인한 문제'(14.4%), '대기질(미세먼지, 오존 등) 개선'(13.0%) 등이 뒤를 이었다. 작년에 비해 매우 증가한 항목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생태계 및 건강 피해'가 10.5%로 2024년 2.8%에 비해 7.7%P, '쓰레기 증가로 인한 문제'가 14.4%로 2024년 7.1%에서 7.3%P, '가뭄 및 홍수로 인한 피해'가 6.7%로 2024년 0.8%에서 5.9%P 증가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환경문제: '기후변화 피해 및 대응' 28.4%

문) 다음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단위: 1순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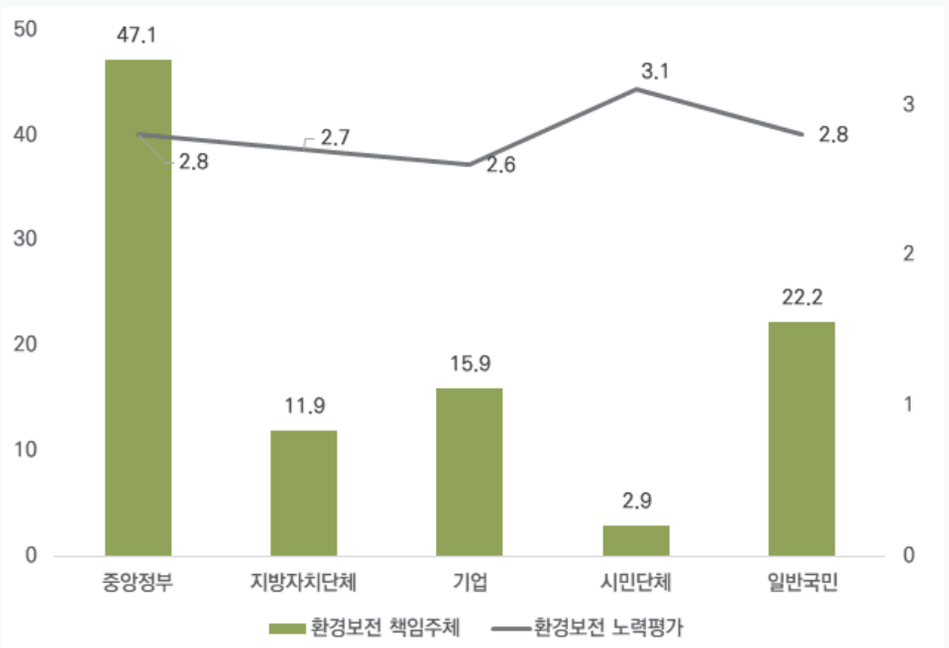
그림 2-42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

환경보전의 책임 주체에 대한 질문에는 '중앙정부'(47.1%)가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뒤로 '일반 국민'(22.2%)과 '기업'(15.9%)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응답과 비교해 볼 때 '중앙정부'(-1.8%P)와 '기업'(-1.5%P)이라는 응답이 감소하였고, '지방자치단체'(+2.8%P)와 '일반 국민'(+1.3%P)은 증가하였다. 또한 연령에 따라 환경보전의 주체를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기업'(23.3%)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60대는 '일반 국민'(32.9%)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중앙정부'는 모든 연령에서 높게 나타났다(20대 46.8%, 30대 48.8%, 40대 50.1%, 50대 46.3%, 60대 43.9%).

환경보전 주체: 중앙정부(47.1%), 중앙정부의 환경보전 노력 평가: 2.8/5점

문) 환경보전 책임의 주체, 문) 주체들의 환경보전 노력에 대한 평가

(단위: %/점, base=전체 응답자, n=3,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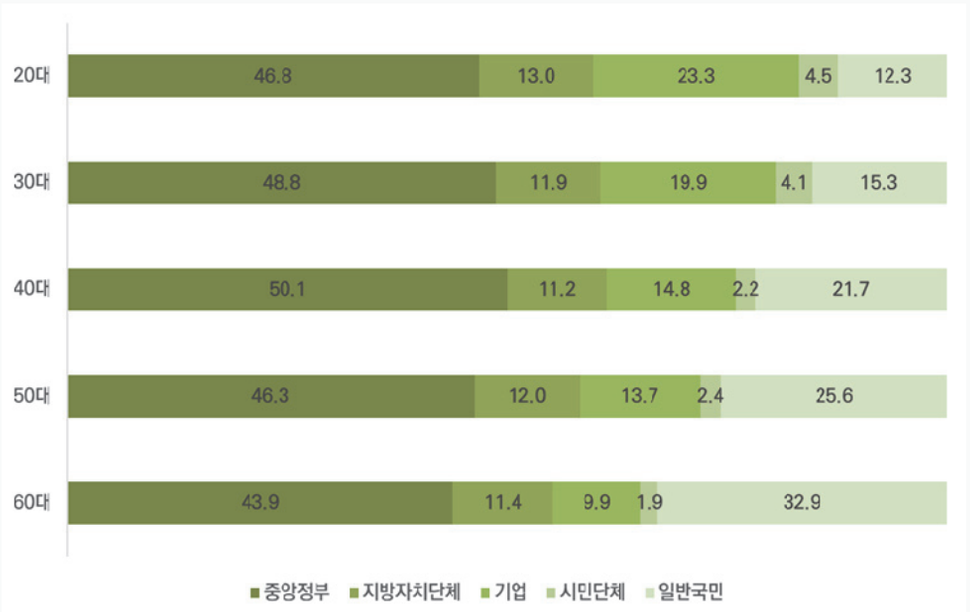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43 환경보전 책임 주체 및 각 주체의 노력에 대한 평가

환경보전 주체: 저연령층 기업의 책임 높게 고연령층 국민의 책임 높게 인식

문) 환경보전 책임의 주체

(단위: %/점,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44 환경보전 책임 주체(연령별)

2018년부터 8년간 환경보전의 주요 주체인 중앙정부, 기업, 일반 국민의 노력에 대한 평가 추이를 살펴보면 기업과 일반 국민의 노력에 대한 부정 평가(매우 못하고 있다+못 하고 있다)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경우 2018년 72.5%였던 부정 평가가 올해 42.9%로 크게 줄어 기업의 환경 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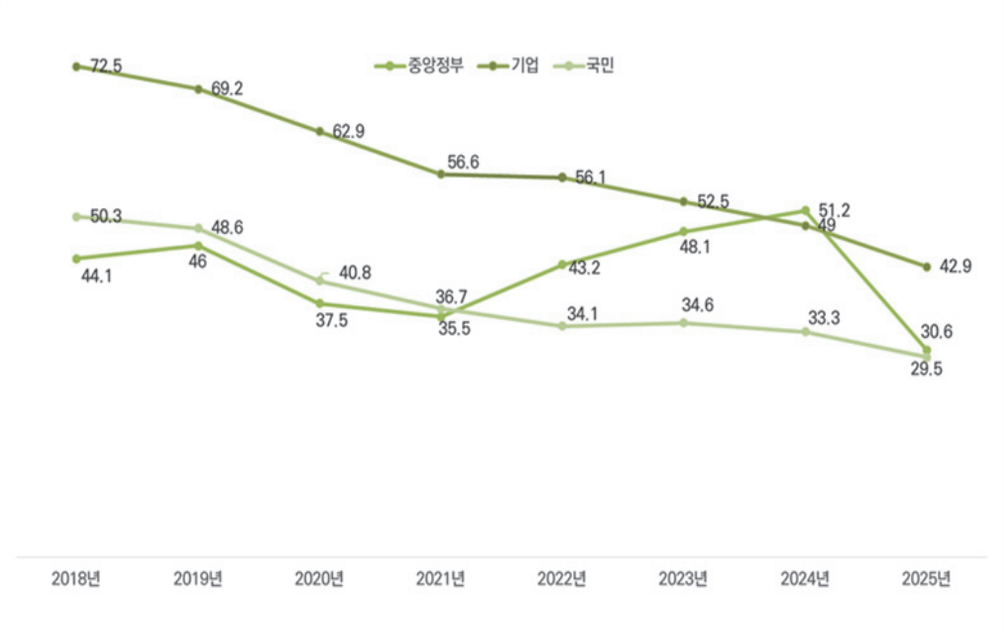
중앙정부에 대한 부정 평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올해는 30.6%로 지난 8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통한 조직 개편, 기후위기 대응 예산의 강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노력 등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드러난 데 대해 국민적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편 UNDP(2024)의 'Peoples' Climate Vote 2024' 조사에 따르면 국가별로 자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전 세계 80개국에서 실시한 대규모 조사에서 응답자의 49%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25% 정도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기업의 노력에 대해서는 39%의 응답자가 자국의 기업이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UNDP, 2024, p12). 본 조사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의 노력에 대한 평가는 글로벌 평균과 유사하였고 기업에 대한 평가는 글로벌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주요 주체의 노력에 대한 부정 평가 감소 추세

문) 다음 각각의 주체들의 환경보전 노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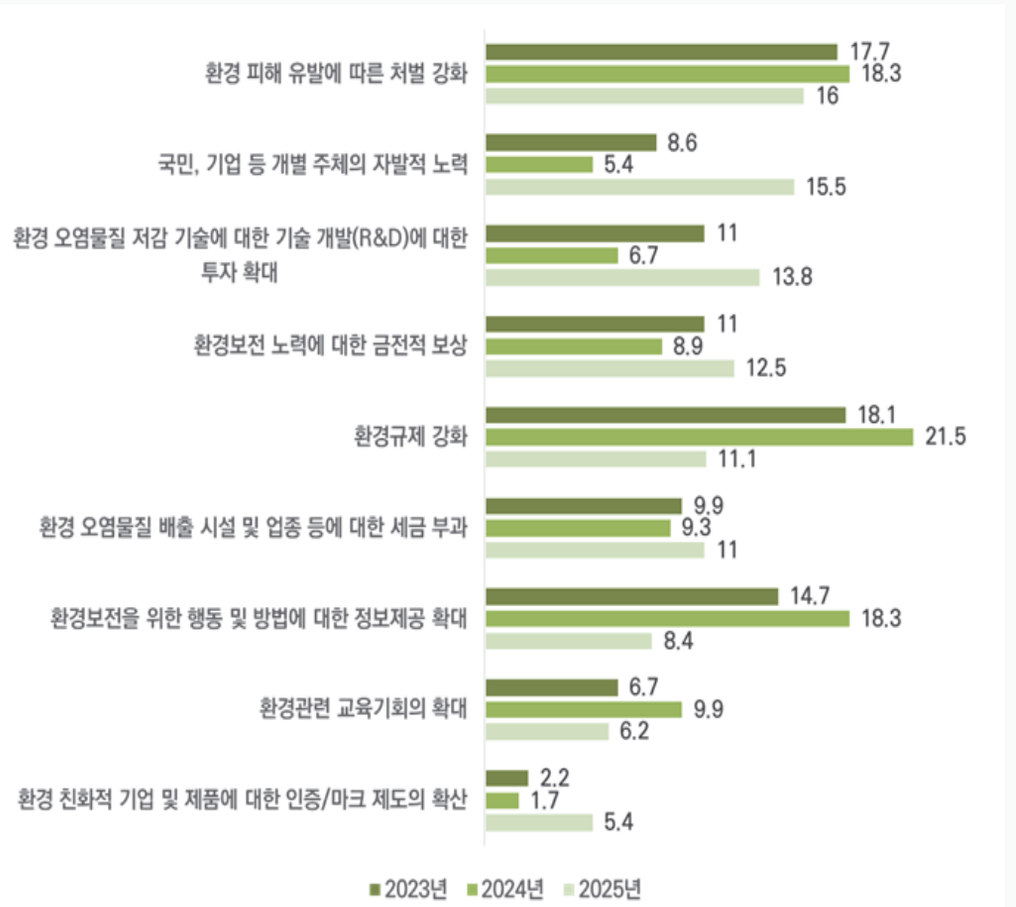
그림 2-45 2018~2025년 환경보전 주요 주체의 노력에 대한 부정 평가 추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환경 피해 유발에 따른 처벌 강화'(16.0%), '국민, 기업 등 개별 주체의 자발적 노력'(15.5%), '환경오염 물질 저감 기술 개발(R&D)에 대한 투자 확대'(13.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 동안 1위를 차지한 '환경 규제 강화'는 2024년 21.5%에 비해 2025년 11.1%로 매우 감소하였다. 국민들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 방법이 자발적 수단과 경제적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환경 피해 유발에 따른 처벌 강화' 16.0%

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단위: 1순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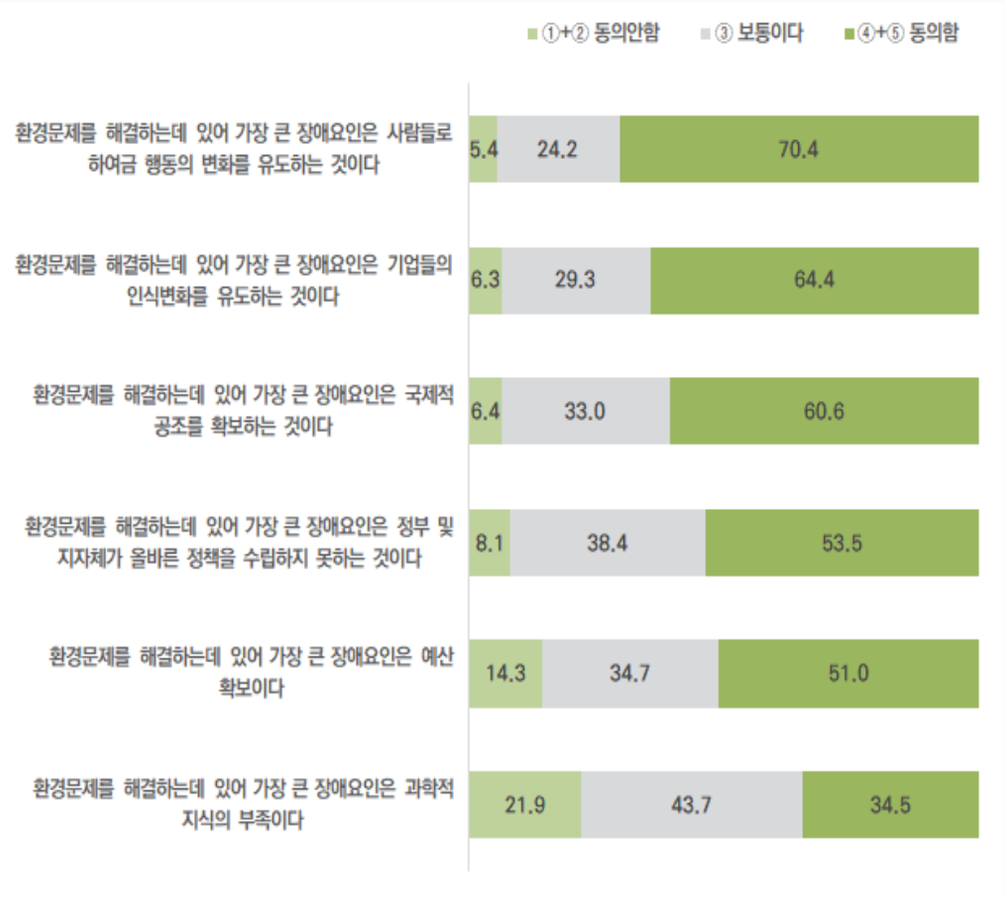
그림 2-46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환경문제 해결의 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행동 변화 유도'(70.4%), '기업들의 인식 변화 유도'(64.4%), '국제적 공조 확보'(60.6%) 등의 응답이 높게 나왔다.

환경문제 해결의 어려움: '사람들의 행동변화 유도' 70.4%

문) 귀하는 환경문제 해결의 어려움에 대한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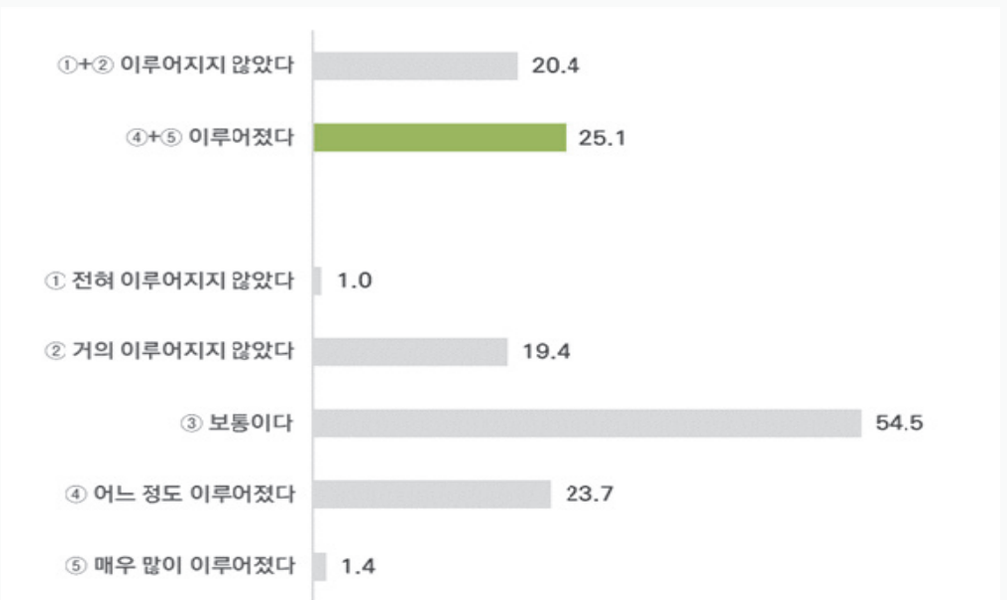
그림 2-47 환경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이 이뤄진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이루어졌다(매우 많이 이루어졌다+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응답은 202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2023년 13.9% → 2024년 16.0% → 2025년 25.1%), '이루어지지 않았다(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응답은 202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2023년 38.2% → 2024년 37.1% → 2025년 20.4%). 하위그룹으로 살펴보면 '이루어졌다'는 긍정 평가는 남성(28.4%)이 여성(21.7%)보다 높고, 보수(30.7%)가 다른 성향(진보 26.0%, 중도 21.7%)보다 높았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전반의 녹색전환이 '이루어졌다': 25.1%

문) 귀하는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이 얼마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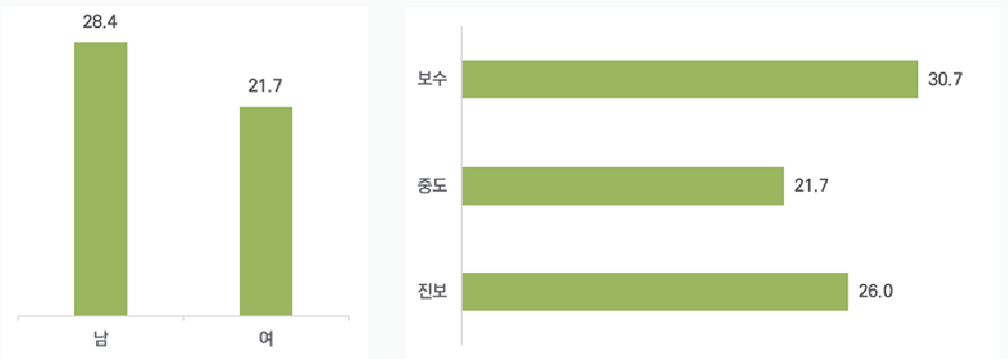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48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전반의 녹색전환이 '이루어졌다': 남자 28.4%, 보수 30.7%

문) 귀하는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이 얼마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49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성별, 정치 성향별)

5. 기후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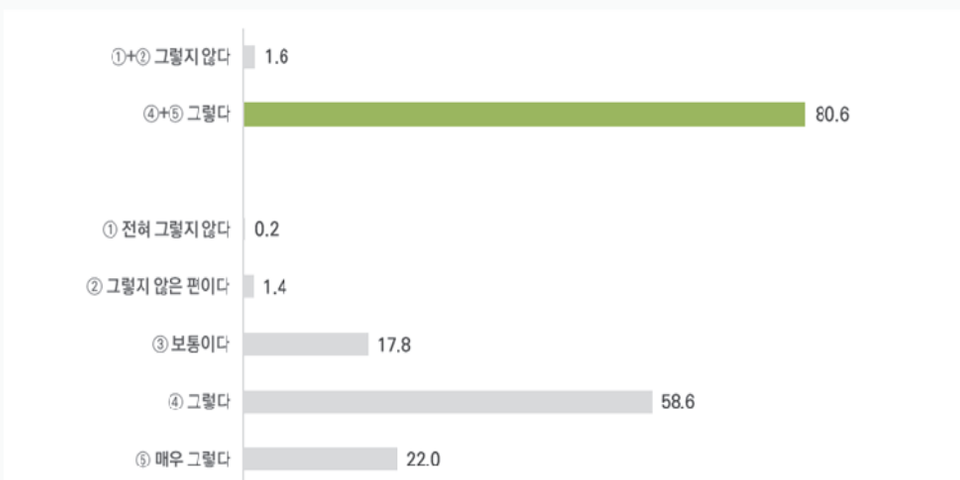
폭염, 집중호우, 산불,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과 사고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일상생활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기후변화가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국민의 삶 전반을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몇 년 동안 국민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환경문제로 기후변화를 꼽은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2025년 국민환경의식조사에서는 기후변화를 주제로 특별세션을 구성하여 우리 국민의 기후변화 인식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일상에서 기후변화를 '체감한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는 응답은 80.6%로 대다수의 국민은 일상생활에서도 기후변화 문제를 체감하고 있었다. 또한 작년에 비해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 수준이 '늘었다(크게 늘었다+약간 늘었다)'는 응답도 71.3%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해외 다른 나라 국민의 평균적 걱정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UNDP(2024)의 'Peoples' Climate Vote 2024'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작년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이 늘었다고 답하였고 G20 국가에서는 평균보다 다소 낮은 50%가, 개발도상국에서는 평균보다 좀 더 높은 59%가 우려가 증가했다고 응답하였다. 해당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76%의 응답자가 지난해에 비해 걱정이 늘었다고 응답했으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응답률이 나온 국가는 멕시코(77%), 튀르키예(77%), 브라질(76%) 등이었다(UNDP, 2024, p11).

일상에서 기후변화를 '체감한다': 80.6%

문) 귀하는 일생생활에서 기후변화를 체감하십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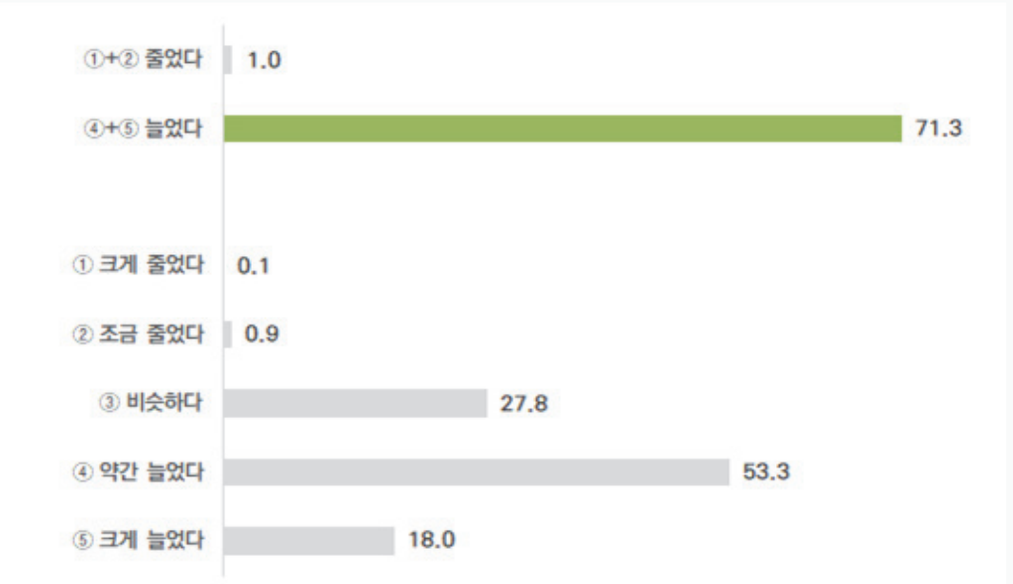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50 기후변화 체감 정도

작년에 비해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 수준이 '늘었다': 71.3%

문) 작년과 비교했을 때, 귀하의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 수준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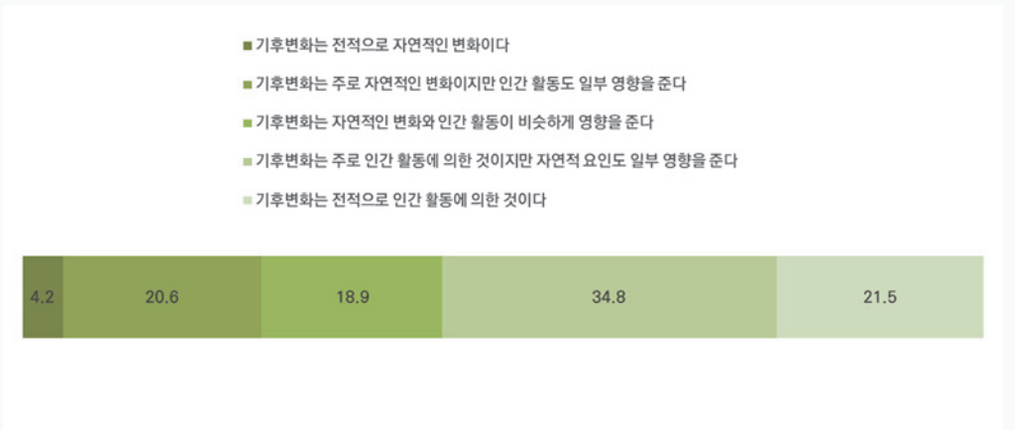
그림 2-51 작년 대비 기후변화 걱정 수준

기후변화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56.3%가 '인간 활동에 의한 것(전적으로 인간 활동에 의한 것+주로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자연적인 변화(전적으로 자연적인 변화+주로 자연적인 변화)'라는 응답도 24.8%에 달했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자연적 변화라는 응답보다 인간 활동이라는 응답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지만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이 인간 활동이라는 점은 이미 충분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확립된 사실임을 고려하면 이를 높은 수치로 보기는 어렵다(IPCC, 2021, p.425).

기후변화는 '인간 활동에 의한 것' 56.3% vs. '자연적인 변화' 24.8%

문) 귀하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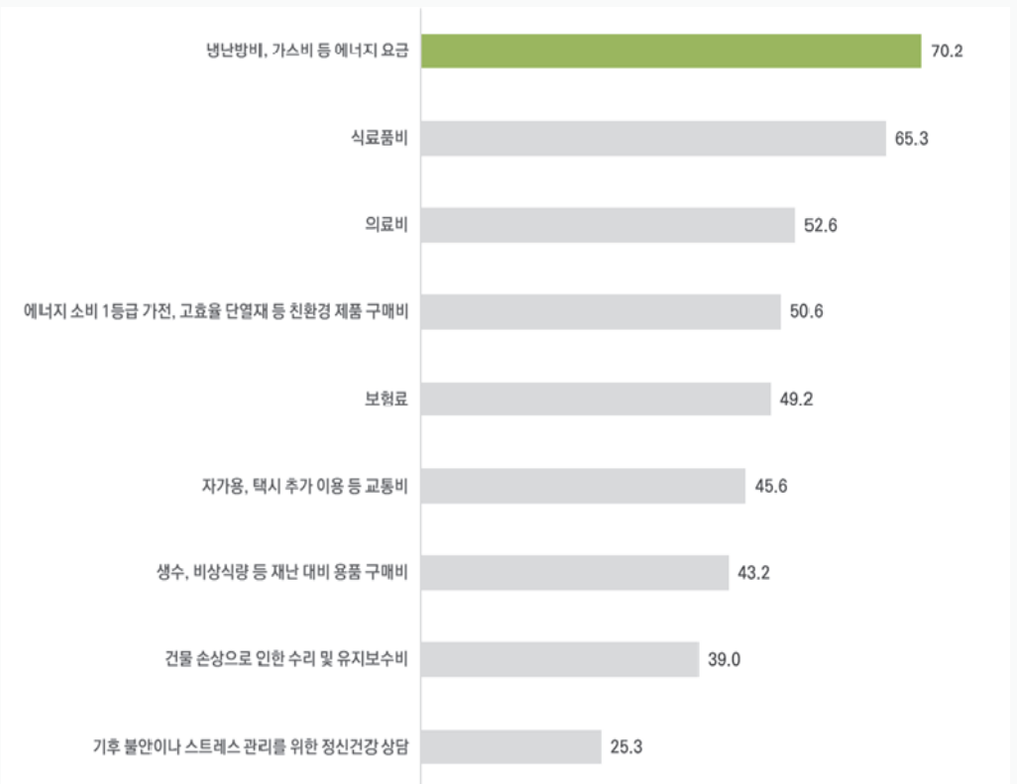
그림 2-52 기후변화 원인

기후변화로 인해 지출이 증가하였다(매우 많이 증가하였다+약간 증가하였다)고 체감하는 항목으로는 '냉난방비, 가스비 등 에너지 요금'이 70.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식료품비' 65.3%, '의료비' 52.6%, '친환경 제품 구매비' 50.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이 생활비 영역 전반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기후변화가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에너지, 식료품 등 생필품 중심의 지출 증가는 기후 문제가 심화할수록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

가계지출이 이전보다 증가했다: '냉난방비, 가스비 등 에너지 요금' 70.2%

문) 귀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아래 항목의 가계 지출이 이전보다 증가했다고 체감하십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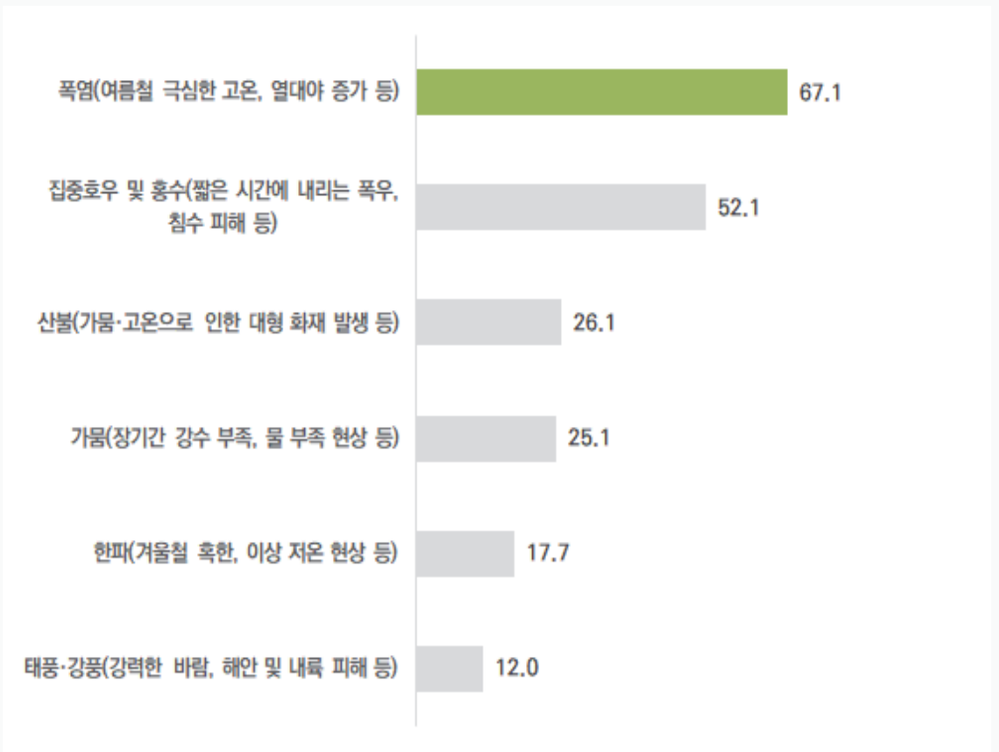
그림 2-53 기후변화로 인한 체감 가계 지출

국민들은 '폭염(여름철 극심한 고온, 열대야 증가 등)'(67.1%)과 '집중호우 및 홍수(짧은 시간에 내리는 폭우, 침수 피해 등)'(52.1%)를 가장 심각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꼽았으며 '산불(가뭄·고온으로 인한 대형 화재 발생 등)'이 26.1%로 뒤를 이었다.

가장 심각한 이상기후 현상: 폭염 67.1%

문) 귀하는 다음의 이상기후 현상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복수응답)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54 가장 심각한 이상기후 현상

우리나라가 직면한 이상기후 위험에 대한 인식은 폭염(84.4%), 집중호우 및 홍수(80.6%), 산불(76.7%) 순으로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에 반해 개인이나 가정이 노출되어 있는 이상기후 위험에서는 폭염(73.5%)에 이어 한파가 62.8%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폭염과 한파는 앞서 살펴 본 에너지 비용의 증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상기후 유형으로, 이들 위험이 크게 인식된다는 것은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에너지 취약 계층 보호와 주거 안전망 강화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차원의 이상기후 위험: '폭염(여름철 극심한 고온, 열대야 증가 등)' 84.4%

문) 귀하는 우리나라가 다음이 이상기후로 인한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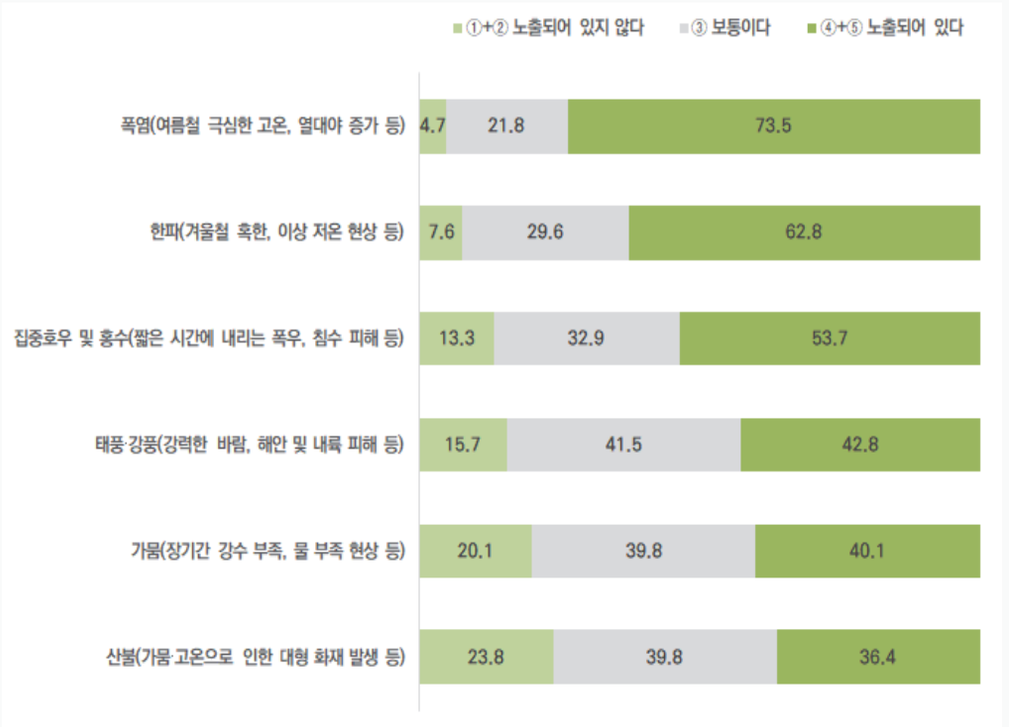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55 국가 차원의 이상기후 위험 노출

개인(가정) 차원의 이상기후 위험: '폭염(여름철 극심한 고온, 열대야 증가 등)' 73.5%

문) 귀하는 귀하 개인(가정)이 다음이 이상기후로 인한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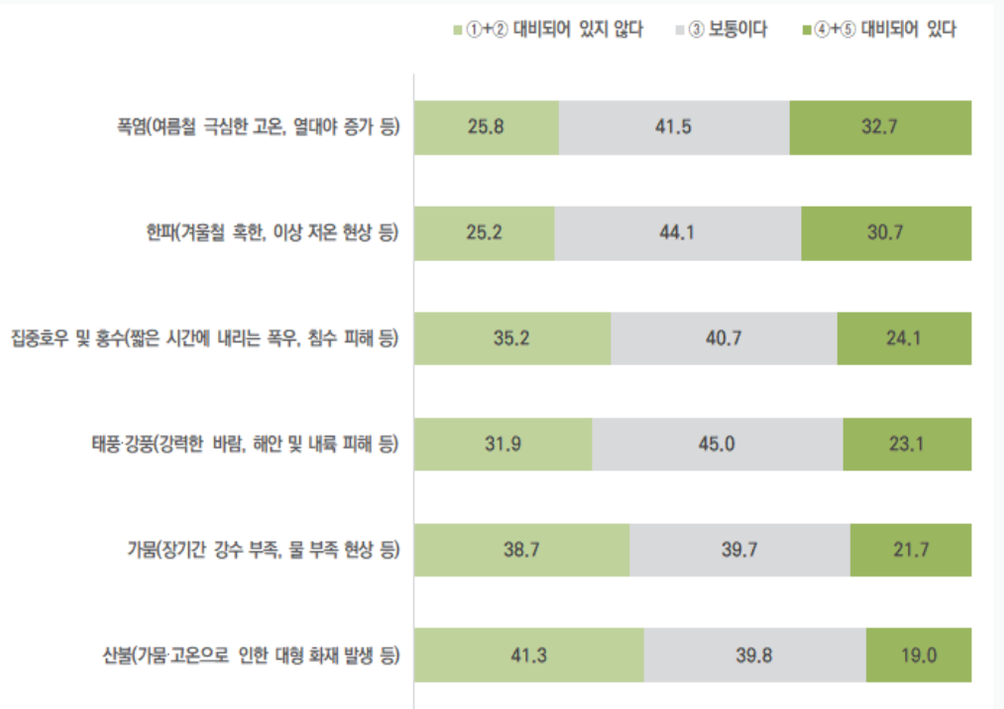
그림 2-56 개인(가정) 차원의 이상기후 위험 노출

국가와 개인(가정)이 이상기후의 위험에 얼마나 잘 대비되어 있는지(매우 잘 대비되어 있다+조금 대비되어 있다)에 대해 물어 본 결과, 모든 위험에서 국가의 대비 수준은 30%대, 개인(가정)의 대비 수준은 40%대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산불(국가: 19.0%, 개인: 23.2%)이나 가뭄(국가: 21.7%, 개인: 24.5%), 태풍·강풍(국가: 23.1%, 개인: 26.4%)과 같이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위험에 대해서도 잘 대비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이상기후 대응 역량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이 드러났다.

국가 차원의 이상기후 대비 정도: 폭염(여름철 극심한 고온, 열대야 증가 등) 32.7%

문) 귀하는 다음 이상기후로 인한 위험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57 국가 차원의 이상기후 대비 정도

개인(가정) 차원의 이상기후 대비 정도: 폭염(여름철 극심한 고온, 열대야 증가 등) 46.7%

문) 귀하는 다음의 이상기후로 인한 위험에 귀하 개인(가정)이 어느 정도 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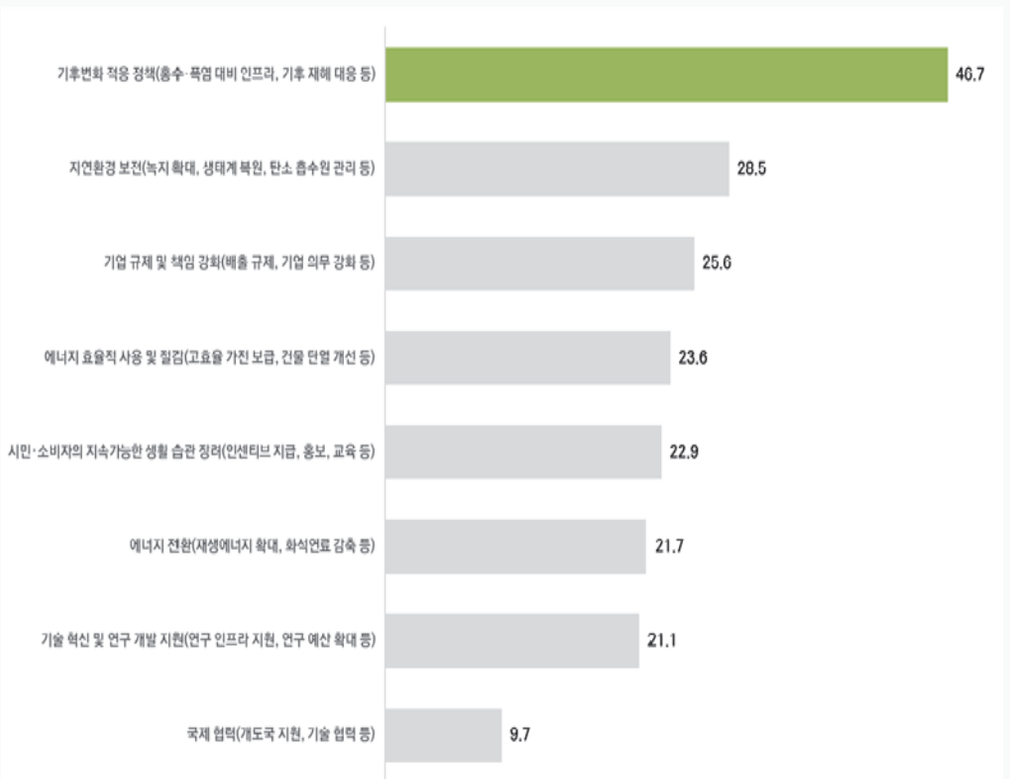
그림 2-58 개인(가정) 차원의 이상기후 대비 정도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이 46.7%로 가장 높았고, '자연환경 보전'(28.5%), '기업 규제 및 책임 강화'(25.6%) 순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기후변화 적응 정책(홍수·폭염 대비 인프라, 기후 재해 대응 등)' 46.7%

문) 귀하는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2개)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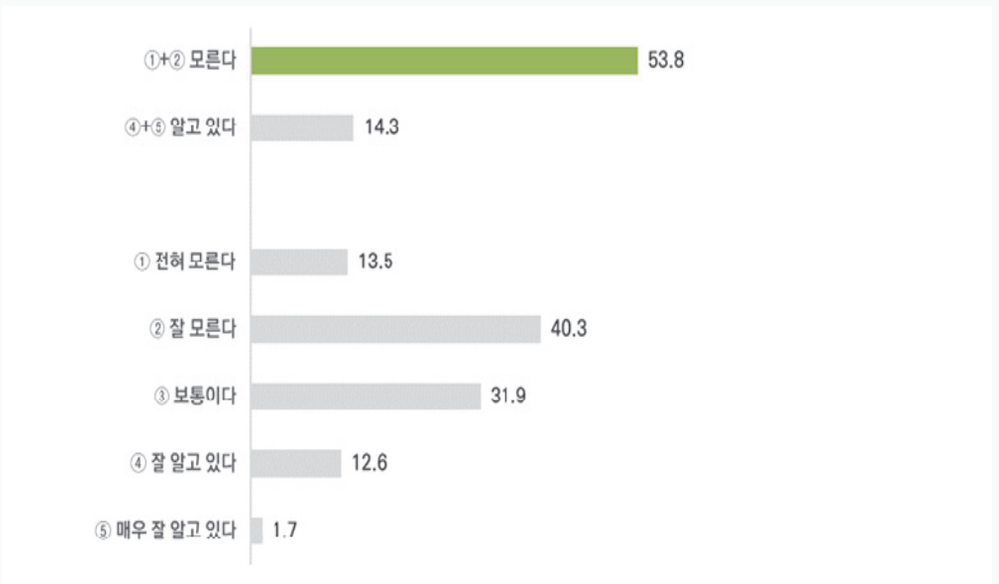
그림 2-5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기후테크 용어를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53.8%로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14.3%)에 비해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그룹별로 살펴보면 '알고 있다'라는 응답은 남성(17.8%)이 여성(10.7%)보다 높고, 20대(20.4%)가 60대(8.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기후테크 인지 정도: '모른다' 53.8%

문) 귀하는 기후테크(Climate Tech)라는 용어를 알고 계십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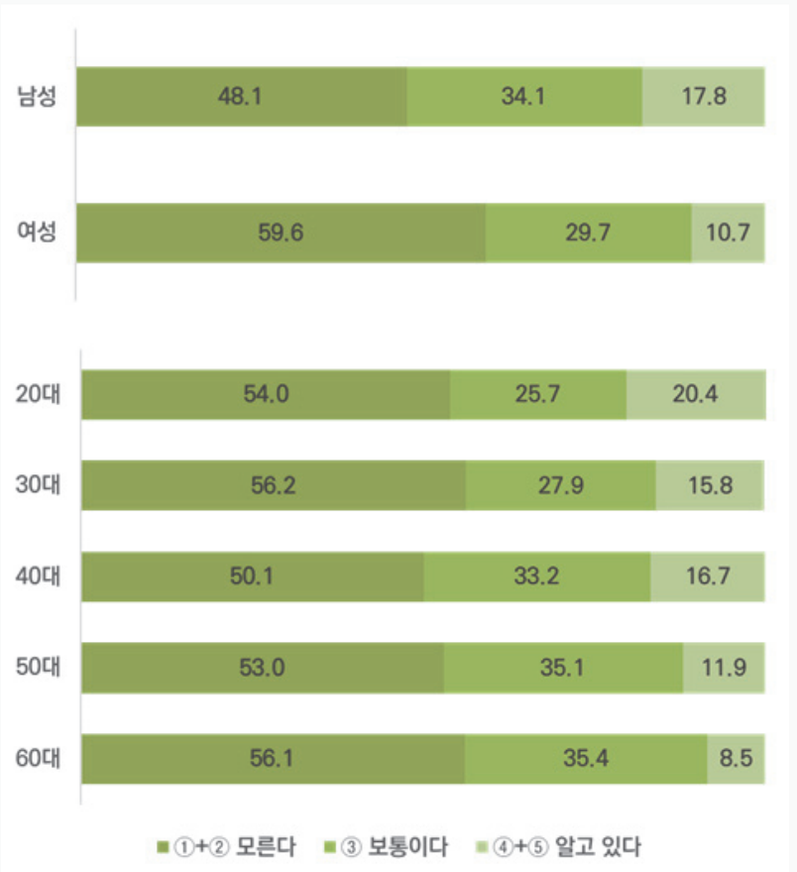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60 기후테크 인지도

기후테크 인지 정도: '알고 있다' 남성 17.8%, 20대 20.4%

문) 귀하는 기후테크(Climate Tech)라는 용어를 알고 계십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61 성별·연령별 기후테크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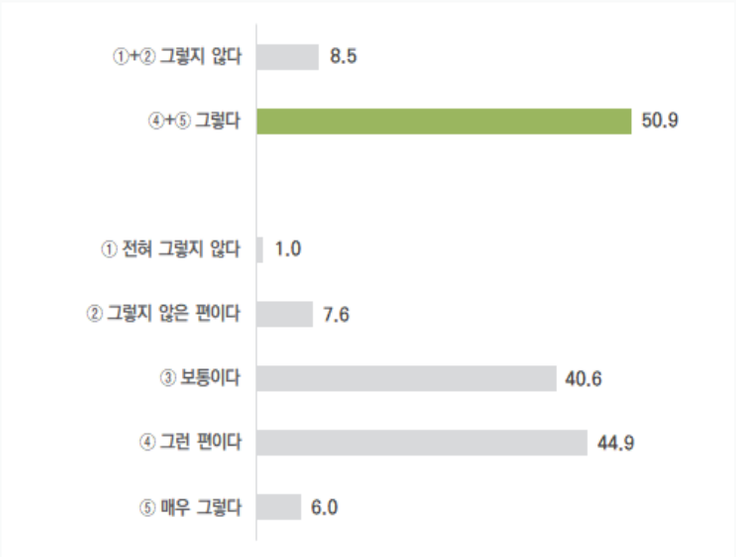
용어 인지 여부를 물은 후 기후테크의 정의를 알려주고 기후테크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한다고 생각하는지 확인한 결과 '기여한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50.9%로 나타났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육성해야 할 기후테크 분야로 '순환경제(예: 재활용, 폐기물 관리)' 47.2%, '재생에너지(예: 태양광, 풍력)' 45.4%, '친환경 모빌리티(예: 전기차, 수소차)' 26.5%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수단인 '재생에너지'보다 '순환경제'가 1순위로 꼽힌 것은 '탄소 감축=에너지 전환'이라는 기존 프레임을 벗어나 자원 낭비나 폐기물 문제 해결이 기후 문제 해결의 한 축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순환경제 관련 기술은 생활 속의 적용이 가능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사회적 수용성과 합의 기반이 넓은 분야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기후테크가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으로 기여한다: 50.9%

문) 귀하는 기후테크가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으로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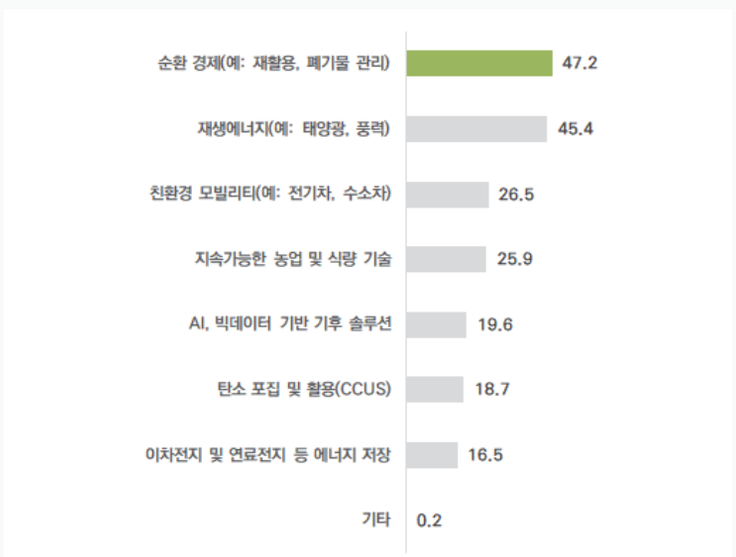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62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의 기후테크

우선적 육성 분야: '순환경제(예: 재활용, 폐기물 관리)' 47.2%

문) 귀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기후테크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2개)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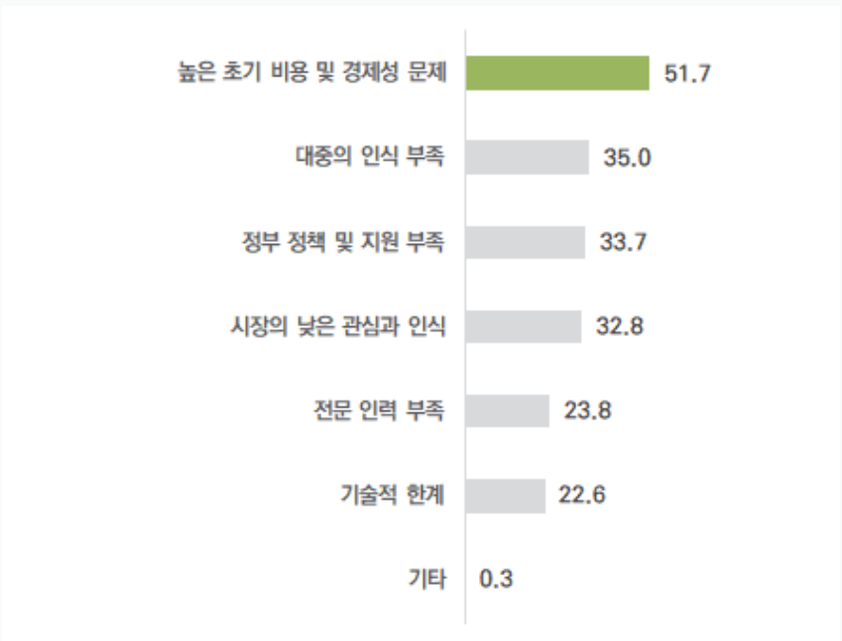
그림 2-63 기후테크 우선적 육성 분야

기후테크 산업 성장의 장애물은 '높은 초기 비용 및 경제성 문제'가 51.7%로 가장 높았고, '대중의 인식 부족'(35.0%), '정부 정책 및 지원 부족'(33.7%)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기후테크 발전을 위해 초기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테크 산업 성장의 장벽: '높은 초기 비용 및 경제성 문제' 51.7%

문) 귀하는 기후테크 산업 성장의 가장 큰 장벽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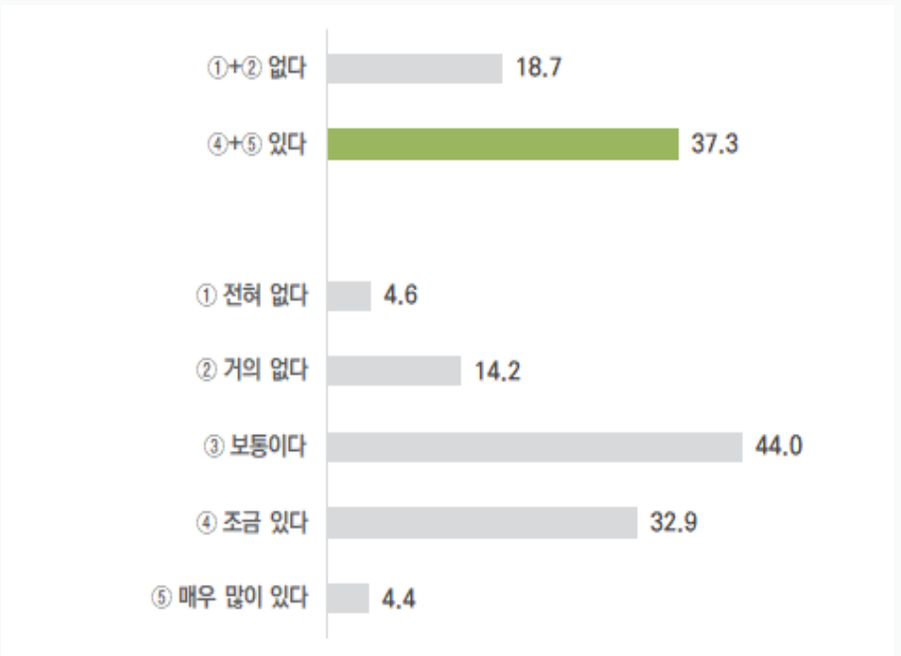
그림 2-64 기후테크 산업 성장의 장벽

기후테크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37.3%이었으며 구체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이 예상되는 경우'(71.3%), '투자 상품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경우'(59.2%) 순으로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기후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가치 그 자체보다는 재무적 수익이 우선시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후위기 대응 효과'(57.2%)나 '정부의 세제 혜택'(57.1%) 등이 투자의 보조적 동력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테크 관련 금융상품 투자 의향이 '있다': 37.3%

문) 귀하는 기후테크 관련 금융상품(펀드, ETF, 주식 등)에 투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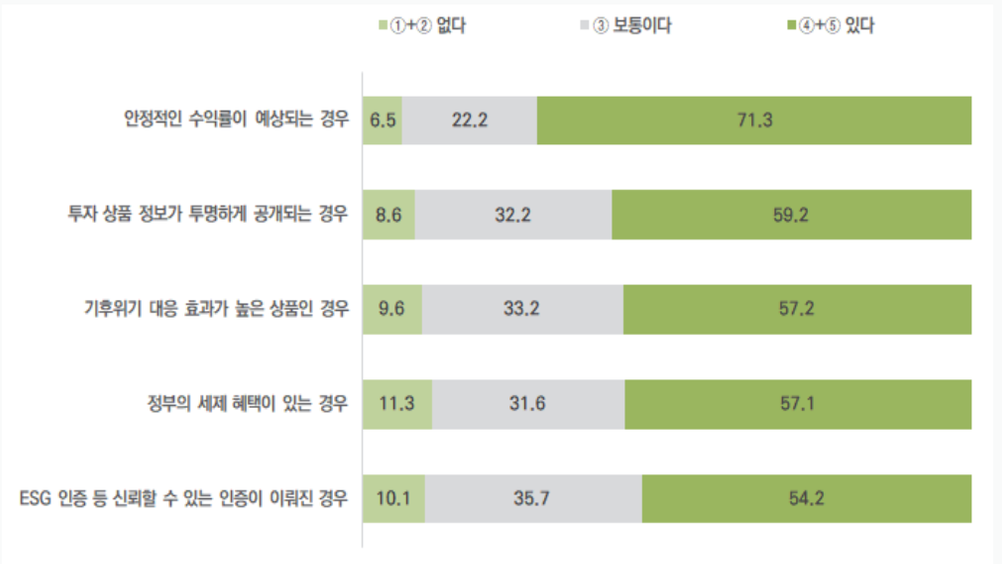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65 기후테크 관련 금융상품 투자 의향

기후테크 관련 금융상품 투자 의향: '안정적인 수익률이 예상되는 경우' 71.3%

문) 귀하는 다음 조건이 충족된다면 기후테크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단위: %, base=전체 응답자, n=3,008)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66 기후테크 관련 금융상품 투자 의향 조건

6. 결론

KEI 국민환경의식조사는 2012년부터 매년 시행되어 온 환경 관련 정기조사로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1년 단위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5년 단위로 응답 패널을 유지하여 해당 기간의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환경 인식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심각성 인식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환경문제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는 68.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다. 더불어 기후변화의 심각성 및 중요도 인식 역시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환경친화적 행동을 생활의 편리함보다 우선하겠다는 응답의 감소로 이어진다. 올해 '환경친화적 행동을 생활의 편리함보다 우선한다'는 응답은 54.2%로 2020년 66.6%와 비교할 때 큰 폭으로 떨어졌다. 반면 '생활의 편리함이 최우선'이라는 응답은 동기간 13.6%에서 23.2%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20대와 남성에서 편리함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양한 이유가 존재할 수 있으나 물가 상승, 경기 불안, 높은 실업률 등 사회경제적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고 가시적인 결과가 없는 환경 담론에 대한 피로감이 늘어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평가하는 기준에서 '환경·사회·경제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은 2020년 대비 10%P 이상 감소했지만 '경제적 기준을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증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민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환경문제 역시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기후변화'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히지만(57.5%) 작년에 비해 10%P 이상 하락했고 대신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홍수·가뭄', '미세플라스틱' 등 새로운 관심 영역이 부상하였다. 이는 환경문제가 다양한 위험들로 체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체감하는 피해는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83.5%가 심각하다고 인식한 반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인식은 57.9%로 격차가 컸다. 이러한 '심리적 거리감'은 기후 대응 행동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행동을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시간 소요(42.6%)와 경제적 부담(40.9%)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이는 정책적으로 친환경 행동의 비용을 줄이거나 비용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환경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개선이 필요하다. 환경정보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증가했으나(24.0%), '사실과 의견이 섞여 정확성 판단이 어렵다'(48.3%), '정보가 자극적·편향적으로 제시된다'(37.1%) 등 정보 자체에 대한 불신의 비율이 여전히 높다. 또한 가장 필요한 정보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53.6%)이 가장 많이 선택되어 기후 위기 대응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실용적인 맞춤형 정보의 수요가 높음을 보여준다.

환경보전의 책임 주체로는 '중앙정부'가 47.1%로, 책임이 가장 높은 주체로 꼽혔다. 환경문제에 대해 여전히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대가 높다는 의미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18~2025년 동안 중앙정부, 기업, 국민 등 사회 주요 주체 모두에 대한 부정 평가가 줄었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에 대한 부정 평가는 2018년 72.5%에서 42.9%로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이는 기업의 ESG 경영 확산, 탄소중립 추진 확대, 시장 내 녹색 전환 흐름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앙정부에 대한 평가 개선은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기후위기 대응 예산 확대 등 조직과 재정적 기반 강화 조치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경제적 측면이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다. 많은 국민이 기후변화로 인해 에너지비, 식료품비, 의료비 등 필수적인 생활비가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기후 위기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가계경제를 직접 압박하는 민생 문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에너지나 식료품 부문의 비용 상승은 소비 여력이 제한된 취약 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기후위기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환경정책은 산업과 민생, 복지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기후적응 정책과 에너지 안전망 강화, 취약 계층 지원, 생활밀착형 감축 정책 등을 결합해 기후 위기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다층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프레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기후정책이 곧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민생정책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2012년부터 시작된 국민환경의식조사는 2018년 설문 문항을 정비하였고 설문 방법을 면접조사에서 웹 조사로 변경하는 등 변화를 주었다. 2018년부터 2022년 간이 패널조사 형태를 유지하여 945명 샘플 규모의 5개년 패널 표본을 확보하였고, 2023년부터 새로운 5개년 패널 표본을 3,088명 샘플로 시작하였다. 이러한 종단, 횡단 데이터는 당해 연도의 국민환경 의식을 파악할 뿐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계열적 분석을 가능케 하여 다양한 각도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의 환경 의식을 이해하고 축적된 데이터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한국환경연구원은 2022년부터 국민환경의식조사의 원본 데이터를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 2018년부터의 조사 데이터가 1차적으로 공개되어 있으며, 조사 방법론과 설문 문항에 차이가 있는 2017년 이전 데이터의 경우 내부 검증을 거쳐 추후 추가 공개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데이터가 관련 부처,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국민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확인하고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제3장

2025 국민환경의식조사 설문지

1. 국민환경의식조사 설문지

1. 국민환경의식조사 설문지

응답자 선정 문항

SQ1. 살고 계신 지역(세부 주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세종

SQ2.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SQ3. 올해 만으로 몇 세이십니까?

① 만 19세~만 29세 ② 만 30세~만 39세
③ 만 40세~만 49세 ④ 만 50세~만 59세
⑤ 만 60세~만 69세

A. 환경 인식

A1. 귀하는 평소 환경(환경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관심이 없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관심이 있는 편이다
⑤ 매우 관심이 있다

A2. 귀하는 여러 환경문제의 원인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모르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아는 편이다
⑤ 매우 잘 안다

A3. 귀하는 여러 환경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모르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아는 편이다
⑤ 매우 잘 안다

A4. 귀하는 다음 중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기후변화
② 대기오염/미세먼지 문제
③ 쓰레기/폐기물 처리 문제
④ 생태계 훼손(산림, 습지 등)
⑤ 자연자원 고갈
⑥ 미래 에너지원 및 공급
⑦ 과대 포장에 따른 쓰레기 발생
⑧ 생물다양성 보호 문제
⑨ 강/하천/호수 수질(녹조, 적조 등)
⑩ 홍수 및 가뭄
⑪ 생활 속 유해 화학물질(환경 호르몬, 식품 첨가물 등)
⑫ 환경 불평등(소득이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환경의 피해나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
⑬ 기타(　　)

A5. 귀하는 다음 각각의 우리나라 부문별 환경상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2	3	4	5
① 대기(공기)질(미세먼지, 오존 등)					
② 강/하천/호수/바다 수질(녹조, 적조 등)					
③ 토질(토양 내 중금속, 농약 등)					
④ 실내·실외 소음 정도					
⑤ 쓰레기 처리(냄새, 경관 등)					
⑥ 생활 속 화학물질(세제, 가습기 살균제, 락스, 섬유 유연제, 방향제, 소독제 등)로 인한 오염					
⑦ 생물다양성, 멸종위기종 서식지, 생태계 보전					
⑧ 도시 녹지면적 및 공원 이용					
⑨ 자연경관(경치)					
⑩ 위 모든 보기를 고려한 환경 전반의 상태					

A6. 다음 제시하는 용어 각각에 대해 들어봤거나 알고 있는 용어인지 아닌지 응답해주십시오.

	들어봤거나 알고 있는 용어이다	들어봤거나 알고 있는 용어가 아니다
	1	2
① 생물다양성/종다양성		
② 생태계서비스		
③ 생태계 교란생물/외래종		
④ 탄소중립		
⑤ 재생에너지		
⑥ PM10/PM2.5		
⑦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⑧ 탄소발자국		
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⑩ 제로웨이스트		
⑪ 업사이클링		
⑫ 순환경제		
⑬ 파리기후변화협약		
⑭ ESG경영		
⑮ 환경정의		
⑯ 탄소세		

A7. 다음의 설명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O,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X, 잘 모르시겠으면 모름에 표시해 주십시오. 귀하의 환경지식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니 정답을 유추하지 마시고 아시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O	X	모름
	1	2	3
① 생물(종)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② 재생에너지는 고갈되지 않는다			
③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10㎛ 이하(PM10)의 먼지로 호흡기에서는 걸러지지 않지만 폐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걸러진다			
④ 탄소발자국은 개인이나 집단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5월부터 8월까지 미세먼지 관리 조치를 강화하여 적용하는 제도이다			
⑥ 제로웨이스트는 쓰레기를 소각하여 폐기물의 부피를 줄이는 것이다			
⑦ 업사이클링은 재활용 제품에 디자인이나 활용도 등을 가미하여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⑧ 순환경제란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친환경 경제모델을 의미한다			
⑨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			
⑩ 탄소세는 석유·석탄 등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도입하였다			

A8. 기후변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3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3]

① 온실가스 증가
② 평균기온 상승
③ 해수면 상승
④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폭염, 태풍, 집중호우, 가뭄 등)
⑤ 계절적 변화(개화 시기 등)
⑥ 생물다양성 감소(동 · 식물 멸종 등)
⑦ 어종 변화
⑧ 재배작물/과일 변화
⑨ 감염병 유행
⑩ 대기오염 악화
⑪ 위 보기 중에 없다 [중복선택불가]

A9. 현재 시점에서 기후변화가 사회 전반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심각한 편이다
⑤ 매우 심각하다

A10. 현재 시점에서 기후변화가 귀하 본인에게는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심각한 편이다
⑤ 매우 심각하다

A11. 귀하께 기후변화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한 편이다
⑤ 매우 중요하다

A12. 귀하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
② 10년 이내
③ 20년 이내
④ 50년 이내
⑤ 100년 이내
⑥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A13. 귀하는 다음의 대상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얼마나 받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전혀 받지 않음	거의 받지 않음	보통 이다	약간 받음	매우 많이 받음
	1	2	3	4	5
① 나 자신					
② 나의 가족					
③ 나의 공동체(이웃, 동료, 친구 등)					
④ 우리나라 국민					
⑤ 고소득 국가의 국민					
⑥ 저소득 국가의 국민					
⑦ 미래 세대					
⑧ 동물/식물종					

A14. 귀하는 기후위기나 환경재난 등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다음의 감정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전혀 느끼지 않음	거의 느끼지 않음	보통 이다	약간 느낌	매우 많이 느낌
	1	2	3	4	5
① 불안감: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어떤 재난이나 위협이 닥칠지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하다					
② 분노감: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집단, 국가, 기업 등에 대해 화가 난다					
③ 무력감: 나의 개인적인 노력은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데 소용이 없는 것 같아서 무력감이 든다					
④ 우울감: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우울하다					
⑤ 죄책감: 나의 삶의 방식이 기후변화의 원인(온실가스 등)을 제공한 것 같아 죄책감이 든다					
⑥ 미안함: 어린아이나 미래세대에게 나쁜 환경을 물려주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					
⑦ 무관심: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는다					
⑧ 당혹감: 기후변화는 걱정스러운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혹스럽다					

B. 환경태도/실천

B1. 현재 귀하의 생활에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A	A에 가깝다				B에 가깝다	B
다소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환경친화적 행동(에너지절약, 1회용 사용자제 등)을 우선한다	1	2	3	4	5	솔직히 말해 생활의 편리함이 최우선이다

B2. 아래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① 나와 가까운 사람들(가족, 친구 등)은 내가 환경친화적으로 행동하기를 바랄 것이다					
② 나와 가까운 사람들(가족, 친구 등)은 환경친화적인 행동을 잘 실천할 것이다					

B3.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1	2	3	4	5
① 나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② 나는 우리 집의 수도, 전기 요금 등을 줄이기 위해 물과 전기를 아껴 쓴다					
③ 가족이나 친구 등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환경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④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라 생각한다					
⑤ 나는 환경친화적인 행동을 할 때 기쁨과 만족감을 느낀다					
⑥ 환경에 이로운 활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⑦ 환경이 파괴되면 생태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⑧ 다양한 종류의 생물종이 생존하는 것은 중요하다					
⑨ 자연은 우리에게 식량과 자원을 제공한다					
⑩ 환경이 건강한 것은 나의 신체적 건강과 매우 관련이 높다					
⑪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보전하는 것은 시급하다					
⑫ 환경이 훼손되면 인류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B4. 귀하께서는 환경보전을 위해서 다음 각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만약 서술된 행동이 귀하와 전혀 관련 없는 행동인 경우 해당 사항 없음에 표시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비운전자는 운전 관련 행동은 해당 사항 없음에 표시).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지 않다	해당 사항 없음
	1	2	9
① 냉난방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적정 실내온도(여름 26도 이상, 겨울 20도 이하)를 유지한다			
② 세탁기, TV 등 전자제품 사용 시간이나 빈도를 줄인다			
③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플러그를 뽑거나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를 이용한다			
④ 낭비되는 물 소비를 줄인다 (예: 설거지하거나 샤워할 때 물을 그냥 틀어 놓지 않음)			
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먹을 만큼만 요리하기, 남기지 않고 먹기, 조리 전 버리는 식재료 줄이기 등)			
⑥ 친환경마크나 재활용마크가 있는 제품의 구매를 우선 고려한다			
⑦ 우리나라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식재료를 구매한다			
⑧ 짧은 거리 이동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도보,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⑨ 친환경 운전(급발진, 급제동 자제, 정속 주행 등)을 실천한다			
⑩ 전기/수소 자동차를 구매한다			
⑪ 일회용품(일회용 비닐백, 일회용 포장지, 종이컵 등)의 소비를 자제한다			
⑫ 마트나 시장 방문시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가지고 간다			
⑬ 물건 구입시 과대포장, 플라스틱 재질 등 환경에 이롭지 못한 제품 구입을 자제한다			
⑭ 종이, 플라스틱, 병, 캔 등의 쓰레기를 깨끗이 씻어 분리 배출한다			

B5. 귀하가 친환경적 태도 및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데 있어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① 친환경적 행동이 나의 건강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예: 미세먼지 많은 날 걸어서 이동, 폭염 날씨에 에어컨 미가동 등)

② 친환경적인 행동(예: 대중교통 이용)은 시간이 많이 소비된다

③ 친환경적인 행동은 비용이 많이 든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동들이 이미 습관이 되어 바꾸기 어렵다

⑤ 친환경 행동을 실천하고 싶지만 방법을 잘 모른다

⑥ 주변 사람들이 친환경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비웃거나 무시한다

⑦ 제품을 구매하거나 행동할 때 친환경적인 대안이 없거나 품질이 떨어진다

⑧ 친환경적 행동을 해도 환경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실천의 필요를 못 느낀다

⑨ 기타(　　)

B6. 귀하는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 안함	동의 안함	보통 이다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2	3	4	5
①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해도 다른 나라들이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소용없다					
② 우리 사회는 환경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③ 환경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④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의 큰 변화 없이 환경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⑤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⑥ 우리 기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⑦ 우리 국민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B7. 귀하는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 안함	동의 안함	보통 이다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2	3	4	5
① 기후변화의 영향은 먼 미래의 일이라 나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② 환경문제는 나에게 있어 다른 것들에 비해 우선 순위가 낮다					
③ 나의 일상적인 행동과 생활방식이 기후변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④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하지 않는다면 나 혼자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도 소용없다					
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 등 내가 일상에서 친환경적 노력을 하면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⑥ 나는 마음만 먹으면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 행동들을 쉽게 할 수 있다					
⑦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나는 선거 시 후보들의 환경 관련 공약을 확인하고 투표한다					

C. 환경정보 이용 및 환경교육

C1. 현재 알고 계신 환경정보(지식)의 정도를 생각했을 때, 귀하는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한 편이다
⑤ 매우 충분하다

C2. 환경정보를 추가로 받는다면 다음 중 어떤 내용에 대한 정보를 더 받고 싶으십니까? 2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환경문제의 원인, 과정, 결과에 대한 과학적 정보
② 환경문제가 인체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③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단기적, 중장기적 대응 정책
④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⑤ 환경문제 관련 가짜 정보를 가려내는 팩트체크 정보
⑥ 나의 행동이 환경문제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정보
⑦ 기타(　　)

C3. 다음은 환경 관련 정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입니다. 귀하께서 평소 접하는 환경정보를 생각하시며 각 의견에 동의하시는 정도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동의 안함	동의 안함	보통 이다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2	3	4	5
① 내게 필요한 환경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② 대다수의 환경정보는 너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다					
③ 시중에 유통되는 환경정보에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④ 때로는 환경정보가 편향적이거나 특정한 의도를 위해 만들어진다고 생각된다					
⑤ 환경정보는 종종 과장되고 자극적으로 만들어진다					
⑥ 환경정보가 많지만 막상 내게 필요한 정보는 별로 없다					
⑦ 오늘날의 환경정보들은 정작 중요한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⑧ 환경정보는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다					
⑨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보는 이미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한다					
⑩ (미디어나 주변 사람 등이) 환경에 대해 과할 정도로 많이 이야기한다					

C4. 다음은 환경정보 행동에 대한 서술입니다. 귀하의 평소 행동을 생각하시며 각 서술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동의 안함	동의 안함	보통 이다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2	3	4	5
① 나는 환경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노력한다					
② 나는 환경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을 주제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한다					
③ 나는 환경에 관련된 주제가 나오면 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본다					
④ 나는 환경정보를 가볍게 흘려 듣는다					
⑤ 나는 환경정보를 접한 후 관련 내용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쓰지 않는다					

C5. 귀하는 평소 환경 관련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주로 접하십니까?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가끔 이용한다	매우 자주 이용한다
	1	2	3	4	5
① TV, 라디오, 신문, 온라인 뉴스 등의 언론 보도					
② TV, 라디오 등의 보도 외 프로그램(예능, 교양 등)					
③ 소셜미디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④ 지역 커뮤니티(주민센터, 아파트 자치회 등 오프라인과 밴드,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모두 포함)					
⑤ 정부의 공식 정보(환경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정보공개 등)					
⑥ 소비자·시민 단체가 제공하는 정보(홈페이지, 보도자료 등)					
⑦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등의 전문 정보					
⑧ 주변 지인(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⑨ 스마트폰 앱(미세미세, 내 손안의 분리배출 등)					
⑩ 환경 관련 주제의 서적(문학/비문학 모두 포함)					

C6. 귀하께서는 전반적으로 미디어에서 환경이나 환경문제에 대해 어떻게 다룬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보여준다
②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약간 과장하여 보여준다
③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④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약간 축소하여 보여준다
⑤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지나치게 축소하여 보여준다

C7. 귀하께서는 전반적으로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환경이나 환경문제 관련 정보가 얼마나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정확하지 않다
② 대체로 정확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정확하다
⑤ 매우 정확하다

C8.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 전반에 환경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한 편이다
⑤ 매우 필요하다

C9. 귀하는 학교, 직장, 사회단체 등에서 환경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C10

C9-1. 어떤 방식의 환경교육을 받아보셨습니까?

① 강의·해설(강의형 강좌 프로그램)
② 놀이활동
③ 견학·체험(현장 방문 등)
④ 토의·토론
⑤ 조사·관찰
⑥ 실험·실습
⑦ 행사(축제, 이벤트 등)
⑧ 창작(뮤지컬, 영화 등 창작물을 통해 습득하는 프로그램)
⑨ 전문가 과정(환경교육사 양성과정 강좌 등)
⑩ 온라인 교육
⑪ 기타(　　)

C10. 귀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환경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② 참여하고 싶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참여하고 싶은 편이다
⑤ 매우 참여하고 싶다

C11. 귀하는 어떤 방식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2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강의·해설(강의형 강좌 프로그램)
② 놀이활동
③ 견학·체험(현장 방문 등)
④ 토의·토론
⑤ 조사·관찰
⑥ 실험·실습
⑦ 행사(축제, 이벤트 등)
⑧ 창작(뮤지컬, 영화 등 창작물을 통해 습득하는 프로그램)
⑨ 전문가 과정(환경교육사 양성과정 강좌 등)
⑩ 온라인 교육
⑪ 기타(　　)
⑫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 [중복선택불가]

C12. 환경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할 환경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환경 일반(환경 전반에 대한 지식, 정보, 상식 등)
②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③ 에너지
④ 생태(숲, 생물다양성 등)
⑤ 공기(미세먼지, 대기오염, 오존 등)
⑥ 물(수질오염, 수자원, 수돗물, 생수 등)
⑦ 자원순환(폐기물, 분리배출, 재활용 등)
⑧ 유해 물질(세제,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방사능 등)
⑨ 소음(실내·외 소음공해, 교통소음 등)
⑩ 환경문화예술(환경영화, 환경공연 등)
⑪ 기타(　　)

C13. 귀하가 환경교육에 참여하고 학습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입니까? 2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환경교육이 필요 없고,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② 관심을 갖고 참여할 흥미로운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
③ 학업, 직장 생활, 가사 활동 등 주어진 일에 시간을 사용하느라
④ 취미 및 여가 활동에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⑤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서(잘 몰라서)
⑥ 환경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주변에 없어 참여하기 어려워서

D. 환경수요/정책

D1.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나를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경제적 기준(국내총생산, 일자리 등)을 우선 적용
② 환경적 기준(환경오염, 자연환경 등)을 우선 적용
③ 사회적 기준(시민참여, 복지, 형평성 등)을 우선 적용
④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D2.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우선순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표시해 주십시오.

A	A에 가깝다	◀———			B에 가깝다	B
경제성장이 다소 둔화되더라도 환경보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1	2	3	4	5	환경이 다소 훼손되더라도 경제성장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D3. 다음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기후변화 피해(폭염, 폭설, 한파, 집중호우 등) 및 대응
② 대기질(미세먼지, 오존 등) 개선
③ 강/하천/호수/바다 수질(녹조, 적조 등) 개선
④ 생활 및 농업용수 등 물 부족
⑤ 도시화 및 개발로 인한 생물다양성 파괴
⑥ (개발사업, 경제성 추구 등으로 인한) 도시 녹지면적 부족
⑦ 실내·실외(아파트 층간, 도로변, 공사 등) 소음 공해
⑧ 쓰레기 증가로 인한 문제(매립지, 냄새, 쓰레기섬 등)
⑨ 가뭄 및 홍수로 인한 피해
⑩ 생활 속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피해(세제, 가습기 살균제, 방향제, 소독제 등) 문제
⑪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생태계 및 건강피해
⑫ 기타(　　)

D4. 다음 주체들 중 환경보전 책임이 가장 큰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중앙정부　　② 지방자치단체(시, 군)
③ 기업　　④ 시민단체(환경단체)
⑤ 일반국민

D5. 다음 각각의 주체들의 환경보전 노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보통이다	잘 하고 있다	매우 잘 하고 있다
	1	2	3	4	5
① 중앙정부					
②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시, 군, 구)					
③ 기업					
④ 시민단체(환경단체)					
⑤ 일반국민					

D6.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효과적인 순서대로 두 개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환경보전을 위한 행동 및 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② 환경관련 교육기회의 확대
③ 환경규제 강화
④ 환경피해 유발에 따른 처벌강화(예: 보다 높은 벌금 및 엄격한 법 집행)
⑤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업종 등에 대한 세금 부과
⑥ 환경보전 노력에 대한 금전적 보상(예: 텀블러, 머그컵 사용시 할인제도 도입 등)
⑦ 환경 오염물질 저감기술에 대한 기술개발(R&D) 투자 확대
⑧ 환경친화적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인증/마크 제도의 확산
⑨ 국민, 기업 등 개별 주체의 자발적 노력

> 녹색전환이란 전 세계적인 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환경이 중심 가치가 되도록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D7. 귀하는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이 얼마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⑤ 매우 많이 이루어졌다

D8. 귀하는 환경문제 해결의 어려움에 대한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 안 함	동의 안 함	보통 이다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2	3	4	5
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은 예산 확보이다					
②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은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③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은 과학적 지식의 부족이다					
④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은 기업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⑤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은 국제적 공조를 확보하는 것이다					
⑥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은 정부 및 지자체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것이다					

E. 기후변화

E1.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기후변화를 체감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2. 귀하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기후변화는 전적으로 자연적인 변화이다
② 기후변화는 주로 자연적인 변화이지만 인간 활동도 일부 영향을 준다
③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변화와 인간 활동이 비슷하게 영향을 준다
④ 기후변화는 주로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지만 자연적 요인도 일부 영향을 준다
⑤ 기후변화는 전적으로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다

E3. 작년과 비교했을 때, 귀하의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 수준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① 크게 줄었다
② 조금 줄었다
③ 비슷하다
④ 약간 늘었다
⑤ 크게 늘었다

E4. 귀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아래 항목의 가계 지출이 이전보다 증가했다고 체감하십니까?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			매우 많이 증가하였다
	1	2	3	4	5
냉난방비, 가스비 등 에너지 요금					
식료품비					
보험료					
생수, 비상식량 등 재난 대비 용품 구매비					
건물 손상으로 인한 수리 및 유지보수비					
의료비					
자가용, 택시 추가 이용 등 교통비					
에너지 소비 1등급 가전, 고효율 단열재 등 친환경 제품 구매비					
기후 불안이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정신건강 상담					

E5. 귀하는 다음의 이상기후 현상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폭염(여름철 극심한 고온, 열대야 증가 등)

② 한파(겨울철 혹한, 이상 저온 현상 등)

③ 집중호우 및 홍수(짧은 시간에 내리는 폭우, 침수 피해 등)

④ 가뭄(장기간 강수 부족, 물 부족 현상 등)

⑤ 태풍·강풍(강력한 바람, 해안 및 내륙 피해 등)

⑥ 산불(가뭄·고온으로 인한 대형 화재 발생 등)

E6. 귀하는 귀하 개인(가정)이 다음의 이상기후로 인한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노출되어 있지 않다				매우 많이 노출되어 있다
	1	2	3	4	5
폭염(여름철 극심한 고온, 열대야 증가 등)					
한파(겨울철 혹한, 이상 저온 현상 등)					
집중호우 및 홍수(짧은 시간에 내리는 폭우, 침수 피해 등)					
가뭄(장기간 강수 부족, 물 부족 현상 등)					
태풍·강풍(강력한 바람, 해안 및 내륙 피해 등)					
산불(가뭄·고온으로 인한 대형 화재 발생 등)					

E7. 귀하는 우리나라가 다음의 이상기후로 인한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노출되어 있지 않다				매우 많이 노출되어 있다
	1	2	3	4	5
폭염(여름철 극심한 고온, 열대야 증가 등)					
한파(겨울철 혹한, 이상 저온 현상 등)					
집중호우 및 홍수(짧은 시간에 내리는 폭우, 침수 피해 등)					
가뭄(장기간 강수 부족, 물 부족 현상 등)					
태풍·강풍(강력한 바람, 해안 및 내륙 피해 등)					
산불(가뭄·고온으로 인한 대형 화재 발생 등)					

E8. 귀하는 다음의 이상기후로 인한 위험에 귀하 개인(가정)이 어느 정도 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대비되어 있지 않다	←			매우 잘 대비되어 있다
	1	2	3	4	5
폭염(여름철 극심한 고온, 열대야 증가 등)					
한파(겨울철 혹한, 이상 저온 현상 등)					
집중호우 및 홍수(짧은 시간에 내리는 폭우, 침수 피해 등)					
가뭄(장기간 강수 부족, 물 부족 현상 등)					
태풍·강풍(강력한 바람, 해안 및 내륙 피해 등)					
산불(가뭄·고온으로 인한 대형 화재 발생 등)					

E9. 귀하는 다음의 이상기후로 인한 위험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대비되어 있지 않다	←			매우 잘 대비되어 있다
	1	2	3	4	5
폭염(여름철 극심한 고온, 열대야 증가 등)					
한파(겨울철 혹한, 이상 저온 현상 등)					
집중호우 및 홍수(짧은 시간에 내리는 폭우, 침수 피해 등)					
가뭄(장기간 강수 부족, 물 부족 현상 등)					
태풍·강풍(강력한 바람, 해안 및 내륙 피해 등)					
산불(가뭄·고온으로 인한 대형 화재 발생 등)					

E10. 귀하는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택 2)

① 에너지 효율적 사용 및 절감(고효율 가전 보급, 건물 단열 개선 등)
② 에너지 전환(재생에너지 확대, 화석연료 감축 등)
③ 기후변화 적응 정책(홍수·폭염 대비 인프라, 기후 재해 대응 등)
④ 시민·소비자의 지속가능한 생활 습관 장려(인센티브 지급, 홍보, 교육 등)
⑤ 기업 규제 및 책임 강화(배출 규제, 기업 의무 강화 등)
⑥ 국제 협력(개도국 지원, 기술 협력 등)
⑦ 기술 혁신 및 연구 개발 지원(연구 인프라 지원, 연구 예산 확대 등)
⑧ 자연환경 보전(녹지 확대, 생태계 복원, 탄소 흡수원 관리 등)

E11. 귀하는 기후테크(Climate Tech)라는 용어를 알고 계십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응답 이후 아래 설명 노출

>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 기술을 의미합니다. 클린테크(재생에너지), 카본테크(탄소포집·저장, 탄소 감축), 에코테크(자원순환, 친환경 제품 개발), 푸드테크(저탄소 식품 생산·소비), 지오테크(탄소 관측·모니터링, 기후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E12. 귀하는 기후테크가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으로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13. 귀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기후테크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재생에너지(예: 태양광, 풍력)
② 탄소 포집 및 활용(CCUS)
③ 순환 경제(예: 재활용, 폐기물 관리)
④ 지속가능한 농업 및 식량 기술
⑤ 친환경 모빌리티(예: 전기차, 수소차)
⑥ 이차전지 및 연료전지 등 에너지 저장
⑦ AI, 빅데이터 기반 기후 솔루션
⑧ 기타(직접 기입)

E14. 귀하는 기후테크 산업 성장의 가장 큰 장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높은 초기 비용 및 경제성 문제
② 기술적 한계
③ 정부 정책 및 지원 부족
④ 시장의 낮은 관심과 인식
⑤ 전문 인력 부족
⑥ 대중의 인식 부족
⑦ 기타(직접 기입)

E15. 귀하는 기후테크 관련 금융상품(펀드, ETF, 주식 등)에 투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있다
⑤ 매우 많이 있다

E16. 귀하는 다음 조건이 충족된다면 기후테크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보통이다	있다	매우 많이 있다
	1	2	3	4	5
정부의 세제 혜택이 있는 경우					
안정적인 수익률이 예상되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 효과가 높은 상품인 경우					
투자 상품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경우					
ESG 인증 등 신뢰할 수 있는 인증이 이뤄진 경우					

F. 응답자 특성

F1. 실례지만 귀하의 학력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재학 포함) ④ 대학원 재학 이상

F2. 귀하의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① 농업/수산업/축산업 (가족 종사자 포함)
② 자영업 (종업원 9명 이하의 소규모 업소 주인 및 가족 종사자, 약국, 개인택시 운전사)
③ 판매/서비스직 (상점 점원,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
④ 기능/숙련공 (중장비/트럭운전사, 전자/가전제품 A/S기술자, 숙련공 등)
⑤ 일반작업직 (토목관계의 현장작업, 청소, 수위, 육체노동 등)
⑥ 사무/기술직 (일반회사 사무직, 기술직,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 회사에 소속된 웹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⑦ 경영/관리직 (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 교장, 기업체 부장 이상의 직위 등)
⑧ 전문/자유직 (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종교가, 언론인, 고소득 프리랜서 디자이너/프로그래머 등)
⑨ 전업주부
⑩ 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⑪ 무직
⑫ 기타( )

F3. 실례지만 귀하의 결혼 유무를 여쭙겠습니다.

① 미혼 ② 기혼(사실혼 관계 포함)
③ 기타(사별, 별거, 이혼 등)

F4. 귀하께서는 자녀가 있으신지요?

① 있다 ② 없다 ➜ F5

F4-1. 귀하께서는 10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신지요? 있다면 몇 명입니까?

① 없다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이상

F5.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아래 분류에 따라 그 수를 기입해주십시오.

전체 가족 수(응답자 본인 포함)		1. ( ) 명 //자동계산 되어 보여지게 할 것//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구성	응답자 본인	1. 1 명
	만 70세 이상 가족 수	1. ( ) 명
	초중고생 가족 수	1. ( ) 명
	미취학 아동 가족 수	1. ( ) 명
	그 외 가족 수	1. ( ) 명

F6. 귀하 가족의 한 달 평균 총 수입은 얼마 정도입니까?

① 100만 원 미만
② 100~200만 원 미만
③ 200~300만 원 미만
④ 300~400만 원 미만
⑤ 400~500만 원 미만
⑥ 500~600만 원 미만
⑦ 600~700만 원 미만
⑧ 700~800만 원 미만
⑨ 800~900만 원 미만
⑩ 900~1,000만 원 미만
⑪ 1,000만 원 이상

F7. 귀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진보적
② 다소 진보적
③ 중도적
④ 다소 보수적
⑤ 매우 보수적

F8. 귀하께서는 일반적으로 미디어(TV, 신문 등)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② 대체로 신뢰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신뢰한다
⑤ 매우 신뢰한다

F9. 현재 귀하의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귀하는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지극히 불만족 ⟵ ⟶ 지극히 만족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참고문헌

[국내문헌]

김현노 외(2019),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별책부록: 2019 국민환경의식조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현노, 전호철, 이홍림(2020),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2020 국민환경의식조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안소은, 염정윤, 이홍림(2021),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2021 국민환경의식조사」, 한국환경연구원.

염정윤 외(2022),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2022 국민환경의식조사」, 한국환경연구원.

염정윤, 강선아(2023), 「2023 국민환경의식조사」, 한국환경연구원.

염정윤, 강선아(2024), 「2024 국민환경의식조사」, 한국환경연구원.

[국외문헌]

Boyle, K. J. et al.(2016), "Investigating Internet and Mail Implementation of Stated-Preference Surveys While Controlling for Differences in Sample Frames",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64(3), Springer, pp.401-419.

Carrozzino-Lyon, A. L., S. L. McMullin, and J. A. Parkhurst(2013), "Mail and Web-Based Survey Administration: A Case Study With Recreational Users of Virginia's Wildlife Management Areas", *Human Dimensions of Wildlife*, 18(3), Taylor & Francis Group, pp.219-233.

IPCC(2021), *Climate Change 2021: The Physical Science Basi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I: https://doi.org/10.1017/9781009157896.005.

Gkargkavouzi, A., G. Halkos, and S. Matsiori(201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for Measuring Multiple Motives toward Environmental Protection (MEP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Vol.58, Elsevier, pp.1-17.

Lindhjem, H. and S. Navrud(2011), "Are Internet Surveys an Alternative to Face-to-Face Interviews in Contingent Valuation?", *Ecological Economics*, 70(9), Elsevier, pp.1628-1637.

Leiserowitz, A. et al(2025), *Climate Change in the American Mind: Beliefs & Attitudes, Spring 2025,* Yale Program on Climate Change Communication and the George Mason University Center for Climate Change Communication.

UNDP(2024), *Peoples' Climate Vote 2024*, pp.11-12.

저자약력

염정윤

고려대학교 언론학 박사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현)
jyyum@kei.re.kr

주요 연구실적

- 2024 국민환경의식조사 (2024)
- 녹색소비 촉진을 위한 성인 환경교육 방안 (2023)
-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시민과학 활성화 방안 (2022)

강선아

한국환경연구원 전문연구원(현)
sakang@kei.re.kr

※ 본 책자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용지로 인쇄되었습니다.



2025 국민환경의식조사

KEI 한국환경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www.kei.re.kr

9 791159 807565 93530
ISBN 979-11-5980-756-5